

居頓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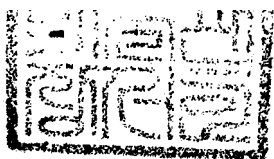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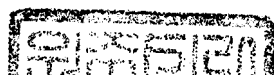


原 城 郡

居頓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 報告書

1986. 12

調査 編纂 새한建築文化研究所



原 城 郡

目 次

| | |
|---------------------------|-----|
| I. 序 言 | 7 |
| 1. 課業指針과 調査內容 | 7 |
| 2. 實測 및 調査方案 樹立 | 9 |
| II. 石物實測 및 寺址 調査 | 13 |
| 1. 居頓寺의 配置 | 13 |
| 2. 三層石塔 | 26 |
| 3. 金堂址 | 44 |
| 4. 圓空國師 勝妙塔 | 61 |
| 5. 圓空國師 勝妙塔碑 | 79 |
| 6. 浮屠殿址 | 90 |
| 7. 金堂前面의 石物 | 93 |
| 8. 民家에 옮겨진 石物 | 103 |
| 9. 수집된 瓦磚類, 土器類 | 114 |
| III. 居頓寺의 歷史・地理的 環境 | 122 |
| 1. 居頓寺의 沿革 | 122 |
| 2. 南漢江과 居頓寺 | 132 |
| IV. 綜合的 考察 | 135 |
| 實 測 圖 面 | 139 |
| 參 考 文 獻 | 177 |

發 刊 辭

우리는 悠久한 歷史와 더불어 貴重한 文化遺産을 先祖로부터 물려받아 民族의 自矜心を 갖게 되었다.

값진보배들이 더러는 無關心과 無知, 그리고 災難으로 毀損되고 流失되는 事例가 있었는데 이런 일들로 貴重한 遺産을 잃게 된다면 先祖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罪를 짓는 것이요, 後代에 對하여는 부끄러운 일이다. 한번 毀損된 文化財는 완벽한 考證을 거쳐 復元한다 해도 이미 歷史性的 價値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祖上이 물려준 遺産을 바로 알고 最大限 原形대로 保存하여 後代에 물려주어야 할 責務를 지고 있다.

統一新羅期부터 地方行政의 中心地가 되었고(五小京의 하나인 北原小京) 朝鮮時代 初期부터 中期까지는 江原道の 首府였던 點과 秀麗한 雉岳의 精氣를 이어받은 우리 原城郡 일대에는 값지고 많은 文化遺産들이 散在해 있다.

그 중에서도 國寶 59 號인 法泉寺智光國師 玄妙塔碑, 寶物第 78 號 居頤寺 圓空國師 勝妙塔碑와 寶物 750 號인 居頤寺址三層石塔, 그리고 寶物 463 號인 興法寺址 眞空大師塔碑, 寶物 464 號 興法寺址 三層石塔등은 훌륭한 藝術品들이라 하겠다.

또한 옛 寺址를 떠나 지금은 서울景福宮에 移置되어 있는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과 居頤寺圓空國師勝妙塔은 더욱더 佛教美術品の 찬연한 면모를 보여준다.

오래전부터 斯界의 깊은 關心을 끌어오던 史蹟第 168 號 居頤寺址내에 있는 地上石造物의 一部는 新羅末, 高麗初의 石造藝術品이다. 이번에 本郡에서 石物實測을 겸한 地表調査를 施行하게 된 것은 文化遺蹟에 對한 바른 理解와 補修, 保存課業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

끝으로 이 調査作業의 指導를 맡아주신 文化財研究所 金東賢 保存科學研究室長과 實測調査를 맡아주신 새한建築文化研究所의 여러분께 感謝를 드린다.

1986. 12.

原 城 郡 守

序 文

居頤寺는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의 玄溪山(頂上 535 m)下 담안마을에 있다. 原州로부터는 西南方으로 40 km가량 떨어진 山間奧地에 속하나 南漢江으로 부터는 直線거리 4 km以內의 거리이며 寺址周邊은 해발 130 M이하의 底平한 山間盆地에 자리잡은 平地寺院이라 할 수 있다.

南漢江邊에 이웃한 法泉寺나 興法寺, 高達寺등의 여러 寺院들이 陸路보다는 水運을 利用한 交通上의 便利點을 擇하여 절의 位置가 定하여졌고, 이런 연관으로 옛부터 僧侶들이 서로 往來해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江邊을 따라 上流로 올라가면 靑龍寺址, 中原郡 可金面の 內洞寺址, 院洞寺址, 塔坪里寺址, 金生寺址, 浮土寺址, 億政寺址등 新羅末로부터 高麗時代 寺址들이 江岸이나 그 인근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居頤寺와 法泉寺가 있는 富論面 일대는 오랫동안 驪興땅에 所屬되어 開京과 南京(漢陽)에 쉽게 接屬되고 高麗朝가 全國을 十道로 나누어 統治할 때에는 原州일대가 中原道에 편입되었던 까닭에 忠州중심의 中原地方과 더욱 密接한 聯關을 가졌었다.

居頤寺의 沿革을 소상하게 밝힐만한 文獻資料는 충분하지 못하다. 寺址內에 풍부한 遺構에 비하여 매우 貧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疏略한 文獻資料만을 가지고 沿革을 밝힐 수 없지만 寺址에 남긴 石造遺構와 瓦片 및 土器片등을 觀察해 볼때 居頤寺는 대체로 新羅末서부터 高麗를 거쳐 朝鮮前期까지는 存續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統一新羅 下代에 들어 王室의 粉爭과 貴族社魯의 혼란으로 慶州를 中心한 中央勢力이 분열 쇠퇴되면서 邊邦의 地方勢力이 급격하게 팽창해가던 時期가 있었음을 보아왔다.

이 때의 佛教는 禪宗이 번성하면서 신라邊方 곳곳에 地方佛教를 隆興시키고

系派山門을 확장하던 時期였다. 慶州에 기반을 가진 기존의 敎學佛敎(華嚴宗)가 모든 僧職을 장악, 보수성을 나타낸 반면 中國에 遊學하여 法眼宗의 영향을 받은 禪僧(主로 吳越의 高僧인 永明延壽의 門弟)들이 歸國하여 地方山門을 개설하고 門徒中心의 布敎活動을 벌이던 시기였다. 이 즈음하여(9세기 전후반) 南漢江 流域의 여러 寺刹들이 開瓶되었고 居頓寺도 이때에 初瓶된 것이 아닌가 推定된다.

이후 高麗時代 前期까지는 그 脈이 그대로 이어져 居頓寺와 興法寺, 高達寺 등은 禪宗의 高僧들에 의하여 寺勢가 維持되어 왔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高麗 숙종때의 大覺國師 義天이 그 당시까지의 敎學과 天台學을 集大成하여 天台宗을 成立하였을 때에 居頓寺는 高達寺, 神□寺, 靈巖寺, 智谷寺 등의 五大山門 1,000餘 高僧과 함께 義天의 門下에 들어가 天台宗의 基盤寺院이 되기도 하였다⁽¹⁾

그후 高麗後期에 들어 다시 禪宗道場이 되고 그 門徒들의 居住處로서 靜覺國師 志謙(1145~1229) 등이 住釋하며 寺의 法統을 이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寺址에 散在한 石造遺構나 瓦片, 土器片 채집으로도 新羅末로부터 高麗를 거쳐 朝鮮時代까지에 法燈이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寺運이 다하여 法脈이 끊어지고 香火가 꺼진 時期는 正確하게 알 수 없다. 東國輿地勝覽이나 등 朝鮮初期에 寺況을 밝혀주던 記錄이 朝鮮後期の 舊邑誌(輿地圖書)나 大東地志에는 「今廢」 또는 寺名자체가 등장되지 않고 있다.

驪州의 高達禪院이나 原城郡內의 興法寺址, 法泉寺址 등은 居頓寺址와 함께 거의 같은 시기에 經營되고 이웃한 위치에서 僧侶들의 往來가 잦았던데 연유한 것인지는 몰라도 塔碑의 형태나 石物紋樣에서도 비슷한 要素가 많이 發見되며 樣式史的인 面에서 系統의 흐름을 比較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다만 法泉寺는 居頓寺와는 가장 가까운 寺刹이면서 宗派的 系統이 달랐던 때

註(1): 許興植: 高麗佛敎史 研究 - 潮閣 1986.10.

문인지(高麗代에 줄곧 瑜伽宗 寺院이었으며 그 宗派에 속한 高僧⁽²⁾들이 住釋해 왔음) 寺院內의 遺構 즉 建物基壇과 礎石, 塔碑등의 형상이나 裝飾紋樣등에 獨特한 要素를 보이고 있다.

居傾寺址는 寺址南端에 높은 石築을 쌓아 造成한 臺地위에 金堂과 三層石塔을 세워 中心郭을 이루고 築壇위에 門址와 廻廊을 들렀다. 中心寺城의 背後에 넓은 부지를 層段造成하여 講堂과 여러 殿閣을 建立하였던 遺址와 石築列이 몇 곳에 남아있으며 맨 後崗에 浮屠塔殿을 마련하였었다. 이, 浮屠는 日政때 搬出되어 지금은 서울 景福宮 庭苑에 安置되어 있으며 寺址의 東쪽 於口에 塔碑만이 남아있다.

中心郭의 西便, 層段져 내린 耕作地에는 僧房등의 後苑寮舍등을 建立하였던 흔적의 石物과 瓦片이 논둑에 集散되어 있다.

寺域의 後半部, 舊地表위에는 지금도 12戶의 民家가 들어서 있다. 各家屋의 기둥과 基壇, 담장 築台등에는 寺址에서 옮겨진 礎石과 長台石, 紋樣石등의 石物이 그대로 活用되고 있다.

中心郭을 圍繞하는 前面大石壇과 金堂, 三層石塔의 基壇部는 近年에 整備補修하였고 前面門址와 廻廊에 둘러졌던 遺址로서의 礎石과 基壇石列의 殘存分도 모두 정리되어 丹裝되었다.

금희의 調査는 寺域內 地表上에 露出된 石物을 實測作圖하고 表土上 들어난 遺構에 한정된 地表調査인 까닭에 地中 遺構의 파악이나 伽藍配置를 비롯한 寺址全體에 對한 性格구명등의 精密調査는 할 수 없었다.

石造物을 中心한 地上物에 對한 實測과 概括的인 現況調査로 마무리한 셈이다.

앞으로 寺址全域에 대한 綜合的인 發掘등의 學術調査가 반드시 이루어져 寺址全貌를 밝힐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한다.

註(2): 法泉寺에 住釋하던 瑜伽宗 소속의 高僧들은 慧炤國師 鼎賢(972~1054) 智光國師 海麟(住持 또는 受學)(984~1067) 圓證僧統 德謙(1083~1150) 證智首座 觀輿(1096~1158)등이다.

이번 調査에 관여한 人士는 다음과 같다.

指導委員 金東賢(文公部 文化財研究所 保存科學研究室長)

監 督 南孝大(文化財管理局 文化財補修課)

調 査 員 李應默(새한建築文化研究所)

李賢俊 (")

李海吉 (")

崔楨材 (")

徐正男 (")

韓訓熙 (")

文獻調査 黃義秀(韓國建築史家,民學會)

및 諮問 黃義洙(漢學者,成大 大學院 博士過程)

報告書執筆은 李應默(遺構調査)와 黃義秀(歷史地理)가 擔當하였고 나머지 人員이 實測과 圖面作成을 담당하였다.

調査의 業務를 主管한 原城郡 文化公報室 여러분의 지원과 協調 그리고 江原道廳 李正鎔 建築技士의 助言에 감사드린다.

1986. 12

調 査 員 一 同

I. 序 言

1. 課業指針과 調査内容

居頓寺址의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의 計劃은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에 依하여 樹立되고 江原道 原城郡에서 施行하였다.

居頓寺址는 1950 年代末 學界에 報告된 후 많은 관련분야 學者들이 깊은 關心을 가지고 踏査하였으며 寺址의 規模와 性格등을 正確히 파악하기 위한 精密 學術調査의 必要性을 建議하였다.

寺址前面의 우람한 石築위에 造成된 金堂址 周邊에는 여러채의 民家가 들어 서고 境內는 耕作地化됨으로서 遺構가 더욱 攪亂, 황폐해 가고 있었으며, 寺址內의 石造遺物들이 뜯기어져 民家の 基壇과 담장, 石築, 장독대등에 活用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遺構保存에 대한 對策이 더욱 절실했었다.

文公部는 1968 年 12 月 이 寺址를 史蹟 第 168 號로 指定하였고 이때부터 부분적인 調査가 進行되기도 하였다. 特히 1965 年度부터 인근의 法泉寺址에 對한 發掘調査가 시행되면서 居頓寺址內 遺構에 대한 關心이 더욱 高潮되었다.

이보다 앞서 居頓寺址에 있는 圓空國師 勝妙塔(浮屠塔)과 同塔碑는 石造美術品으로서의 價値가 일찍 알려져 勝妙塔은 日人들에 依해 搬出되는 수난을 겪기도 하였고 塔碑는 日政期인 1938 年 10 月에 寶物로 指定되기도 하였다.

近年에는 金堂앞의 三層石塔도 寶物 第 750 號로 指定 保護되고 있다. 1984 年 文化財管理局은 이천일백만원의 豫算을 投入하여 攪亂된 金堂基壇과 三層石塔을 復元補修하고, 붕괴된 前面石築을 補完再築하면서 中心寺域의 遺構整備를 하였다. 이때 金堂址 周邊의 民家를 撤去移轉시키고 堆積된 土砂를 除去하여, 石築中央

의 進入路와 門址, 廻廊址 등을 露出시켰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面貌의 中心郭을 되찾아내게 하였다.

지금도 寺域의 후반부인 講堂址일대와 東北便에는 12戶의 民家が 들어서 있다. 곳곳에 精巧한 長台石으로 築壇한 建物址와 石築이 들어나 있고 無數한 瓦片과 基壇石등이 흩어져 있다.

이제는 寺域全體에 對한 綜合的인 發掘調査가 시행되어 寺址全貌가 밝혀져야 한다. 앞으로 이런 具體的인 作業에 對備하여, 우선 흩어진 石物의 實測과 寺址内外의 간략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次後에 進行될 精密調査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자 금번의 實測作業이 計劃된 것이다. 주어진 課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實測調査의 範圍

사적 第168號로 指定된 居頌寺址 文化財 保護區域 内外에 걸쳐 산재한 石物을 精密實測하고 石塔을 中心으로한 반경 300미터 範圍內的 寺址周邊 一帶에 對한 地表調査를 施行한다.

二. 實測調査의 內容

1) 寺址 内外의 精密地形 測量

寺址全域에 대한 精密 地形測量(평판 및 LEVEL)을 하여 현황배치도를 作成하고 여기에 實測調査된 遺構와 石物의 位置를 正確히 表記한다.

위의 現況圖를 基本으로 하여 가람배치의 把握은 물론 向後 可能한 範圍內的 寺址整備 및 復元計劃을 樹立할 수 있도록 한다.

2) 石物 및 遺構의 實測調査

이미 表出되어 있는 金堂地를 비롯한 石塔, 石碑등의 精密實測 撮影 記錄하여 實測圖面을 作成하고 寺址内外에 散在한 초석, 기단석, 石壇, 석당간 기타 生活 石物등의 모든 石造遺構를 實測 圖面화한다.

이 實測은 地表上에 露出된 部分만을 調査하고, 調査過程중 必要한 部分에는 표토정리등의 간략한 土砂除去를 병행할 수 있으나 TRENCH 등 굴착조사는 禁한다.

調査중에 蒐集되는 瓦片, 土器片 其他 石片등도 寫眞撮影과 拓本 하여 圖面化한다. 또한 同 實測에는 現在 서울 景福宮에 移建된 圓空國師 勝妙塔도 포함한다.

3) 居頓寺의 沿革과 地理 歷史的 環境調査

居頓寺 寺蹟에 대한 關係文獻 史料를 綜合調査 整理하고 인근에 위치한 法泉寺址, 興法寺址등의 寺蹟과 歷史地理的 環境등을 함께 調査하여 寺刹의 性格을 料明한다.

4) 實測調査 報告書의 刊行

위의 實測과 調査된 資料를 整理하여 報告書를 作成한다.

報告書에는 地形測量圖, 가람배치도, 石塔등을 비롯한 石造物의 圖面, 採集 出土品の 圖面, 寫眞圖版, 沿革과 周邊寺址에 대한 綜合的 考察등을 收錄한다.

報告書의 規格은 4.6 배판 120 面 内外로 한다.

以上の 제시된 課業에 의해 實測調査團을 構成하여 現場實測과 圖面作圖를 進行하면서 關係文獻 調査를 병행하였다.

2. 實測 및 調査方案 樹立

寺址의 現狀을 實測調査 記錄하는데 두가지 作業이 병행되었다. 寺域의 全體 地形을 測量하는 일과 露出되어 있는 石造 建造物의 遺構現狀을 精密實測하는 일이다.

地形測量의 범위는 講堂址 뒤의 民家와 背山까지 포함하였고 金堂址 앞 小河川까지 測量하였다. 대략 이 범위 測量대상 면적은 約 21,000 坪 가량이 된다. 測量은 평판과 Level 測量을 兼하여 地勢와 地形을 正確하게 記錄하고 남아있는 石造遺構의 布置現狀을 表示하였다.

實測 및 調査의 대상은 寺域內에 남아있는 모든 建造物과 遺構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實測調査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方案을 決定하였다.

- 1) 各建造物의 實測에 便利하도록 적당位置에 浮槓 및 수평, 수직 規準틀을 설치한다.
- 2) 彫刻되거나 浮彫된 部分의 形狀은 濕拓한다.
- 3) 透刻되거나 立體的인 部分은 方眼을 設定하여 기록하되 方眼마다 位置를 表示하는 記號를 부여한다.
- 4) Meter 法을 遵守하여 m/m를 單位로 하여 測定한다.
- 5) 미묘한 曲線과 量感의 흐름을 事實대로 기록하기 위하여 測定記錄과 함께 部位特性을 摘記하고 사진촬영을 한다.
- 6) 測定에는 鋼鐵製의 자와 錘의 使用을 基本으로 한다.
- 7) 記錄은 方眼全紙에 收錄하며 實測對像物에 따라 實物大 或은 一定한 縮尺으로 하되 부식, 파손, 퇴락된 狀態를 現狀대로 記錄한다.
- 8) 測定記錄의 整理는 現地에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一. 實測方法

1) 地形測量

平板測量으로 精確한 위치를 기록하고 Level 測量을 하여 高底를 測定 記錄한다. 等高線은 1 m의 간격으로 測定하였다.

2) 石造建造物의 實測

가. 實測器具

測定用 자는 시판되는 鋼鐵製 자를 使用하였고 曲形 및 不定形材나 지름 測定에는 鐵製 丁形 자를 2개 交合하여 使用하였고 垂直線의 내림은 錘를 이용하였다. 濕拓은 質이 좋은 畫宣紙를 使用하였다.

나. 實測記錄

記錄은 臺帳을 만들고 實測值 일람표에 部材別로 數値를 表記하되 單位部分을 區間別로 測定한 뒤에 全長을 確認하고 기록하였다.

部材에는 분류와 정리에 便利하도록 임시로 번호를 부여 하였고 오랜 세월

깎여나가거나 탈락된 부분의 조사를 위하여 中央部和 兩端部, 四隅등으로 細分하여 實測 記錄하였다.

또한 部材의 흠집, 釘구멍등 毀失되어 없어진 遺構의 現狀을 모두 記錄하였다.
다. 사진촬영

建造物 遺構의 部分的인 상태와 遠景, 細部的 近接精密촬영을 여러 각도에서 슬라이드와 칼라, 흑백 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사진촬영은 조사원들이 담당하였다.

二. 實測進行

1) 規準틀의 設置

角木과 실, 못등을 이용하여 水平, 垂直의 規準틀을 三層石塔, 碑, 勝妙塔, 金堂址등 각 建造物마다 설치하였다.

가. 水平 規準틀

建造物의 四隅部分에는 “ㄱ”字形으로, 平邊部 積塼개소에는 “一”字形으로 설치하였고 높이는 G.L에서 30 ~ 50 cm 정도 떨어지게 하였다. 높이는 四面이 同一하도록 水平을 맞추었다.

나. 垂直 規準틀

垂直 規準틀은 最小限의 높이를 建造物의 最高 높이까지 세워야 便利하므로 높이가 높은 三層石塔과 勝妙塔碑는 角木을 이어서 使用하였는데 대패로 다듬고 보강철물을 사용 垂直이 유지되도록 하고 버팀木으로 고정하였으며 # 16의 鐵線으로 세 方向에서 잡아 당겨 고정시키며 수직을 재확인하였다.

規準틀 角木에는 鋼鐵製 자를 고정 부착시켜 눈금을 편의에 따라 읽을수 있게 하고 建造物의 각부위의 Level 을 물 수평을 使用하여 實測 기록하였다.

또한 補助 基準틀을 두었다. 實測하는 場所에, 部位에 따라 便利하게 使用하도록 이동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2) 浮械의 가설

浮械의 가설위치는 기 설치한 規準틀을 피하여 설치하되 최대한 建造物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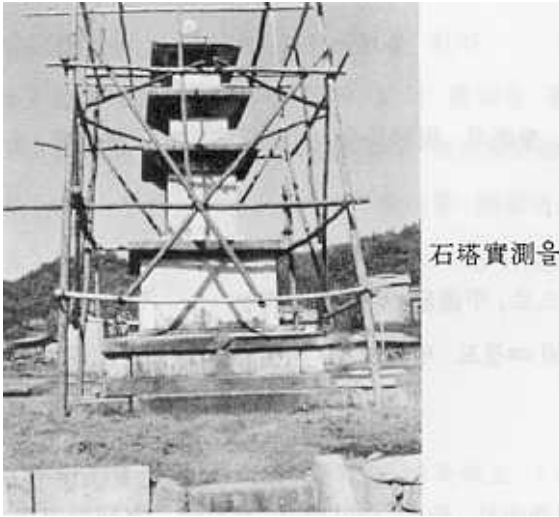
接近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三層石塔과 勝妙塔碑는 外部에 외줄비계 (낙엽송)를 가설한 다음 各部位別 精密實測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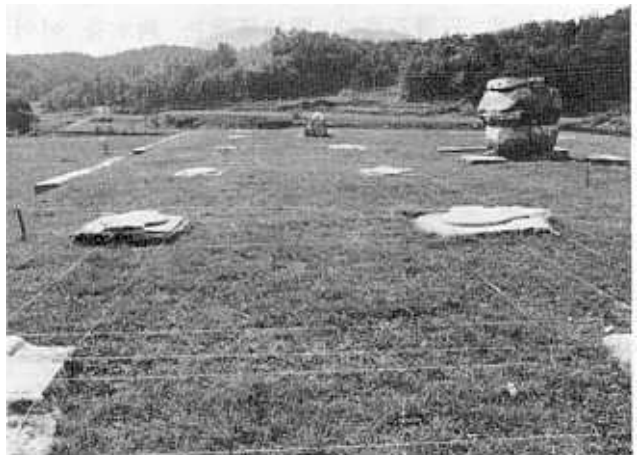
또한 景福宮內에 있는 勝妙塔은 높이가 얕으므로 이동용 가설발판을 엮었다.

3) 基準線의 設定

自然石 石築 및 金堂址基壇, 石物群, 礎石 等에는 平面 및 立面上으로 한 간격의 基準線과 補助方眼을 設定하여 實測에 精密을 기하였다.



石塔實測을 위해 가설된 飛械



金堂址바닥 實測을 위한 平面基準線

Ⅱ. 石物實測 및 寺址調査

1. 居頓寺의 配置

寺址는 賢溪山의 南쪽 支脈이 흘러내린 작은 丘陵으로 둘러싸여 있다.

담안 부락내에 있으며 주변엔 鼎山國民學校와 20 餘戶의 民家가 들어서 있고 마을 가운데로 작은 溪川이 있어 東에서 西便으로 흐른다.

寺址는 이 溪川가에 높은 石築을 쌓아 造成한 臺地위에 있다.

寺址의 全體的인 地形을 보면 前端的인 平坦한 낮은 地帶에 金堂과 三層石塔을 배치하여 中心郭을 이루고 그 후면의 점차 높아져가는 地面에 層段을 내어 講堂과 다른 寺院建物들을 앉혔던 遺構가 여러곳에 드러나고 있다.

金堂등이 있는 中心郭의 南쪽은 바로 築壁앞에 냇가와 내를 건너 다시 층단 지어 오르는 耕地로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前面으로는 寺域을 넓힐수 있는 環境이 아니고 金堂址 후면이나 東西양쪽으로만 寺域을 확장할 수 있는 地理的 與件이다.

寺址의 背後에는 標高 50 m 內외의 낮은 산기슭이 둘러 있으며 前面과 西쪽으로 視野가 트여 있다. 東쪽으로 산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면 깊은 골짜기에 비교적 넓은 耕地가 전개된다.

寺址는 대체로 南向하여 前端的인 平坦地에 金堂등의 中心寺域이 형성되고 後面에 여러段으로 層段造成하여 講堂址와 기타 建物址를 배치하였다.

東쪽어구에 圓空國師 勝妙塔碑가 있고 부도塔(勝妙塔)이 세워졌던 塔殿은 가장 北쪽 기슭에 남아있다. 金堂址로부터는 130 m떨어진 背山 기슭에 있으며 金堂基壇 上面으로 부터의 高底差는 16 m이다.

金堂의 東便으로는 바로 한단 높은 地臺의 硯으로 연결되어 별다른 遺構를 찾을수 없으나 西便으로는 낮은 地帶의 경작지로 펼쳐져 있을뿐 아니라 논두렁 둔덕에는 많은 石物들과 瓦片들이 깔려 있어 이곳에 僧房등 後園寮舍가 建立되었음을 알 수 있다.

數年前 까지만 해도 金堂址와 三層石塔이 있는 中心郭에 까지 民家가 들어있었던 것을 近年에 撤去移轉하고 復舊단장 하였다.

지금도 寺址內의 東北便 전체에는 12戶의 民家가 들어있으며 민가 周邊의 寺域을 田畠으로 일구어 耕作하고 있다.

이들 寺址內에 들어선 民家들은 대체로 居傾寺의 寺運이 다하여 香火가 완전히 꺼진 후에 들어선듯 하며, 이곳 住民들 중에 몇代를 걸쳐 居住한 주민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남아있는 民家の 울타리와 기단에는 옛 寺刹建物에 사용되던 石物이 보이며 礎石과 長台石등을 현재의 建物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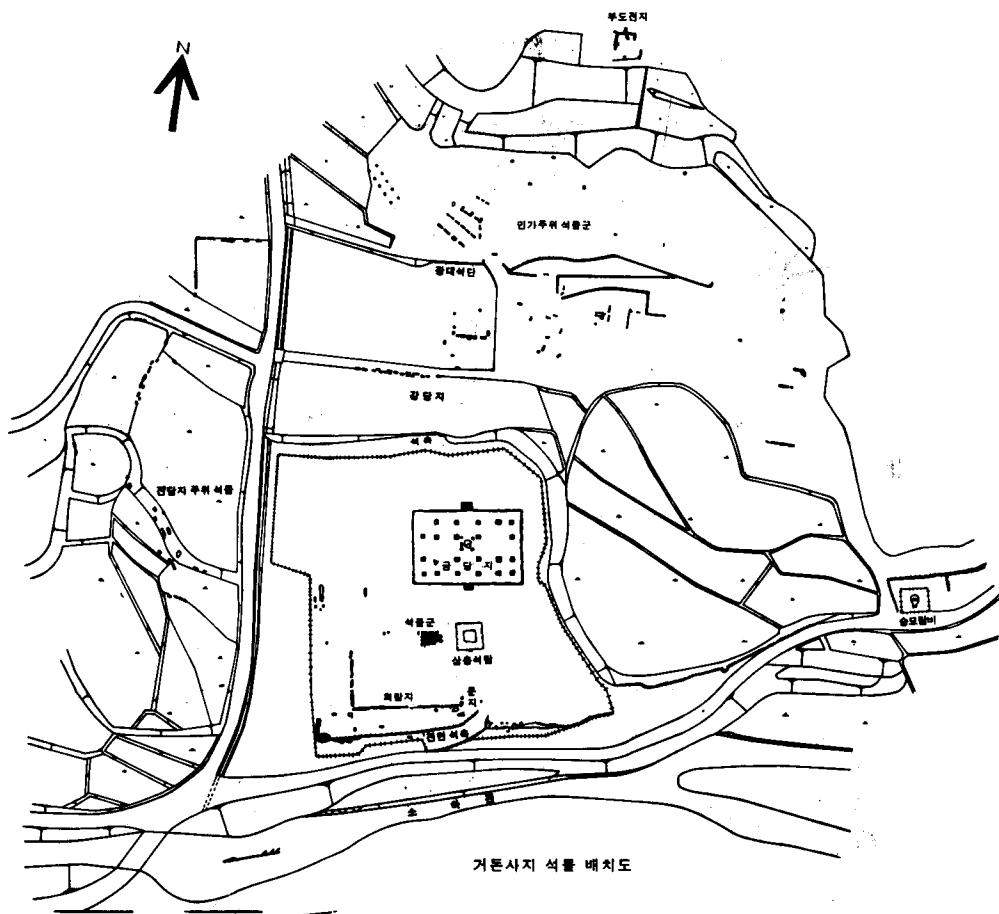
寺址全域에 無數한 瓦片이 깔려있고 간혹 土器片도 발견된다.

民家들의 울타리 안팎에 自然石으로 堅實하게 쌓은 옛 石築이 여러곳에 보임으로 寺域의 造成이 여러번 걸쳐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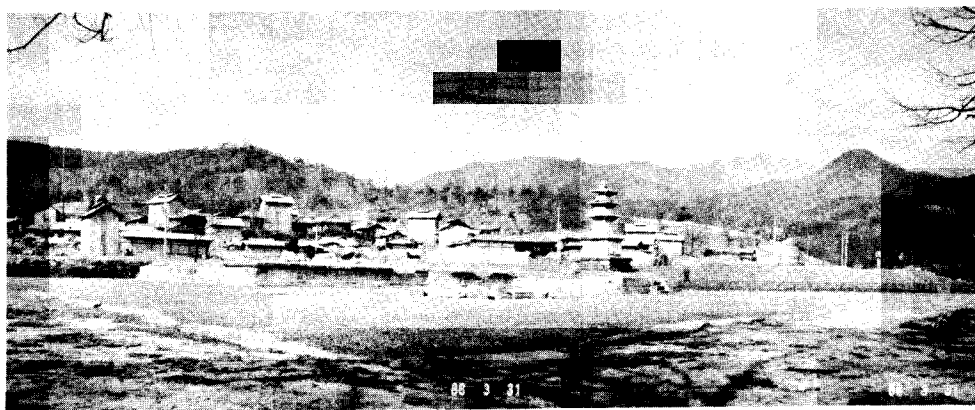
金堂과 三層石塔이 있는 中心郭의 면적은 약 $5,210 m^2$ (1,576 坪)이고 外見上 寺域全體의 東西길이는 200 m 南北길이는 160 m로 全體면적은 $32,000 m^2$ (9,392 坪)에 이른다.

金堂址의 礎石排列狀으로 본 金堂規模는 $318.04 m^2$ (96.2 평)이고 金堂 基壇內의 바닥면적은 $583 m^2$ (176.35 坪)이다.

南北中心軸 線上에서 본 南北최장길이 (前面石築에서 浮屠殿까지)는 190 m에 이르고 그 縱斷高는 24 m 가량된다.



居頓寺址 石物配置圖



居頓寺址 全景

中心郭의 實測

寺址의 最南端 溪川邊에 巨大한 石築壁이 있어 寺域의 範圍를 劃定하고 있다. 이 石壁은 지름 1.1 m 内外의 커다란 自然石을 허튼층 쌓기로 堅實하게 쌓아 그 높이는 3~5 m에 이른다. 石築의 길이는 대략 83 m로, 前面의 中央에 비스듬한 경사로를 내며 엮물려 벌려져 연결되어 있다.

이 石築위에 平坦한 臺地를 造成하여 三層石塔과 金堂등을 배치하였다.

이 大石築은 西端에서 꺾이어 北쪽으로 延長되며 이곳의 높이는 2~3.5 m이다. 지금 南쪽 石壁 中間부분에 열려있는 경사 진입로는 當初부터의 모습은 아닐것으로 생각되나 이 위치에 石階등이 부설되어 寺址에 진입토록 되었을 것이다.

이 부분 石壁위에 門址로 推定되는 建物址가 있다. 제 위치를 固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礎石形돌이 몇개 있으며, 여기에 進入路가 開設되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보아 門址나 혹은 層樓등의 建物址로 보아진다.

이 門址의 西便으로는 石築壁 上端에서 5~7 m의 거리를 두고 自然石列이 쪽 연결되다가 27 m지점에서 꺾이어 北進하고 있으며 그 內區에 上平한 礎石形돌이 두어개 놓여 있음으로 해서 門에 연결하여 廻廊이 둘러졌음을 느끼게 한다.

회랑의 기단석열이라 추정할 수 있는 石列은 門址 부근에선 작은 自然石을 한벌대로 놓은 것이나 西邊쪽으로는 길이 3~4 m가량의 커다란 長大 割石도 섞여 있어 회랑을 견실하게 세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石壁으로부터의 거리가 西便으로는 8~9 m까지 떨어져 있어 西邊에는 複廊도 들어설수 있는 공간이 되나 南쪽은 기단 石列로부터 후퇴하여 礎石배열되어야 함으로 單廊이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礎石이라 추정하는 돌도 지금은 몇개의 上平한 自然石 뿐이고, 또 제 위치를 지키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까닭에 회랑지의 可能性만을 제시코자 한다.

門址의 東쪽으로는 그나마의 기단석 列이나 礎石도 보이지 않는다.

中心郭의 南端 石壁의 길이는 門址를 중심으로 東·西가 거의 같은 거리를 유지하나 그 內區에서는 東便臺地가 매우 협착하다. 金堂基壇 東便으로는 約 6 m거리를 두고 바로 2 m높이의 경사둔덕이 다가서 있고 그위엔 논으로 耕作되고 있다.

金堂址의 中心과 三層石塔의 中心點을 연결하는 線을 南北 縱軸으로 하였을 때 이 中心軸線上的 前面 石築으로부터 24 m안쪽에 三層石塔이 있다.

石塔中心과 金堂址 南邊基壇까지의 거리는 13.5 m이고 金堂北邊基壇으로부터 18.5 m 떨어져서 層段을 달리하는 講堂址의 前面石築이 있다.

講堂址 前面의 石築은 큰 規格의 自然石을 사용 견실하게 쌓았으며 石壁의 높이는 2 m內外이다. 石築이 부분적으로 崩壞되고 土砂에 埋沒된채로 경사둔덕에 그 모습을 약간 들어내고 있는데 石築을 쌓은 모습은 寺址前面의 大石壇과 비슷한 手法이다.

이번의 石物實測의 범위가 地表上에 들어난 石物을 對象으로 하고 試掘을 통한 遺構調査가 엄격하게 統制되었기 때문에 講堂址 前面 石築도 傾斜法面に 面貌를 들어낸 18 m의 범위만을 정밀하게 실측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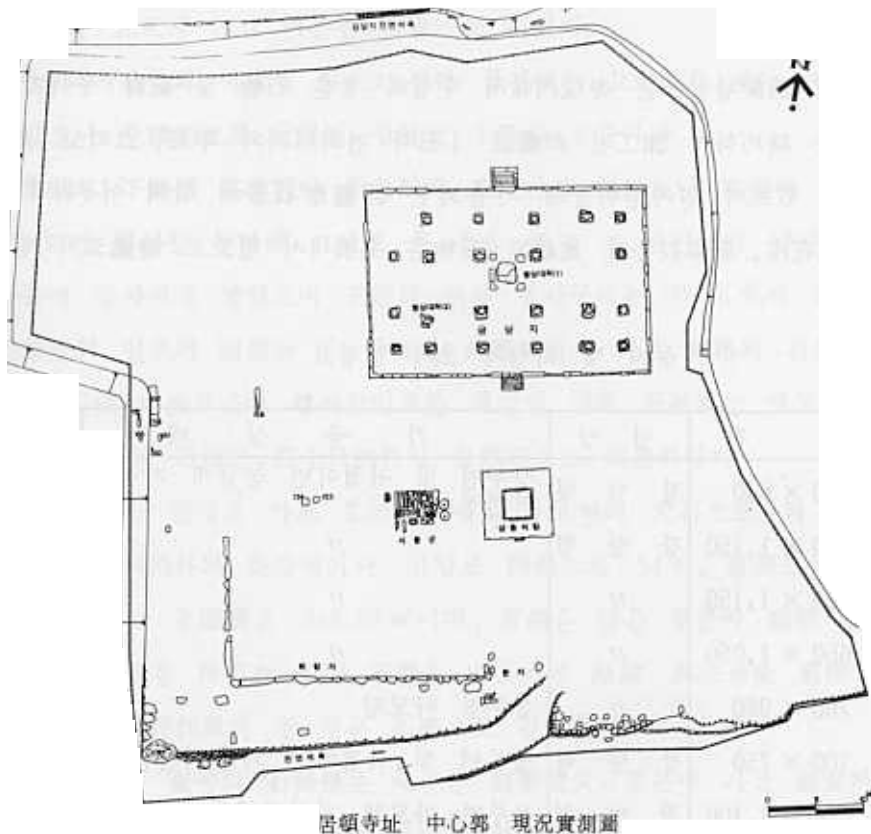
金堂과 三層石塔의 中心을 연결하는 南北縱軸線 위치의 둔덕에는 흘러내리는 土砂속에 階段石으로 사용된듯한 작은 장대석이 노출되었다. 50 cm內外 길이의 장대돌 2개가 나란히 놓여 연결되어 있고 그 上·下層段의 계단석은 모두 流失되었다. 이 계단石은 寺址 전체의 南北中心軸에 바로 接合됨으로 金堂址에서 올라가는 石階부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金堂에서 講堂으로 연결되는 通路의 遺構는 地表上에 露出됨이 없다. 지금 講堂址 前面石築은 그 上部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石築上部에는 약간의 경사를 가진 地面이 바로 연결되어 밭으로 耕作되고 있다.

金堂基壇 甲石上面과 高底差를 비교하면 約 60 cm의 相差이다.

講堂은 이 石築으로부터 뒤쪽으로 배치되어 別途의 基壇을 갖고 定礎하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石築위의 表土가 불과 40 ~ 70 cm밖에 얇고 오랫동안 耕作되고 있거나 民家가 자리잡고 있는 점으로 보아 講堂 礎石과 基壇石은 이미

파 헤쳐져 移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中心郭의 南北中心縱軸을 基準하여 左右를 比較해 보면 定形으로 對稱되지 않고 西便이 넓은대신 東便은 매우 狹窄하다.



門址礎石과 圓孔있는 臺石



門址礎石과 西쪽 廻廊址

金堂西邊基壇에서 西端경계까지는 37.5 m이고 東邊기단에서 東端까지는 불과 6.8 m이다.

'84년 金堂 및 三層石塔 基壇 정비공사時 中心寺域의 바닥을 掘土한 결과 地下에 後設된 民家 담장과 排水路등의 흔적이 있었으나 모두 매몰한후 卹土하여 잔디식재 하였다.

三層石塔의 西便광장에는 寺域內에서 수집해 놓은 石物 및 破材 무더기가 있다. 여기에는 精巧하게 加工된 拜禮臺 1石과 연화대좌와 竿石, 그리고 階段隅石 破材등이 있으며 연자방아등에 사용되는 圓盤形石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眼象과 蓮花座, 唐草紋등이 施紋된 石物은 次項에서 별도로 略述코져 한다.

문지 및 회랑지 초석 일람표

| 도번 | 규격 | 형상 | 가공상태 | 추정용도 |
|----|---------------|-------|----------------------------|-------|
| 1 | 610 × 640 | 정방형 | 상부면 및 귀접이면 둥글게 가공 거친정다듬 | 덤방주초석 |
| 2 | 750 × 1,150 | 장방형 | " | " |
| 3 | 760 × 1,150 | " | " | " |
| 4 | 650 × 1,050 | " | " | " |
| 5 | 760 × 960 | " | 상부면 마모됨 | " |
| 6 | 700 × 750 | 정방형 | 상부면 및 귀접이면 가공 거친정다듬 | " |
| 7 | 660 × 1,100 | 장방형 | 상부면 마모됨 거친정다듬 | " |
| 8 | 480 × 600 | 정방형 | 상부면마모 귀면가공 거친정다듬 | " |
| 9 | 550 × 800 | 사다리꼴형 | 상부면 및 귀접이면 가공 거친정다듬 | " |
| 10 | 1,000 × 1,600 | 마름모형 | " | " |
| 11 | 400 × 1,150 | 장방형 | " | " |
| 12 | 540 × 1,050 | " | " | " |
| 13 | 800 × 1,030 | " | 중앙원형구멍 상부면가공 거친정다듬 | 좌대석 |

寺址 前面石築壇 實測

石築이 있는 下部지형에 따라 石築높이는 달라져 높은 곳은 4~5 m까지 높게 築造되었다.

巨大한 自然石을 表面과 귀접이 등의 加工없이 생긴 形狀대로 짜 맞추어 쌓되 層列을 고르지 않고 허튼층 막쌓기로 하였다.

큰돌과 작은돌의 짜임새 및 그 사이 공간에는 고임석을 끼어 자연스럽게 築積하였으나 全體적으로 균형이 잡히고 우람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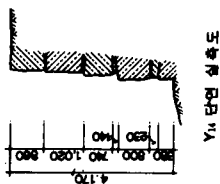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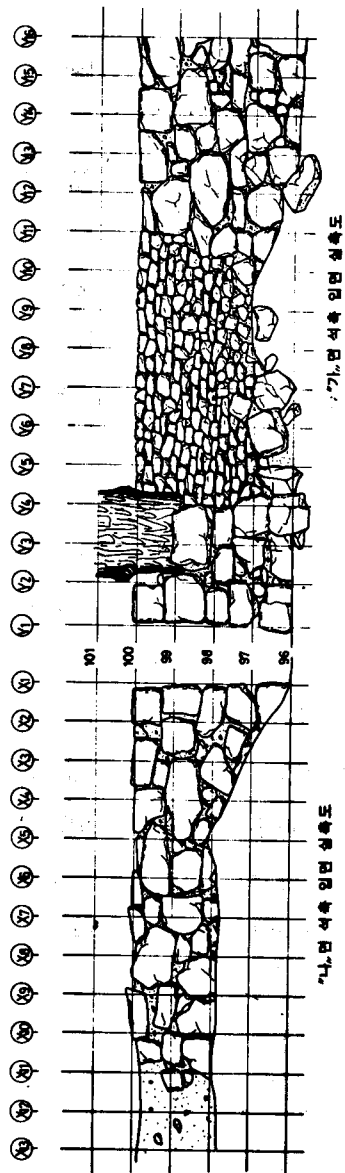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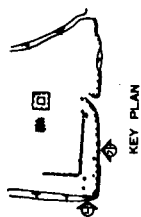
石築壁의 下端部 基址石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東側에 허물어진 부분에서 보면 경사진 둔덕에 그대로 큰 돌을 놓고 그 위단부터 약간(2~3 cm) 층단들여 경사지게 쌓았으며 石壁의 전체 경사구배는 약 6%에 해당된다.

石築壁의 일부가 崩壞된 후 근래에 再築하면서 작은 規格의 自然石으로 補築하였고 石壁 中央부근에 경사진입로를 개설한 양쪽 石壁에는 옛모습을 잃은듯 보인다. 補築된 石材는 徑1尺内外의 自然石으로 築造하였다.

石材中 가장 큰것은 가로 2.30 m 세로 1.8 m의 大石으로부터 平均하여 直徑 1~1.2 m内外의 화강석이다. 진입로 西側으로 54 m, 東側으로 29 m로 全長 83 m로 그 全面積은 246.80 m²이며, 東側은 많은 부분이 崩壞 유실되었다.

石築의 技法은 浮石寺 前面 石壁을 비롯하여 原城 興法寺址 前面 石築등과 비슷하며 高麗時代風의 잘 쌓은 石築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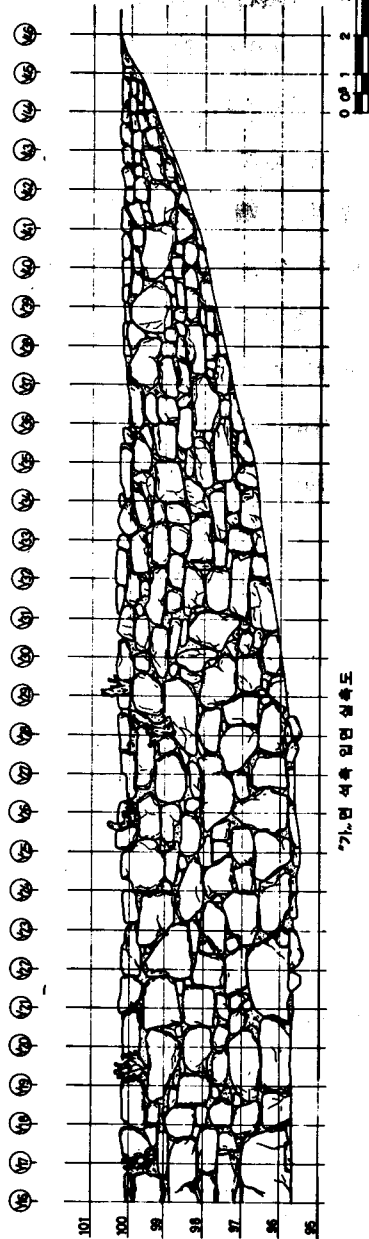
경사 進入路 東쪽의 石築壁은 대부분 崩壞遺失되었는데 가장 健實하게 남아 있는 西端 5 m까지의 區間에서 보면 돌의 規格과 材質은 西壁을 쌓은 手法과 같고 石築의 높이는 2.9 m가량된다. 29 m全長中 中間부분은 完全崩壞 탈락되었고 東端部에 既存石材에 의지하여 작은 自然石으로 後築하였으나 石築壁의 상태가 매우 粗雜하다.



前面石築壇

侧面石築壇

侧面石築壇



前面石築壇

寺址 前面石築壇 實測圖

寺址前面 石築壁
경사로는 出入路임



西端에서 北折된
石築壁



出入門 東斧石壁



講堂址 前面石築 實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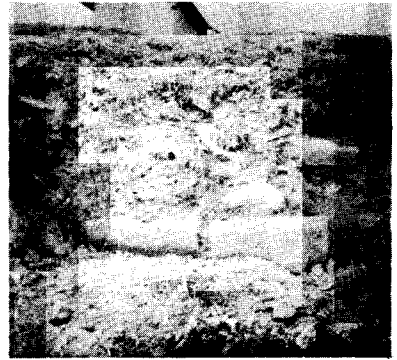
金堂址가 있는 中心寺域의 北側壁이 되며 講堂등의 後苑建物이 들어설 단지의 築壇을 造成하기 위한 石築壁이다. 이 石築의 東西間 延長길이는 約 65 m에 달하나 대부분 경사지 土砂에 埋立되거나 崩壞되었다.

형체를 잘 드러내고 있는 Y₁₀ ~ Y₁₈ 區間에서 表面을 정리하고 實測하였다. 金堂址 후면보다 約 30 cm가량 높은 地臺에 길이 1 m내외, 높이 60 ~ 80 cm의 자연석을 한단놓고 그위 제 2열은 높이는 같으나 길이가 더긴 1.5 m내외의 큰 자연석을 허튼층 쌓기로 조적하였다. 돌 자체의 면고름이나 귀점이 없이 생긴대로의 돌을 어긋맞혀 쌓고 틈사이에 작은돌로 고임한것등 手法이 前面의 大石壇과 마찬가지로이다. 제 3 단째까지의 石列이 보이며 그위에 경사진 둔덕이 30 ~ 50 cm가량되어 上端에 한단정도 더 올려져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石築의 높이는 2 m내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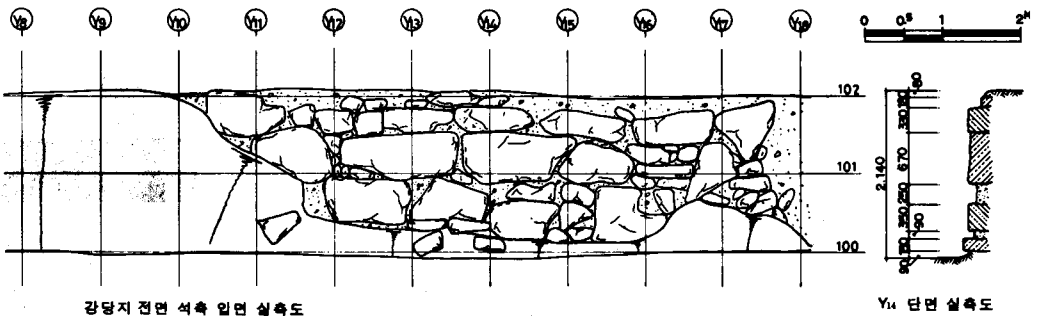
南北中心線上에 맞추어 階段石이 한단 남아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講堂址 前面石築



上壇部에 오르는 石階址



講堂址 後面 長臺石壇 實測

金堂과 三層石塔의 中心을 잇는 寺址 南北中心軸線에 直交하여 東西方向으로 길게 長臺石으로 築造되었으며 講堂址의 바로 後面에 위치한다.

현재 石壇의 西端部는 土砂에 埋立되어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으나 露出된 길이는 15 m이고 높이는 1.4 m가량 된다.

이 石壇은 長台石으로 精巧하게 加工治石되었고 下部의 3段이 같은 높이의 石材를 層바르게 쌓은후 위에는 운두가 더높은 한단의 長台石을 얹어놓았다. 組續한 手法으로 보아서는 매단마다 위로 올라가면서 前面으로 약간씩 튀어나왔으며 上部段石은 더 큰(2 cm가량)크기로 내어 쌓았고 上面을 약간 加工한듯 하여 甲石의 용도로 보인다.

위쪽의 上段이 下部보다 前傾한 것은 土壓에 의해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장대석은 길이 1 m내외, 높이 30 cm이상의 規格으로 表面과 모서리面을 다듬어 맞댄면으로 견실하게 쌓았으며 上端의 甲石은 길이 2.3 m 높이 44 cm의 긴 長台石으로 하였다.

石壇의 上단은 東端部에서 北쪽으로 꺾이어 있으므로 下部는 더 延長해 갔더라도 上部는 여기서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 이 石築線과 직선으로 延長되는 위치에는 약 3 m가량 떨어져서, 다시 自然石築을 쌓은 石壁이 民家 뒷편으로 연결되어 있다.

精巧히 治石된 長台石築인 것과, 그 東端을 마무리 하여 北折하는 長台石이 배치된 것으로 보아 建物址의 基壇임이 分명한데 지금은 그위에 民家 1棟이 별도의 막돌죽담을 쌓고 앉혀져 있다. 이 집의 기둥 밑에는 寺址에서 移設하여 놓은 加工된 柱礎石이 반혀져 있다.

基壇의 規模와 手法으로 보아 格이 높은 建物이 세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Y11 단면 실측도

2. 三層石塔

二重基壇위에 三層塔身을 세우고 정 상에 相輪部를 構成한 統一新羅時代의 典型的인 일반형 石塔이다. 그런데 다른 塔과 달리 塔底部에 長台石을 가지런히 쌓아 造成한 方壇위에 塔을 세운것이 異彩롭다.

方壇 이 方壇은 一邊의 길이 7.38 m (平均値), 높이 0.84 m로 土築을 하고 外面에 加工된 長台를 둘러쳤으며 前面(南側)에만 좁은 幅의 石階가 부설되었다. 1984 年度에 石列을 정비 再築하여 端正한 모습이다.

石壇은 三層石塔의 地臺石 外緣으로부터 2 m가량 폭을 두고 四面으로 돌려 쌓았는데 治石된 長台石을 3段으로 築積하였으되 地面에 接한 下.1, 2段보다 上段石의 운두가 倍가 넘도록 높다.

세번째段 위에 별도의 甲石이 없혀져 있었음이 前面 中央의 계단隅石 마무리로 미루어 推定할 수 있다. 지금은 3段石 상면에서 地台石에 이르는 方壇上面이 잔디로 마감되었으며 그 경사도는 대략 1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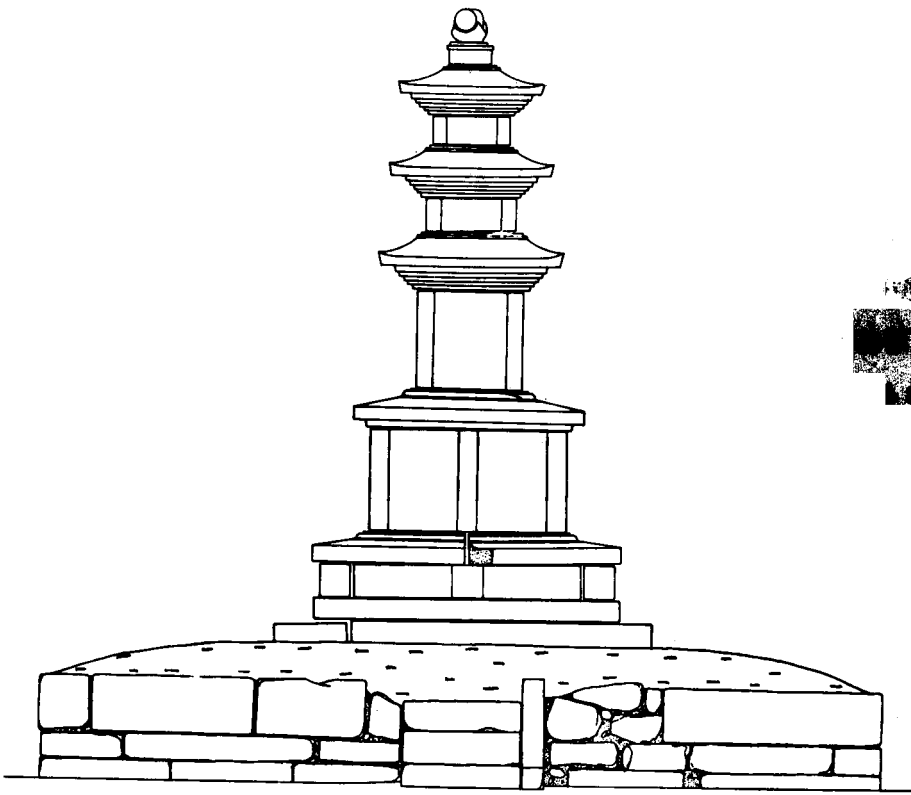
石階의 幅은 103 cm, 4段階중 마지막 段石이 없어진채 3개의 디딤돌이 남아있다. 계단隅石도 片面에만 남아있다.

隅石의 경사진 소대부분이 곧고 급한 直線이고, 外側面 볼에 三角型의 象眼이 陰刻되었다. 측면볼에 새긴 角形의 상안침단이 매우 예민하고 그 內端은 지금 基壇石에 嵌入되었고 隅石의 형태와 治石이 매우 硬直하며 短促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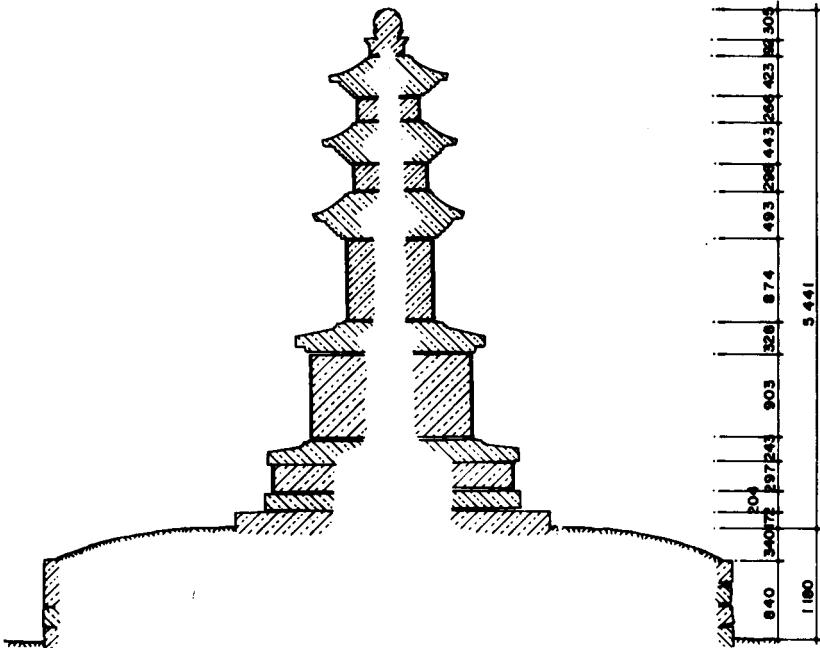
(表 1) 石塔方壇 實測值

단위 : mm

| | | 길이 (邊長) | | 높이 (地表上) | |
|---|---|---------|-------|----------|-----|
| | | 上 部 | 下 部 | 左 端 | 右 端 |
| 南 | 邊 | 7,190 | 7,220 | 900 | 830 |
| 東 | 邊 | 7,280 | 7,160 | 850 | 890 |
| 北 | 邊 | 7,180 | 7,200 | 880 | 870 |
| 西 | 邊 | 7,230 | 7,300 | 830 | 900 |



삼층석탑 남쪽 입면 실측도



동-서 단면 실측도

地臺石 은 4枚의 長方形 板石을 엇물리기式으로 조합하여진 위에 下層基壇 下臺石을 올렸다. 이 下台底石도 四枚石을 서로 엇물려 놓았으며 地臺石과는 방향을 바꾸어 上·下가 막힘줄눈을 보이게 한다.

下層基壇 부터 신라의 通式인 隅柱와 撐柱를 표현하였다. 29 cm의 낮은 中台面石도 4枚石으로 구성되어 서로 엇물려 짚지 아니하고 二枚 사아에 나머지 二邊石을 끼우는 방법으로 구성되었다. 즉 隅柱를 양쪽에 새긴 面石을 東·西 양변에 세우고 그 사이에 撐柱만을 새긴 작은 면석을 끼워서 세운 방법이다. 面石에 突帶처럼 새긴 隅柱와 撐柱의 幅은 265 mm 内外이다.

甲石은 4枚石으로 이루어 각면의 중앙부에서 접합하였다. 현재 접합된 상태가 일그러져 西쪽에선 5 cm 가량의 틈이 벌려 보이고 있다. 副椽없이 垂直된 단면의 넓을 띠로 甲石椽을 두르고 약한 경사의 落水面을 이루었다.

落水面의 상부에 쇠시리가 있고 그 위에 塔身받침 1級이 彫出되어 있다. 落水面은 上下基壇 甲石이 모두 內曲이 없는 直線으로 흘러 귀부분 隅棟의 線이 경직함을 보이고 2段級の 弧와 角形 塔身 괴임 手法에서 이 시대 基壇樣式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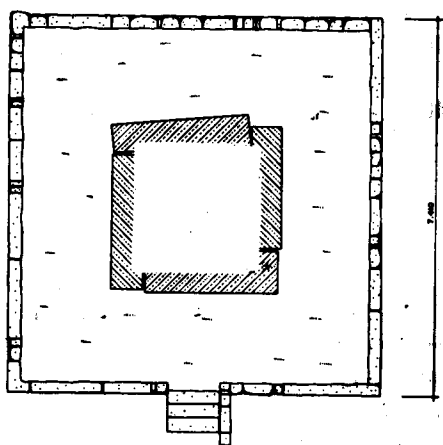


上層基壇 四枚로 구성된 中台面石을 南北쪽에 兩隅柱가 포함된 長面을 대고 東西의 面에 撐柱만 새긴 面石을 끼워 맞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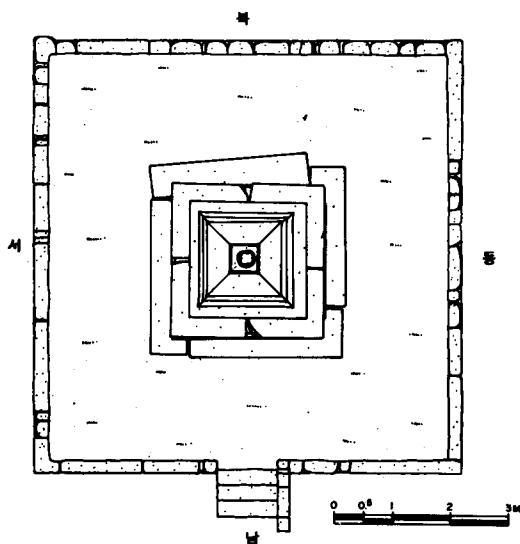
下台中石보다는 훨씬 높아진 반면 壁面의 幅은 현격하게 좁아져 上, 下基壇의 현저한 체감을 보인다. 壁面의 四面을 實測한 數値에 의하면 四面의 幅은 아랫쪽이 넓고 윗쪽이 약간 좁아 옥음법(안솔림)을 사용한 의도를 알 수 있다.

甲石은 1枚石으로 副椽을 갖춘 平薄한 甲石緣에 直線의인 落水面을 두고 각 1級의 弧형 쇄시리와 角形 塔身 괴임을 갖추었다.

上下基壇 각면에 撐柱 1個 模刻하여 二區로 나누어 있을 뿐 별다른 彫飾이 없다. 基壇部의 實測細部는 (表1~6)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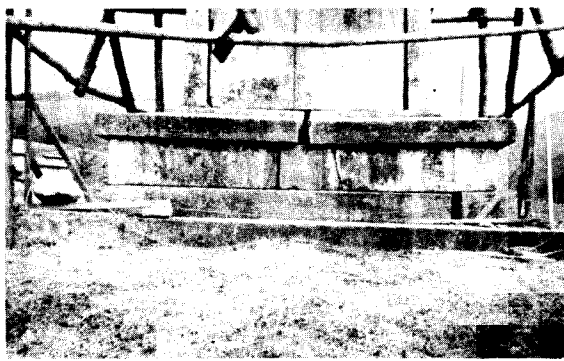
기단 평면도



평면 실측도



下臺甲石上部 쇄시리부분



西側基壇部 현황

(表 2) 下臺甲石(下層基壇
甲 石)實測值

단위 : mm

| 名 稱 | 區 分 | | 東 面 | 南 面 | 西 面 | 北 面 | 平 均 值 |
|-------------|-----|---|---------|-------|-------|-------|----------|
| 上臺中石 받 침 | 上 段 | 高 | 15 | 20 | 18 | 15 | |
| | | 幅 | ⑤ 1,758 | 1,754 | 1,779 | 1,733 | 1,756 |
| | 下 段 | 高 | 35 | 55 | 40 | 40 | |
| | | 幅 | ④ 1,894 | 1,894 | 1,912 | 1,868 | 1,892 |
| 落 水 面 | 上 端 | 幅 | ③ 1,927 | 1,936 | 1,953 | 1,910 | 1,931 |
| | 落水面 | 高 | | 31 | | | |
| 甲 石 緣 | | 高 | 140 | 140 | 143 | 140 | |
| | 上 部 | 幅 | ② 2,628 | 2,640 | 2,657 | 2,615 | 2,635 |
| | 下 部 | 幅 | ① 2,637 | 2,642 | 2,662 | 2,632 | 2,643.25 |

4 枚石으로 구성. 사면중심에서 점합. 下台甲石 全高(南面) 246 mm

(表 3) 下臺中石(下層基壇
面 石)實測值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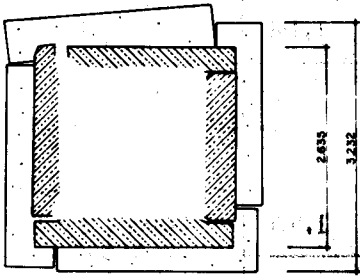
| | 全高 | 全 幅 | | 隅 柱 幅 | | | | 柱 幅 | | 備 考 |
|-----|-----|----------|----------|-------|-----|--------|-----|--------|--------|----------|
| | | 上 | 下 | 左上 | 左下 | 右上 | 右下 | 上 | 下 | |
| 東 面 | 294 | 2,483 | 2,480 | 270 | 266 | 273 | 271 | 265 | 270 | 面石 끼움 |
| 南 面 | 290 | 2,521 | 2,523 | 266 | 263 | 257 | 262 | 266 | 271 | |
| 西 面 | 290 | 2,480 | 2,490 | 265 | 264 | 267 | 267 | 262 | 263 | |
| 北 面 | 288 | 2,539 | 2,528 | 279 | 263 | 241 | 260 | 269 | 270 | 面石 끼움 |
| 平均值 | | 2,505.75 | 2,505.25 | 270 | 264 | 259.50 | 265 | 265.50 | 268.50 | |

• 四枚石 구성은 東西面に 隅柱 포함한 長面을 대고 南北面에서 面石을 끼움. 면석 끼우는 곳의 틈은 17 mm ~ 27 mm 까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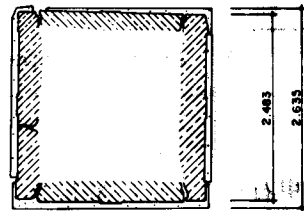
(表 4) 地臺石 및 下台底石(下層基壇 下台石)實測值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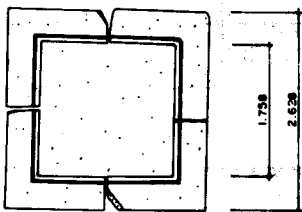
| | | 東 面 | 南 面 | 西 面 | 北 面 | 平均値 | 備 考 |
|-----------------------|------------------|----------------|----------------|----------------|----------------|----------------------|-----|
| 地 臺 石 | 全 高 | 208 | 155 | 230 | 190 | | |
| | 全 幅 上下 | 3,232 3,228 | 3,248 3,308 | 3,176 3,216 | 3,275 3,315 | 3,232.75 3,266.75 | |
| | 板 石 크기 (上長・中) | 2,371 × 573 | 2,582 × 819 | 2,617 × 623 | 2,635 × 546 | | |
| 下臺底石 (하층기단 下台石) | 全 高 | 178 | 176 | 184 | 178 | | |
| | 全 幅 上下 | 2,635 2,632 | 2,613 2,614 | 2,678 2,685 | 2,658 2,650 | 2,646 2,645.25 | |
| | 板 石 크기 | 1,947 × ? | 2,613 × 345 | 2,263 × 348 | 2,201 × 344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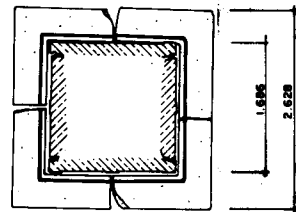
지대석 평면 및 하대저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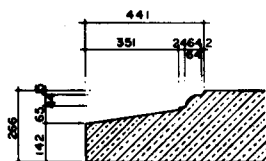
하대저석 평면 및 하대중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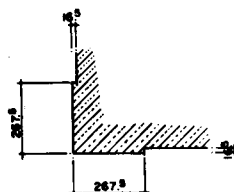
하대 갑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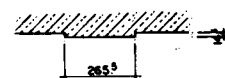
하대갑석 평면 및 상대중석 단면도



하대 갑석 단면도



하대 중석 우주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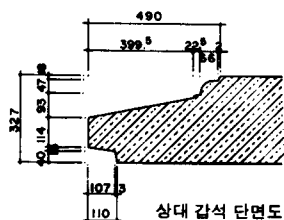


하대 중석 탕주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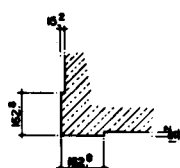
(表 5) 上臺甲石(上層基壇石)實測值

단위 : mm

| 名 稱 | 區 分 | | 東 面 | 南 面 | 西 面 | 北 面 | 平 均 值 |
|------|-----|----|---------|-------|-------|-------|----------|
| 塔身받침 | 上 段 | 高 | 20 | 20 | 20 | 25 | |
| | | 幅 | ⑥ 1,007 | 1,002 | 1,001 | 1,005 | 1,003.75 |
| | 下 段 | 高 | 35 | 55 | 50 | 45 | |
| | | 幅 | ⑤ 1,135 | 1,134 | 1,140 | 1,148 | 1,139.25 |
| 落水面 | 上 端 | 幅 | ④ 1,176 | 1,179 | 1,169 | 1,192 | 1,179 |
| | 낙수면 | 高 | | 95 | | | |
| 甲石緣 | 甲石緣 | 上幅 | ③ 1,975 | 1,978 | 1,976 | 1,985 | 1,978.50 |
| | | 下幅 | ② 1,974 | 1,979 | 1,479 | 1,979 | 1,977.75 |
| | | 高 | 116 | 120 | 110 | 110 | |
| | 차마길 | | | | | | |
| 甲石副緣 | 下 端 | 高 | 45 | 48 | 47 | 50 | |
| | | 幅 | ① 1,758 | 1,759 | 1,773 | 1,758 | 1,762 |



상대 갑석 단면도



상대 중석 우주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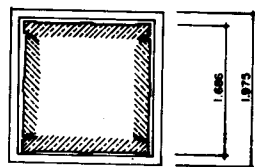
상대 중석 탕주 단면도

(表 6) 上臺中石(上層基壇面石)實測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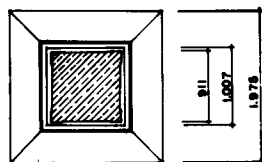
단위 : mm

| | 全 高 | 全 幅 | | 隅 柱 幅 | | | | 柱 幅 | | 備考 |
|-----|--------|---------|---------|--------|--------|-------|--------|-------|--------|------|
| | | 上 | 下 | 左上 | 左下 | 右上 | 右下 | 上 | 下 | |
| 東 面 | 874 | 1,686 | 1,719 | 166 | 164 | 163 | 157 | 164 | 165 | 面石끼움 |
| 南 面 | 880 | 1,688 | 1,685 | 164 | 163 | 163 | 165 | 166 | 165 | |
| 西 面 | 873 | 1,701 | 1,733 | 157 | 160 | 166 | 162 | 163 | 165 | |
| 北 面 | 880 | 1,683 | 1,673 | 162 | 148 | 162 | 161 | 164 | 162 | |
| 平均值 | 876.75 | 1,689.5 | 1,702.5 | 162.25 | 158.75 | 163.5 | 161.25 | 163.5 | 164.25 | |

· 四枚로 구성된 中石을 南·北쪽에 隅柱가 포함된 長面을 대고 東西方向에 面石을 加工하여 삽입함. 南方 接合부의 틈은 8 mm ~ 45 mm 까지임.



상대 갑석 양시도



상대 갑석 평면도

塔身部 는 각층의 屋身과 屋蓋石이 한 돌로 되었고 每層의 屋身마다 兩隅柱가 정연하다.

옥개받침은 각 5단씩이며 처마 하면에는 낙수홈이 넓직하다. 처마端은 直線으로 뻗어있고 네모서리 轉角部の 反轉이 경쾌하게 솟아올랐다. 약한 안옥음으로 內曲을 이룬 낙수면 上端엔 角形 2段괴임으로 윗층 屋身石을 받치고 있다.

각 옥개석 전각부에는 風鐸을 달았던 작은 구멍이 모서리각과 양볼에 1개씩 3개가 뚫려져 있다.

實測值(表 7~14)를 分析하여 보면 각층 屋身幅의 上下는 근소한 差異이나 上部幅이 下部幅보다 3~4mm가량 넓으며 이는 隅柱의 上·下幅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대개의 경우 옥음수법을 활용하여 上促下寬해지는 것이 常例임을 볼 때 다소 의외라 할 수 있으나 그 相差가 경미함으로 꼭 의도적인 것으로 볼수만은 없을 듯 하다. 각층의 隅柱幅을 보면 左幅이 右幅보다 3~4mm 넓게되어 있음도 발견된다.

隅柱를 突帶로 만든 刻厚는 약 10mm內外로 測定된다.

初層屋身の 幅은 910mm(평균치)로 上臺中石(1702mm)에 比하여 현저하게 체감되어 切半을 약간 上廻하는 值數로 넓은 기단甲石과 比較하여 왜소한 감을 준다. 二層과 三層의 屋身은 幅에 있어서는 완만한 체감으로 되었으나(각 778, 657) 높이는 갑작스럽게 체감되어 初層屋身이 855mm인 것에 比해 2層이 288, 3層이 256.50mm(南측)로 2層에서 약 1/3 규모로 작아졌다.(第2, 3層屋身の 隅柱幅도 漸增的으로 縮小되었으며 각층 屋身全幅이 隅柱幅 크기만큼 축소된 듯 조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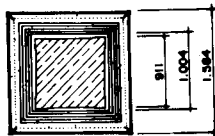
2層塔身高가 현격하게 축소된데 비해 屋蓋石의 높이는 완만한 감소율을 보여 屋身높이보다 높아졌으며 3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屋蓋部の 체감은 거의 일정한 비율로 축소된 것이다.

각층 5층급을 이룬 옥개받침도 그 높이와 폭에 있어서 적절한 층급을 이루며 넓혀갔고 各級의 끝이 上級으로 이어지는 部分의 絶斷은 수직이 아닌 前傾하는 樣式을 따르고 있어 9세기 이후의 石塔技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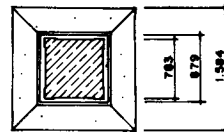
(表 7) 塔의 立面比例 (實測值 정리)

단위 : mm

| | | | 넓이 (平均值) | 높이 (南面) | 備 考 |
|-----|------|-----|---------------|---------|--------------------|
| 相輪部 | | 覆鉢 | 300 | 305 | 相輪部 높이 計 493 mm |
| | | 露盤 | 390 | 188 | |
| 塔身部 | 三層塔身 | 屋蓋石 | 처마端下 1,214.50 | 284.50 | 塔身部 높이 計 2,604 |
| | | 屋身 | 下面 657 | 256.50 | |
| | 二層塔身 | 屋蓋石 | 1,367.50 | 439 | |
| | | 屋身 | 778.50 | 288 | |
| | 一層塔身 | 屋蓋石 | 1,536 | 481 | |
| | | 屋身 | 910 | 855 | |
| 基壇部 | 上層基壇 | 甲石 | 1,977 | 338 | 基壇部 높이 計 1,930 |
| | | 面石 | 下部 1,702 | 880 | |
| | 下層基壇 | 甲石 | 2,632 | 246 | |
| | | 面石 | 21505 | 290 | |
| | | 底石 | 2,645 | 176 | |
| | 地台石 | | 3,266 | 155 | |
| | | | | | 塔全體高 5,182 |



초층 옥개석 양시도



초층 옥개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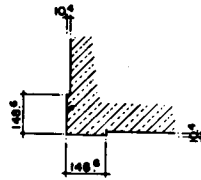
(表 9) 初層塔身 實測値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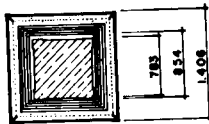
| 區分 \ 名稱 | 高 | 全 幅 | | 隅 柱 | | | | 備 考 |
|---------|-----|--------|--------|--------|--------|-----|--------|-----|
| | | 上 | 下 | 左 側 | | 右 側 | | |
| | | | | 上 | 下 | 上 | 下 | |
| 東 面 | 855 | 911 | 911 | 150 | 147 | 143 | 142 | |
| 南 面 | 854 | 908 | 906 | 153 | 146 | 145 | 144 | |
| 西 面 | 855 | 919 | 914 | 150 | 148 | 149 | 144 | |
| 北 面 | 850 | 917 | 912 | 148 | 144 | 151 | 147 | |
| 平 均 值 | | 913.75 | 910.75 | 150.25 | 146.25 | 147 | 144.25 | |

第1塔身 全幅에 있어서나 隅柱幅(左・右同)에서도 上部幅이 下部보다 3mm 가량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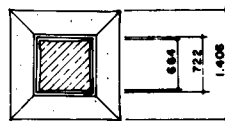
각면의 隅柱幅에 있어서는 左側이 右側보다 넓다.



초층 탑신 단면도



2층 목개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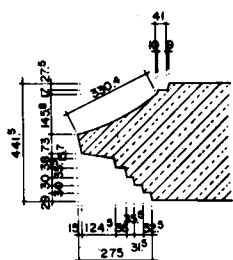


2층 목개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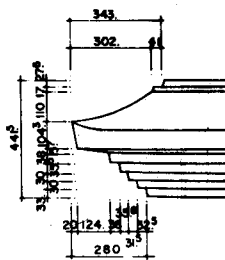
(表 10) 第2層 屋蓋石 實測值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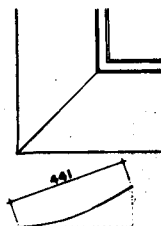
| 名稱 | 區 分 | | 東 面 | 南 面 | 西 面 | 北 面 | 平均値 | 備 考 |
|------------------|-------|--------------------|----------------|----------------|----------------|----------------------|-----|--|
| 塔 身 받 침 | 上 段 | 高 幅 | 25 ⑨ 722 | 25 723 | 15 720 | 15 718 | | |
| | 下 段 | 高 幅 | 20 ⑧ 797 | 20 805 | 20 796 | 20 806 | | |
| 落 水 面 | 落水面 高 | | 150 | | | | | |
| | 軒 端 高 | ⑥ 70 | 80 | 70 | 75 | | | 전각부의 前傾 $1,406.75 - 1,367.50 \times 1/2$ $= 19.62$ |
| | 軒 長 | ⑦ 1,406 ⑧ 1,361 | 1,410 1,370 | 1,409 1,374 | 1,402 1,361 | 1,406.75 1,367.50 | | |
| 層 級 받 침 | 처마 깊이 | | | 124.5 | | | | |
| | 第五段 | 高 幅 | 35 ⑤ 1,123 | 37 1,121 | 40 1,122 | 40 1,117 | | |
| | 第四段 | 高 幅 | 35 ④ 1,048 | 37 1,049 | 35 1,053 | 35 1,049 | | |
| | 第三段 | 高 幅 | 30 ③ 983 | 30 978 | 30 984 | 30 973 | | |
| | 第二段 | 高 幅 | 30 ② 918 | 30 915 | 30 918 | 30 904 | | |
| | 第一段 | 高 幅 | 28 ① 854 | 30 850 | 30 850 | 28 843 | | 옥개석 전고(南) 4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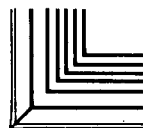
2층 옥개석 단면도



2층 옥개석 입면도



2층 옥개석 부감도



2층 옥개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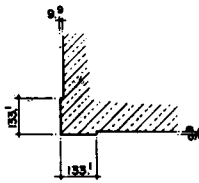
(表 12) 第2層 塔身 實測值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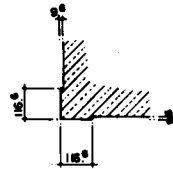
| 名稱 區分 | 高 | 全 幅 | | 隅 柱 | | | | 備考 |
|----------|-----|-----|--------|--------|--------|--------|-----|----|
| | | 上 | 下 | 左 側 | | 右 側 | | |
| | | | | 上 | 下 | 上 | 下 | |
| 東 面 | 283 | 783 | 779 | 133 | 132 | 130 | 129 | |
| 南 面 | 290 | 780 | 776 | 135 | 133 | 128 | 128 | |
| 西 面 | 289 | 785 | 779 | 134 | 126 | 132 | 126 | |
| 北 面 | 288 | 784 | 780 | 137 | 130 | 136 | 129 | |
| 平 均 值 | | 783 | 778.50 | 134.75 | 130.25 | 131.50 | 128 | |

第2塔身の 上・下幅은(全體와 隅柱同) 上部幅이 下部幅보다 4mm가량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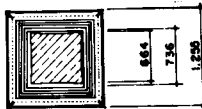
각면의 左隅柱幅이 右隅柱幅보다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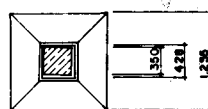
2층 탑신 단면도



3층 탑신 단면도



3층 옥개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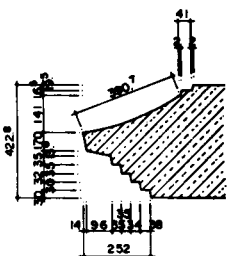


3층 옥개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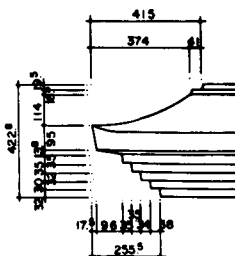
(表 13) 第3層 屋蓋石 實測值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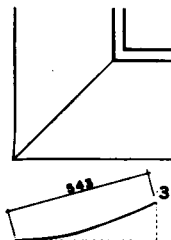
| 名稱 | 區 分 | 東 面 | 南 面 | 西 面 | 北 面 | 平均値 | 備 考 |
|------------------|-------------------------|----------------------------------|----------------------|----------------------|----------------------|----------------------|--|
| 塔身 받침 | 上 段 | 高 15 幅 ⑨ 428 | 15 419 | 20 423 | 15 427 | | |
| | 下 段 | 高 20 幅 ⑧ 504 | 20 501 | 20 495 | 20 502 | | |
| 落水 水面 | 落水 軒端 高 軒 長 | 14.5 70 ⑦ 1,255 ⑥ 1,210 | 70 1,249 1,214 | 65 1,254 1,218 | 65 1,260 1,216 | 1,254.50 1,214.50 | 전 각부의 前傾 $1,254.50 - 1,214.50 \times 1/2$ $= 20$ |
| 層 級 받 침 | 치 마 깊 이 | | 96 | | | | |
| | 第五段 | 高 35 幅 ⑤ 1,022 | 35 1,022 | 35 1,019 | 35 1,023 | | |
| | 第四段 | 高 35 幅 ④ 952 | 35 952 | 40 955 | 35 946 | | |
| | 第三段 | 高 29 幅 ③ 886 | 35 882 | 30 886 | 35 877 | | |
| | 第二段 | 高 29 幅 ② 816 | 30 814 | 30 813 | 30 802 | | |
| | 第一段 | 高 29 幅 ① 736 | 30 738 | 30 740 | 30 727 | Date | 옥개석 총고 (南面) 284.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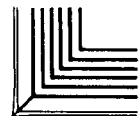
3층 옥개석 단면도



3층 옥개석 입면도



3층 옥개석 부감도



3층 옥개석 양시도

(表 14) 第三層 塔身 實測值

단위 : mm

| 區分 \ 名稱 | 高 | 全 幅 | | 隅 柱 | | | | 備 考 |
|---------|-------|--------|-----|-----|-----|--------|--------|-----|
| | | 上 | 下 | 左 側 | | 右 側 | | |
| | | | | 上 | 下 | 上 | 下 | |
| 東 面 | 256 | 664 | 656 | 118 | 115 | 119 | 115 | |
| 南 面 | 256 | 659 | 661 | 119 | 117 | 112 | 116 | |
| 西 面 | 258 | 657 | 656 | 116 | 116 | 121 | 117 | |
| 北 面 | 256 | 649 | 655 | 111 | 116 | 117 | 111 | |
| 平 均 值 | 256.5 | 657.25 | 657 | 116 | 116 | 117.25 | 114.75 | |

처마端의 下部周緣線은 거의 水平으로 이어지다가 斜面길이의 $1/3$ 가량인 모서리 근처에서부터 가볍게 휘어올라 그 오름높이는 대략 24%가량이다.

上部 落水面 下端緣線의 휘어오름(앙곡)은 이보다 훨씬 안쪽에서 시작되어 전각부의 最大높임치(앙곡치)는 初層에서 54 mm, 2層에서 42 mm, 3層에서 35 mm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각부의 前傾은 각층이 모두 20 mm 内外이다.

屋蓋轉角의 귀가 들리면서 俯瞰할 때 보이는 처마한허리도 매우 경미하여 각층이 10 mm내외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相輪部는 현재 露盤위에 覆鉢만이 얹혀져 있다.

三층屋蓋頂上部에 마련된 괴임대에 꼭 차는 넓이로 露盤底面을 잡았고 노반全高는 190 mm, 上端部에 角形 2段突帶를 彫出하였다.

노반上面은 410 mm方形이 되고 平坦하게 治石되어 있다. 보통의 石塔에서는 노반中心에 擦柱孔을 뚫어 屋蓋石까지 긴 鐵製擦柱를 固定시키고 여기에 覆鉢, 仰花, 寶輪, 寶蓋, 水烟, 龍車, 寶珠등을 차례로 올려 相輪部를 構成하는 것이나 지금 노반위에 寶珠형 石物 1點만이 바로 얹혀져 있어 擦柱孔의 형상을 확인할 수 없다.

塔의 保存상태는 地臺石과 下層基壇 底石일부가 일그러지고 주저앉아 塔이 전

체적으로 北東方向으로 약간 기울었으나 비교적 健實한 편이며 相輪部와 方壇部材의 일부 缺失을 제하고는 良好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이 탑은 작은規模의 三層石塔이나 신라통일기의 전형적인 建塔手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小規模인 까닭에 上・下基壇面의 撐柱는 1개로 2區를 이루었으며 基壇幅에 비해 급격하게 倭少해진 塔身과 短促해진 屋蓋石이 新羅下代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基壇과 塔身に 별다른 治裝을 加하지 않았고 各層의 屋蓋받침을 5段으로 한것, 또 屋蓋처마 曲線이 아직 古風을 그대로 보이는 점 등에서 통일신라 下代末期에 현격하게 纖弱하고 華麗해진 石塔보다는 多少 前時代의인 作風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表 15) 相輪部(露盤・覆鉢) 實測值

단위 : mm

| 名 稱 | 區 分 | 東 面 | 南 面 | 西 面 | 北 面 | 平均值 | 備 考 |
|-----|---------------|-------|-----|-----|-----|--------|-----|
| 露 盤 | 露 盤 全 高 | 190 | 188 | 186 | 188 | | |
| | 露 盤 上 端 받 침 高 | 30 | 28 | 30 | 35 | | |
| | 露 盤 上 端 받 침 幅 | ④ 422 | 316 | 411 | 412 | 390.25 | |
| | 露 盤 下 端 받 침 高 | 30 | 30 | 28 | 28 | | |
| | 露 盤 下 端 받 침 幅 | ③ 395 | 389 | 394 | 392 | 392.50 | |
| | 몸 체 부 分 高 | 130 | 130 | 128 | 125 | | |
| | 몸 체 上 部 幅 | ② 362 | 364 | 363 | 356 | 361.25 | |
| | 몸 체 下 部 幅 | ① 350 | 347 | 342 | 342 | 345.25 | |
| 覆 鉢 | 現 存 高 | 305 | 305 | 305 | 305 | 305 | |
| | 복 받 치 대 幅 | 238 | 220 | 236 | 225 | 229.75 | |
| | 복 받 저 변 幅 | 307 | 287 | 306 | 300 | 3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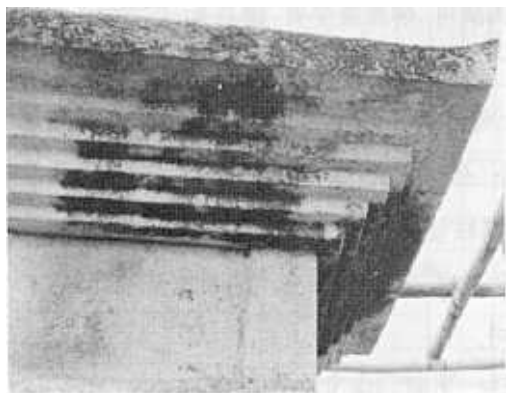
그래서 이 탑보다 큰 塔婆이면서도 옥개받침이 4段인 實相寺三層石塔(828)이나 옥개받침이 四段이면서 別石으로 된 塔身받침이 끼여있는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864) 및 聖住寺址 東西三層石塔(9세기 후반 추정)보다는 앞서서 9世紀 前半의 石塔으로 推定된다.

또한 이塔 下部에 方壇을 造成하고 塔을 세운點은 매우 特異한 것으로 그 正確한 意圖를 헤아리기 어렵다.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도 土壇위에 建塔하였다. 이 경우는 塔座주위로 약3M 가량의 넓은 臺地가 있고 그 언저리를 작은 自然石으로 2段積하여 높이 30 ~ 40 cm정도로 築壇한 것으로 보아 築壇의 目的이 法堂앞 마당지세를 자연스럽게 이용 塔區를 조성하기 위한 고려인 것으로 보인다. 또 塔坪里七層石塔(中原郡 可金面, 國寶6號)은 당초부터 높은 土臺위에 塔을 세웠거나 혹은 建塔後 주위의 地平을 깎아내려 寺域을 造成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 곳의 方壇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金堂의 規模가 莊重하고 基壇手法이 古高한 점에서 작은 庭中塔을 돋보이려 한 後補의 施設物이 아닐런지, 또는 統一新羅 後半의 時期로서는 드물게 보이는 單塔伽藍인 점에서 塔區를 장엄하기 위한 配慮에서일지 혹은 이 塔보다는 다소 後期的이라 보이는 현재의 金堂을 重創하면서 中心郭의 地表를 切土하면서 補築한 것인지 그 의도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三層屋蓋石下部



相輪部

3. 金 堂 址

平面形態 前面列에 6 個의 礎石과 側面으로 4 個의 礎石列이 보임으로서 道里間(正面) 5 間, 樑間(側面) 3 間으로 구성된 全 15 間の 平面形을 보인다. 즉 보칸의 가운데(측면 중앙칸)를 內陣으로 하여 前後退를 둔 平面形이라 할 수 있다.

礎石이 配置된 상태를 보면 正面御間이 가장 넓고 東西의 兩夾間은 側面中央間과 같으며 東西兩端의 退間은 前後退間과 거의 같은 柱間으로 排列되었다.

礎石은 대체로 제위치를 지키고 있으며 바닥은 현재 잔디로 덮혀져있다. 西北隅柱와 內陣高柱위치의 2 개를 합하여 3 개의 礎石이 流失되어 있으며 礎石間的 壁을 받치는 고맥이 地臺石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內陣御間 후면벽에 의지하여 佛像을 安置했던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臺座 構成의 積心石이 놓여있고 이 臺座積心石을 둘러싼 주위四面에 治石된 長臺가 方區를 이루고 놓여있어 臺座部の 地臺石으로 파악된다.

또한 內陣高柱列인($X_2 Y_2$) 礎石位置에도 초석대신 커다란 하나의 塊石이 地中에 반쯤 꽃혀있다. 이 石塊의 上平한 中央部에 角形孔이 패어져 있어 이 또한 佛像 臺座石인 듯이 보인다.

礎石과 佛像臺座와 方區를 이룬 臺座地臺石 이외에 별다른 遺構는 없다.

外陣礎石들은 平柱에선 양면에 고맥이 副座를 두었고 귀부분에는 直角으로 고맥이 座를 同造한 礎石이 배열되고 內陣御間の 佛臺座주위 礎石은 三方向으로 副座가 붙어있는 형식이다.

建物の 内部에 直角方向 또는 三方向 고맥이 座가 同造된 礎石으로 되어 있음은 매우 흥미롭고 내부공간의 어떤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듯 하다.

礎頭の LEVEL은 內·外陣 또는 平·隅柱할것 없이 모두가 거의 水平을 이루고, 內外列의 礎石이 모두 礎盤까지 精巧하게 加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마루 등의 별도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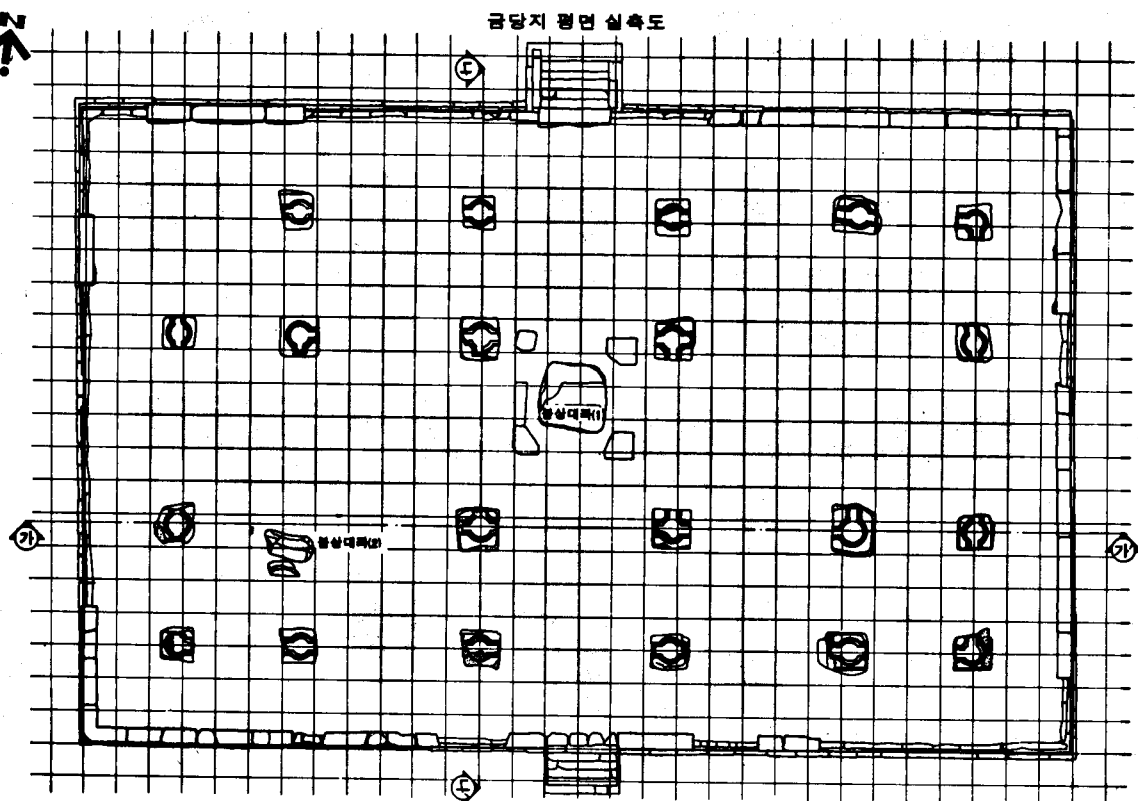
佛像座臺 주위의 方形地臺石도 細工되었고 上面 LEVEL이 礎石보다 10~12 cm 가량 높게되어 별도의 佛壇施設없이 바닥에 露出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렇게 볼때 內陣高柱礎에 同造된 直角 또는 三方向 副座는 부축기둥(柱植 등의)을 위한 것인지, 柱間에 枋材와 壁을 설치하여 바닥을 區劃한 것인지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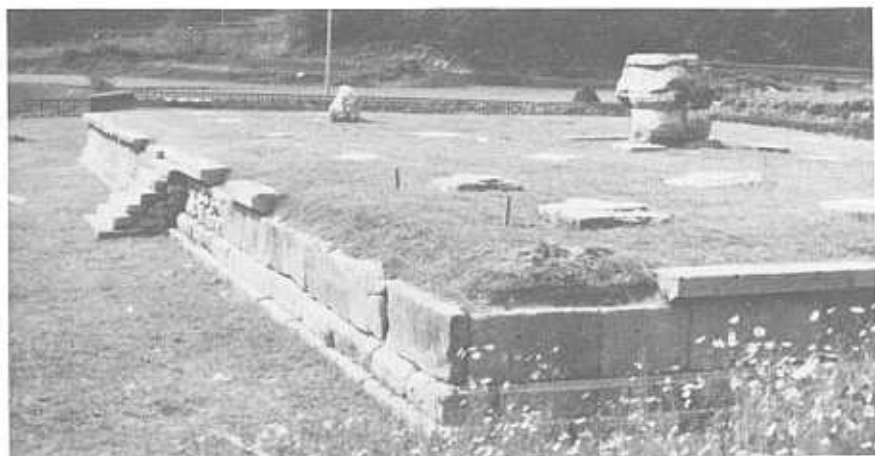
內陣柱間的 넓은 SPAN(19 尺, 5.7 m 가량)에서 空間을 보강하기 爲해 內陣柱에 角柱를 붙여대어 따로 끼워댄 擊樑(계량)을 支持하기 위한 불힘 기둥의 柱座를 礎石에 同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內陣柱에 불힘 기둥을 붙여댄 例는 宮闕의 큰 正殿이나 古代寺院(中國 善化寺 大雄寶殿 등)에서 볼 수 있다.

또한 御間을 비롯한 內陣三間에 佛像을 奉安하고 禮佛을 경건하게 드리기 爲하여 三間の 內部空間을 區劃하여 神聖空間으로 하기 위한 意圖일지도 모르겠다.

이와 類似한 例들이 中國上代の 廣濟寺 三大士殿(11세기初 創建)이나 隆興寺 摩尼殿(1052 宋代)에서 볼 수 있다.⁽³⁾



註(3) 金東賢: 中國의 古建築 建築文化 '83.9月~'8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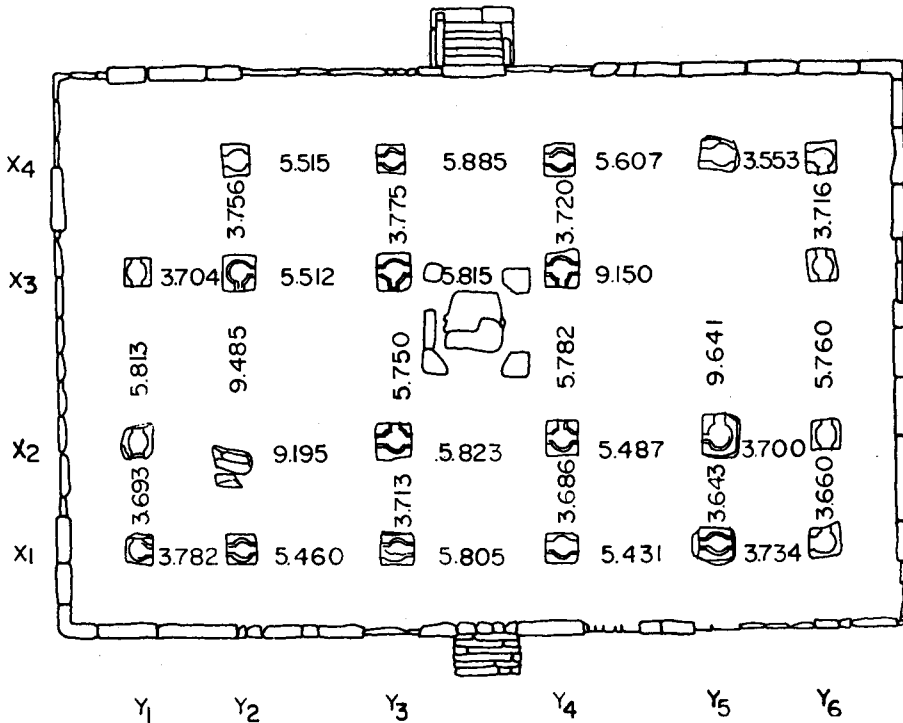


柱間測定과 使用尺度

지금 礎石排列이 대체로 정돈되어져 있으나 원래의 제위치를 정확하게 固守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礎頭面에 경사가 있어 부분적으로 침하되고 경미한 移動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84년도 기단보수당시 기단상면의 金堂바닥을 平土하고 잔디식재를 하였으므로 현재의 礎石을 중심으로 하여 柱間實測을 進行하였다.

柱座의 형상을 참작 쇠시리와 고매이 받침이 접합되는 코너점을 대각선으로서 연결하여 만나는 點을 초석의 中心으로 삼는다. 流失된 礎石을 제외한 現存 礎石 전체의 礎心을 推出해 낸후 이 礎心間의 거리를 Steel tape (鐵製卷尺) 로 당겨서 3회씩 測定하고 그 平均値를 柱間値數로 記錄하였다.

그 實測値는(圖)와 같다.



實測値에서 보면 道里間 御間の 實測値는 x_1 5,805 x_2 5,823 x_3 5,815 x_4 5,885 로서 그 平均値는 5,832 mm이다. 또한 正面御間과 비슷한 柱間을 갖은 櫺間の 中央間(內

陣柱間)은 Y_1 Y_2 Y_3 Y_4 으로 그 平均值는 5,776.25 mm이다. 이를 曲尺으로 환산하면 19.24 尺과 19.06 尺에 해당된다.

약 55.75 mm의 相差를 보이는 이 실측치수로서 御間과 內陣柱間을 같은 柱間으로 잡았다고 斷定할 수는 없지만 대략 같은 크기로 設定했음을 알 수 있다.

東西 兩夾間은 御間左右에 거의 같은 幅으로 대칭되어 있는데 實測이 가능한 柱間에서의 실측평균치는 5,502 mm이며 이는 曲尺으로 18.15 尺이다.

또 道里間の 양 끝칸인 東西兩退와 樑間の 前後退間도 거의 비슷한 實測値를 보여 東西退間 평균치 3,694.60 mm (12.19 曲尺), 前後退間 평균치 3,706.8 mm (12.23 曲尺)로 전체 退間平均은 3,700.7 mm (12.21 曲尺)이다.

그래서 道里間 전체 길이는

X_1 全長 24,212 mm (79.90 曲尺)

X_2 全長 24,205 mm (79.88 曲尺)

X_3 全長 24,181 mm (79.80 曲尺)

로 平均值는 24,199 mm (79,865 曲尺)이고, 樑間の 전체 길이는

Y_2 全長 13,241 mm (43.69 曲尺)

Y_3 全長 13,238 mm (43.68 曲尺)

Y_4 全長 13,188 mm (43.52 曲尺)

Y_5 全長 13,284 mm (43.84 曲尺)

Y_6 全長 13,136 mm (43.35 曲尺) 가 되어

그 平均值는 13,217.4 mm로 曲尺으로 43.62 尺이다.

여기서 算出된 道里間 對 보칸의 비율은 약 1:1.83이 된다. 이로서 建造當時의 柱間을 完尺으로 잡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道里間은 각 12 尺, 18 尺, 19 尺, 18 尺, 12 尺으로 正面長 79 尺이고 樑間은 12 尺, 19 尺, 12 尺으로 側面長 43 尺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렇게 계산된 正面長 對 側面長의 比도 1:1.83이다.

使用尺度를 찾기 위하여 柱間完尺을 위의 尺數(즉 19 尺, 18 尺, 12 尺)로 가

정하고 각 柱間實測値를 현재의 曲尺과 대비하여 그 비례를 換算해 본바 대체로 使用尺度는 0.977 ~ 1.038 曲尺으로 나타난다.(表 16)

이는 礎石位置가 다소 유동되어 柱間 實測値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모든 實測値에 대입 환산한 것이고 그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실측치로 換算하면 使用尺度가 1.011 ~ 1.026 曲尺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것은

唐尺이나 宋尺에 近似함을 알 수 있다.(韓國古建築斷章 上卷 p.75)

(表 16) 柱間實測値를 完尺으로 가정 使用尺度 換算

1. 御間과 內陣間の 用尺 換算

$$5,813 \div 19 \div 303 = 1.009$$

$$5,750 \div 19 \div 303 = 0.998$$

$$5,782 \div 19 \div 303 = 1.004$$

$$5,760 \div 19 \div 303 = 1.000$$

$$5,805 \div 19 \div 303 = 1.008$$

$$5,823 \div 19 \div 303 = 1.011$$

$$5,885 \div 19 \div 303 = 1.022$$

2. 兩夾間の 用尺 換算

$$5,460 \div 18 \div 303 = 1.001$$

$$5,512 \div 18 \div 303 = 1.010$$

$$5,515 \div 18 \div 303 = 1.011$$

$$5,431 \div 18 \div 303 = 0.995$$

$$5,487 \div 18 \div 303 = 1.006$$

$$5,607 \div 18 \div 303 = 1.028$$

3. 退間の 用尺 換算 (道里間の 兩退間)

$$3,693 \div 12 \div 303 = 1.015$$

$$3,704 \div 12 \div 303 = 1.018$$

$$3,734 \div 12 \div 303 = 1.026$$

$$3,553 \div 12 \div 303 = 0.977$$

(前後退間 實測値)

$$3,693 \div 12 \div 303 = 1.015$$

$$3,713 \div 12 \div 303 = 1.021$$

$$3,686 \div 12 \div 303 = 1.013$$

$$3,643 \div 12 \div 303 = 1.001$$

$$3,660 \div 12 \div 303 = 1.006$$

$$3,756 \div 12 \div 303 = 1.033$$

$$3,775 \div 12 \div 303 = 1.038$$

$$3,720 \div 12 \div 303 = 1.023$$

$$3,716 \div 12 \div 303 = 1.022$$



※ 曲尺으로 대비한 비율은 대체로 用尺 1尺이 1.011 ~ 1.026 曲尺의 범위이다.

礎石 金堂에 使用된 礎石은 모두가 方形礎盤에 円形柱座를 隆起시킨 礎石이다. 礎石의 類型 分類상으로 볼때 凸形円形 三段柱座를 갖은 형식으로 方形의 넓은 礎盤위에 3mm 内外의 얇은 突起를 陽刻시켜 下座로 하여 그 위에 四分円 石실을 한위에 다시 3mm 정도의 円輪 柱座를 臺狀으로 彫出하였다.

각 礎石은 모두가 고맥이 받침이 同造되어 있다.

礎石의 형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① 고맥이 받침용 副座를 양쪽에 둔 것 ② 直角의 二方向으로 副座를 둔 것 ③ 양옆과 直角方向의 三方向으로 副座를 둔 것등 세가지 類形을 區分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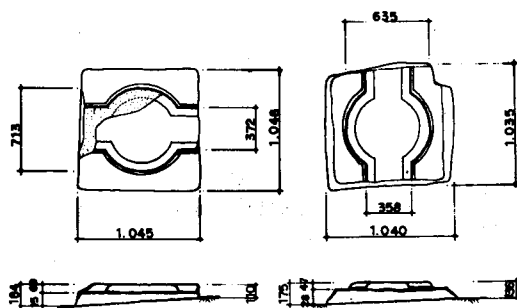
前者는 外陣平柱에 사용되고(12個) 가운데는 外陣과 內陣의 隅柱(5個) 後者는 內陣高柱에만 사용되었다.(4個)

金堂에 使用한 三段柱座()형의 礎石은 新羅下代の 円形 二段柱座() 형식에서 한층 발전된 羅末麗初 礎石形式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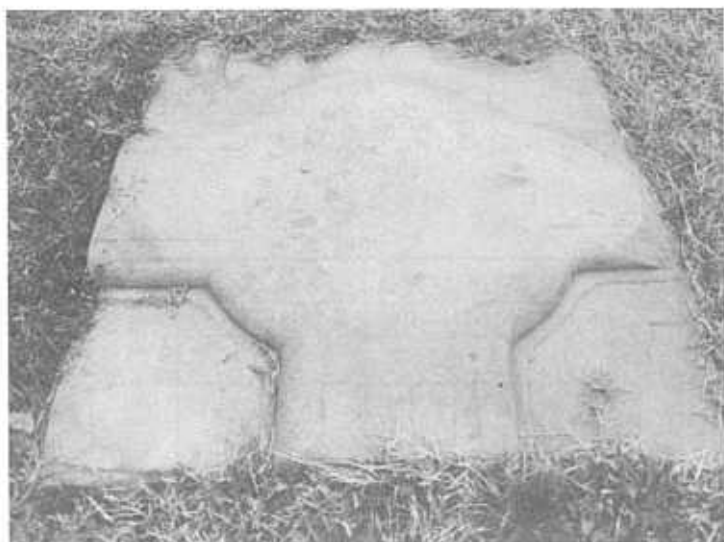
礎石에 따라서는 円隆柱座가 礎盤의 中心에 놓이지 않고 한쪽으로 몰린듯한 現狀을 보이기도 하고 副座이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한 變形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礎頭表面이나 石시리 부분등이 파손 頽落되어 柱座形態를 把握하기 어렵게 된것도 더러있다.

礎石 加工狀態는 礎頭面과 石시리뿐 아니라 礎盤바닥 전체가 精巧하게 治石되어 있어 敷塼등으로 礎石이 露出되도록 意圖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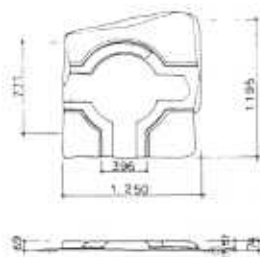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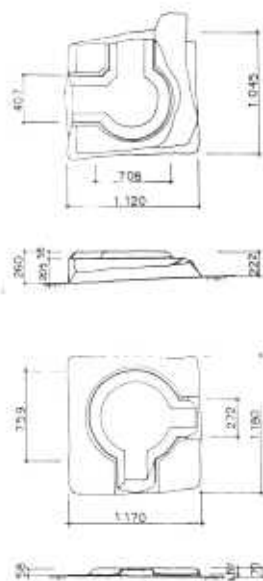
礎盤옆면은 上端에서 2~3cm까지만 다듬고 그 下部는 粗惡한 상태를 드러내



外邊柱 礎石(二方向副座)



隅柱 礎石(直角方向 副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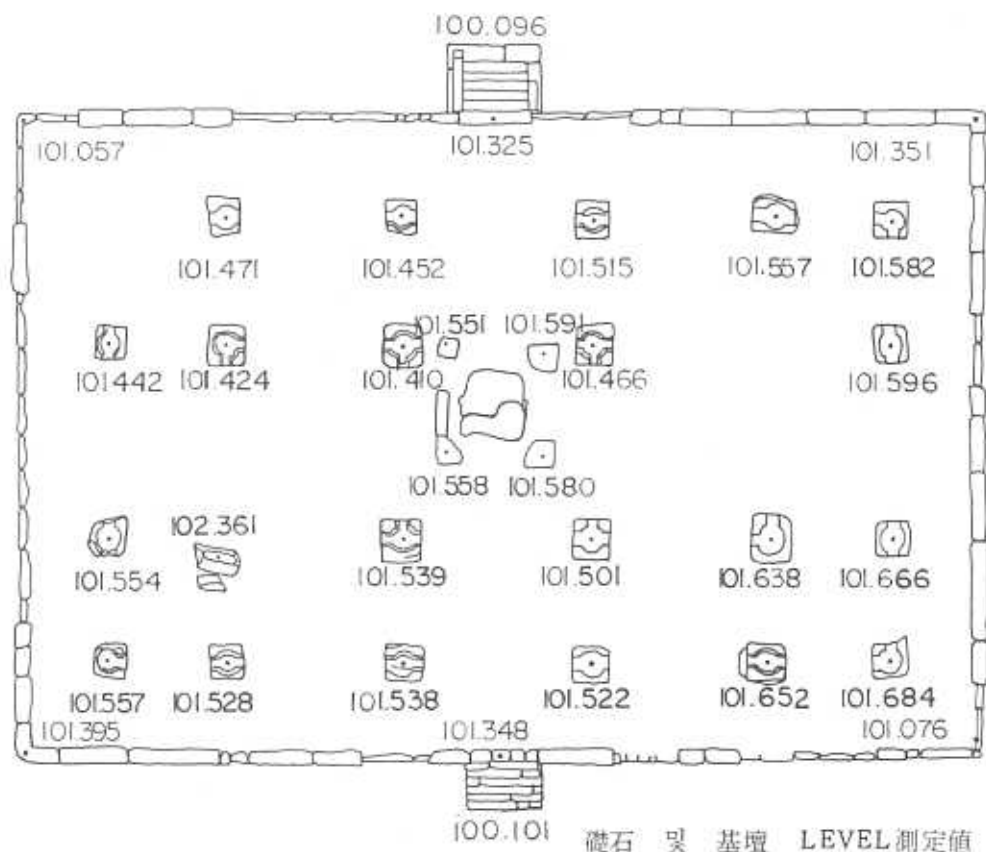
内陣柱 三方向 副座 갖춘 礎石

었다.

地表上에 露頭된 部分만의 限定된 調査인 까닭에 礎脚部の 크기나 水平고름등의
과입方法, 그리고 積心등에 관한 事項은 全然 알 수가 없었다.

(表 17) 礎石實測值

| 부호 | 礎石位置 | 形態 | 礎石全體規格 | | 礎頭 크기 | | 礎頭部 높이 | |
|----|-------------------------|---|---------|-------|--------------|-----|----------|-------|
| | | | 礎盤部 最大值 | | (쇠시리 上下角 形段) | | 쇠시리 高 | 全 高 |
| | | | 가로 | 세로 | 下部 | 上部 | | |
| 가 | 외진평주 (후면) |  | 1,020 | 1,130 | 765 | | | 80 |
| 나 | " (") | 兩面副座 | 985 | 1,020 | 737 | 560 | 70 | 75~82 |
| 다 | " (") | " | 1,045 | 1,055 | 755 | | 63 | 73 |
| 라 | " (") | " | 1,270 | 1,115 | 807 | 575 | 70 | 77 |
| 바 | " (서측) | " | 980 | 975 | 764 | 530 | 61 | 74 |
| 카 | " (") | " | 1,215 | 1,160 | 731 | 565 | 57 | 65 |
| 차 | " (동측) | " | 1,030 | 1,110 | 732 | 558 | 65 | 72 |
| ㄱ | " (") | " | 1,125 | 1,035 | 760 | 573 | 43 | 46 |
| ㄴ | " (전면) | " | 1,085 | 1,010 | 781 | 495 | 45 | 58 |
| ㄷ | " (") | " | 1,175 | 1,090 | | | 56 | 57 |
| ㄹ | " (") | " | 1,145 | 1,015 | 772 | 558 | 53 | 58 |
| ㅁ | " (") | " | 1,300 | 1,220 | 805 | 565 | 42 | 45 |
| 마 | 외진우주 (후면) |  | 1,078 | 1,055 | | | 62 | 74 |
| 4 | " (전면) | " | 1,030 | 1,040 | | | 60 | 65 |
| ㅂ | " (") | " | 1,120 | 1,200 | | 521 | 50 | 55 |
| 사 | 내진고주 (X ₃ 列) | 2 方向 | 1,150 | 1,195 | | | 51 | 59 |
| 아 | " (") | 3 方向 | 1,220 | 1,266 | | | 43 | 50 |
| 자 | " (") |  | 1,250 | 1,220 | | | 51 | 57 |
| 타 | " (X ₂ 列) | | 1,285 | 1,270 | | | 50 | 52 |
| 파 | " (") | 3 方向 | 1,155 | 1,165 | | | 51 | 53 |
| 하 | " (") | 2 方向 | 1,260 | 1,540 | | | 48 | 56 |



基 壇

地表面으로부터 1.40 m나 되는 높은 金堂 基礎部位의 四面둘레 막음을 위한 止砂施設로 형성된 基壇은 精巧하게 治石된 長臺石으로 堅固하게 축조되었다.

前後面の 中央에는 각 1개소씩 石階가 부설되어 있다.

'84年度 補修工事당시 基壇석 전체를 드잡이 再築하면서 在來의 既存 長臺石은 제위치에, 유실된 石築區間은 加工하지 않은 自然石으로 메꾸어 쌓은 까닭에 지금은 육중하고 高峻한 面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基壇構造는 평퍼짐한 地覆石위에 地臺石을 놓고 面石을 세운후 두툽한 甲石을 눌러덮어 마감한 옛 寺院基壇 형식이다.

統一新羅時代부터 많은 遺例를 남기고 있는 廣意의 架構式 基壇이라 할 수 있겠는데 面石에 隅柱와 撐柱를 두지 않았다.

基壇內部 구조를 把握할 수가 없으므로 外面上에 나타난 構造細部를 살펴 약술해 본다.

地面에 接하고 있는 地覆石(보통 地臺石 또는 大盤石이라고도 하나 여기 金堂址 基壇에는 二重地臺로 되어있어 下部의 地臺石을 편의상 地覆石이라 칭해 봄)은 地上에 13 cm 가량 露出하였고, 14 cm 가량 뒤로 물러서 地臺石을 받는다.

地臺石의 높이는 13 cm, 그 上端角을 파내어 面石쪽에 둥근弧의 內曲을 둔 턱을 둠으로서 面石받침을 하도록 되어있다.

面石은 매우 豪放한 規模의 長臺로 基壇의 品格을 높혀주고 있다. 各個材의 길이는 70 cm로부터 180 cm에 이르고 높이는 64.5 cm이다. 上下와 양옆의 맞댐면을 작은 曲으로 궁글려 모점이 함으로서 줄눈없이 맞댄이음이 고려된듯 하다.

甲石의 治石이 또한 莊重하다. 운두 30 cm와 깊이 45 cm의 큰 長臺를 上段地臺石 先端線에 맞추어 쌓았으며, 甲石 副椽下部를 큰 內曲圓弧로 이루어져 角形과 弧形의 二重彫飾을 加한 형식의 표현이다.

이러한 甲石과 地臺의 모점이 治石手法은 찾아보기 드문 예일 것이다.

統一新羅期の 여러 金堂 基壇부에 一段角形 물림턱만을 두거나, 初期 基壇에서

는 물림턱(副椽이라 칭해왔음)없이 面石을 세워댄것에 비하여 대단히 발전된 基壇類形이라 할 수 있다.

甲石下端을 內曲圓으로 돌리거나 前傾하는 斜角으로 빗쳐댄 架構式 基壇例는 桐華寺 金堂庵 極樂殿(大邱)과 鳳巖寺 大雄殿(聞慶)을 들 수 있으나, 甲石운두의 1/3 가량을 과감하게 따내어 副椽部를 이룬것은 居頓寺址에서만 볼 수 있다.

甲石下邊을 크게 궁글려 파낸 圓弧는 地臺石 上面퇴물림 段의 圓形 彫刻받침과 잘 어울려 이 基壇의 품격을 한층 높혀주고 精巧한 架構手法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隅柱나 撐柱를 別石으로 하였거나, 또는 面石에 同造하였던 7~8세기 架構式 基壇과는 달리, 거대한 平板面石을 平面的으로 맞대어 外面을 이룬것은 이 時代的(羅末麗初)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基壇 前後면에 부설된 石階는 넓은 디딤판석을 깔고 6段의 步石을 놓아두고 양옆의 소대돌(隅石)을 세워대었다.

後面쪽의 계단이 더 제형식을 갖춘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前面의 것은 디딤돌만 6단 놓여져 있다. 또한 계단石의 表面에 손상이 많다.

金堂址 前庭에 한무더기 殘石材中에는 隅石破材가 수점 섞여 있어 이것들이 여기에 사용되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디딤板石은 地覆石面과 같은 높이로 돌려져 있다.

步石은 長臺石을 사용, 單間構造로 하였으며 隅石內區幅은 2.05 m, 디딤段의 높이와 넓이는 각 23 cm, 25 cm가 평균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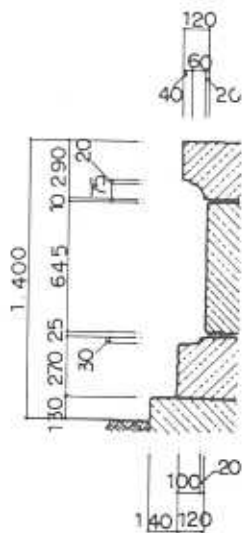
石階隅石은 큰 岩石을 사용, 地臺와 面石, 그리고 甲石을 1石으로 造成하였다. 두께는 25 cm, 全長은 187 cm이다. 地臺의 높이를 基壇部 地臺面石 높이에 맞추어 區劃하고 面石 外側에는 象眼을 陰刻하였다.

三角形 象眼의 형상은 그 先端을 매우 뾰족한 銳角으로 하여 반대편을 막음하지 않은채 기단면석에 파넣어 接續시켰으며 內區에는 아무런 彫飾을 하지 않았다.

甲石은 斜長된 臥石과 같이 계단 傾斜에 맞추어 直線으로 소대면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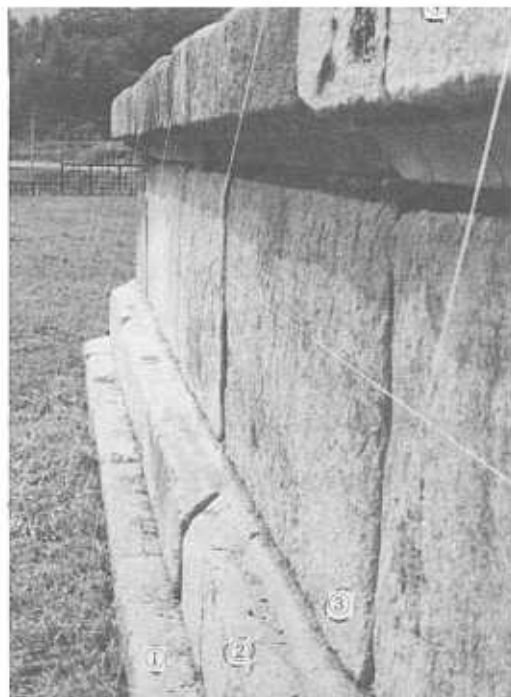
비교적 큰 規模의 隅石이나 7~8세기 統一新羅初期에 많은 遺例를 보여준

(感恩寺址 등) 別石組立을 피하고 單一石材로 제작되었음은 下代的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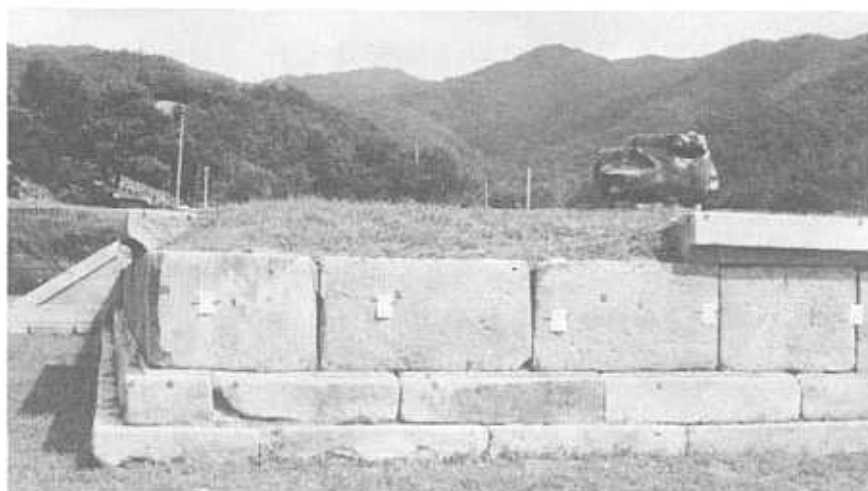


기단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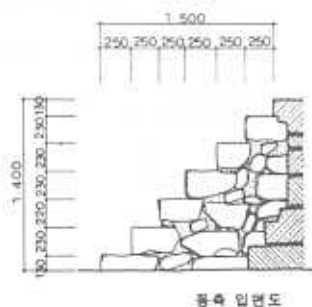
- | | | | |
|---|---|---|---|
| ① | 地 | 臺 | 石 |
| ② | 地 | 臺 | 石 |
| ③ | 地 | 臺 | 石 |
| ④ | 地 | 臺 | 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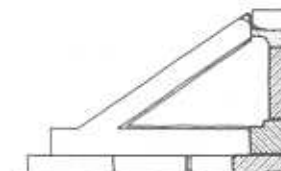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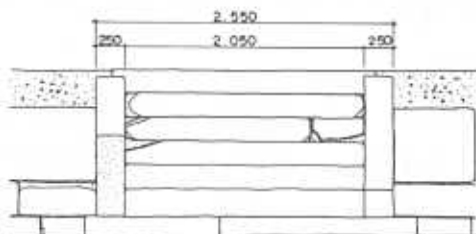
基壇構成의 細部



基壇과 階段



前面石階



佛像臺座石 1.

金堂의 內陣御間에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거대한 岩塊덩이가 있다. 현재 外面이 불규칙하게 파열되어 있어 본래의 形狀을 알 수 없지만 이 岩塊가 놓여 있는 위치와 형태로 보아 主佛을 安置했던 佛像臺座 內部 積心石으로 추정된다.

이 積心石은 세 덩어리의 石塊로 重積되어 있고 下段 네귀에 괴임돌로 고여 받쳐져 있다. 表面이 모두 깨어져나간 현재 상태의 實測値로는 最大徑이 2,015 mm이고 높이는 東쪽이 2.02 m 西쪽이 1.96 m로 동쪽이 다소 높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각 돌의 上·下 접착면은 면밀히 다듬어 접합한듯 결속되어 있으며 각 돌의 높이는 下段으로부터 627 mm, 888 mm, 245 mm로 最上段돌이 가장 얇고, 그 돌의 절반이상이 깨어져 떨어져 나갔다.

맨위의 돌 上面이 平遍하게 加工된 것으로 보아, 더이상 올려진 돌은 없이 바로 佛像을 定置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佛像을 坐定 固定시키기 위한 홈 등의 흔적은 없다.

이 積心石의 四邊둘레 바닥에는 약간의 거리를 띄우고 方形으로 짜들려진 加工石이 놓여있다. 臺座 혹은 佛壇을 받치는데 사용하던 地臺石으로 보이며 지금 네귀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되었고, 四隅石중간에 끼워져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臺座地臺石은 西邊에만 일부 남아있다.

이 方郭地臺 1邊의 길이는 3.7 m 내외이고 岩塊와 地臺石과의 사이 거리는 30 ~ 40 cm 가량 떨어져 있다.

네 귀에 놓인 地臺隅石과 地臺石 上面이 礎石과 같이 精巧하게 다듬어졌을 뿐 아니라, LEVEL이 礎盤높이와 거의 비슷하게 놓여져 있어 建物 바닥에 직접 露出되도록 고려된 治石임을 알 수 있다.

또한 四隅石 상면 內側이 얇게 파내어져(2 ~ 4 mm) 있으므로 架構式으로 組立構成된 臺座石의 周緣部가 직접 물리게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佛像臺座의 底邊이 方郭地臺홈에 직접 물려지게 고려되었다면 1邊長이 2.90 m가 되는 巨大한 臺石이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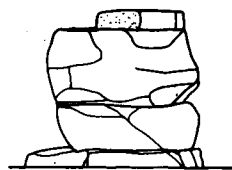
臺座石의 外面이 전부 離脫 流失된 狀態이기 때문에 지금 이 臺座의 원래 狀態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이 石塊의 크기로 보아 臺座石은 매우 華麗한 彫刻으로 治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올려질 佛像도 크고 雄壯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3段으로 組續된 積心の 외부 臺座面은 伏蓮座나 眼象등으로 크게 彫刻되었을 것이며 가운데는 中臺 또는 竿石의 역할, 그리고 上段石은 上臺로 周緣部엔 仰蓮帶를 돌리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또한 積心石 外面에 木造의 佛壇이 組立되었을 지도 모르며 이럴때 현 方郭地臺石과의 연관이 문제인데 地臺石위에 별도의 下臺石을 올려놓고 그위에 木造佛壇을 構成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 地臺石 자체가 後補物일 可能性도 추정해 볼 수 있다.

地臺石이 精巧하게 治石加工되었으나 石質자체는 金堂址 礎石이나 臺座積心石과는 다소 다른 質感을 느낀다.

統一新羅로부터 高麗代에 이르는 盛佛期에 佛像臺座의 장엄하였던 모습을 遺存物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여기의 積心石은 그들보다 월등하게 크게 되어있고 特히 中臺石 위치의 가운데 부분이 지금 깨어져 脫락된 狀態대로도 2m徑을 넘고 있다. 이는 보통 中臺를 잘록하게 竿石形으로 하던 그 時代의 餘他 佛像臺座와는 다른 형식을 취한 것이라 생각된다.

金堂建物の 규모가 매우 크고 內陣高柱間에 重層을 형성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豐滿한 積心石의 量感으로 미루어 보아 또 金堂基壇이 現격하게 高峻한 점으로 보아 여기에 모셔진 佛像도 매우 雄健하고 品格있는 佛像일 것이며 鐵佛등의 坐佛일 것으로 想定된다.



서쪽 입면 실측도

佛像臺座와 地臺로
돌려진 方區(南)

佛像臺座石 2.

金堂址의 前面內陣高柱列(X_2 , Y_2)의 礎石位置에 박혀있는 巨石이다. 바닥의 直徑 1,120 mm 높이 780 cm 가량의 正方形에 가까운 底面을 갖고 있으나 불규칙하게 깨어져서 절반정도 땅에 묻혀 上體만 들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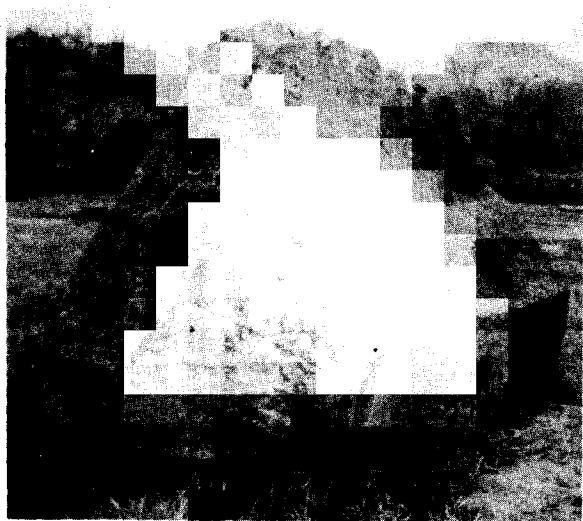
이 돌의 둘레면이 불규칙하게 깨어져 있으나 上面은 平滑하게 治石되고 中心에 커다란 方形구멍이 뚫어져 있다. 홈구멍이 패인 開口部는 16 cm × 20 cm이고 패인 깊이는 15 cm 가량으로 孔底바닥도 平坦하다.

이런 형상으로 보아 이 돌은 佛像臺座石인 듯한 감을 갖게 한다.

全體의 높이가 78 cm에 이르고 둘레면이 현재 모두 깨어져 없어졌지만 伏蓮이나 장식 文樣帶를 돌려 治裝한다면 훌륭한 立佛臺座가 될 수 있다.

三層石塔 옆의 破石材中에 眼象이 陰刻된 破材片이 있어 이 臺座의 破損材가 아닐까 견주어 보았으나 그 규격과 깨진面이 약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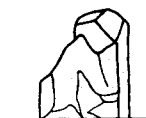
이 臺座가 金堂內에서 佛像을 奉安하였다고 假定한다면 御間の 높은 坐佛臺座 옆칸인 東西挾間에 놓여져 御間과 더불어 三尊佛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불상대좌(2) 실측도



남측 입면 실측도



동측 입면 실측도

4. 圓空國師 勝妙塔

居傾寺址 中心寺域의 북쪽 산기슭에 있었던 塔殿에서 옮겨져 현재는 景福宮內 근정殿 後苑에 다른 石造物들과 함께 保存되어 있다.

寺址 동쪽에 同 塔碑가 遺存되고 있어 그 碑文에 의해 이 墓塔이 高麗顯宗 9 年 (1018)에 建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浮屠塔身에 「圓空國師勝妙之塔」이란 塔名이 刻記된 점이 보통부도와 다르다. 塔名을 밝힌 例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地臺石은 方形臺石이나 本來의 제 것이 아닌 移轉時의 後造物이며 거의 잔디에 묻혀 있다.



승묘탑 서측 입면 실측도

浮屠塔은 현재 6枚石의 塔材로 구성되어 있다.


基壇部를 이룬 下臺와 中臺 및 上臺가 重疊되고, 塔身部, 屋蓋部, 그리고 相輪部の 일부인 寶蓋石 1石이 頂上에 올려져 있다.

塔身에는 龕室(감실)門을 나타내는 出入門扉가 전후면에 배치되고 兩 측면에는 光窓이, 그리고 나머지 四面에 四天王像이 彫飾되어 있다.

建造物의 지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屋蓋石과 軸部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塔身, 그리고 基壇部の 八部衆像등 화려한 조각 등에서 高僧의 尊嚴性을 살피게도 되고, 高麗時代 前半期の 찬란했던 佛教美術相을 잘 보여주고 있다. 精密實測 과정에 나타난 細部手法과 樣式을 美術史的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져 한다.

基壇部

下臺石 平面은 八角이다. 33cm 높이를 갖은 下臺石 各 面に 細長한 眼象을 1具씩 배치하고 그 위에 伏蓮을 새긴 床面이 同造되어 있다.

안상의 形態는 新羅以來의 통식이라 일컫는  형이고 평편한 바닥 중앙에 귀꽃문을 배치하였다. 각면 귀에는 隅柱등의 彫飾이 없고 眼象위에 角形반침을 핀 넓은 突帶를 둘러 伏蓮帶와 구획하였다.

復葉 16瓣의 蓮花를 새긴 蓮瓣은 隅角과 中央에 1瓣씩을 배열하엿으며 蓮葉이 약간 옆으로 비스듬이 되어 興法寺址 眞空大師 浮屠(940: 현 중앙박물관앞)의 下臺蓮瓣과 비슷하다. 그러나 8모로 접어진 隅角部에 귀꽃은 없다. 蓮瓣의 볼륨이 두툼하고 경직된 듯한 표현에서 新羅때의 부드럽고 날렵한 연화모습에 비하면 10세기 이후의 下代手法을 보인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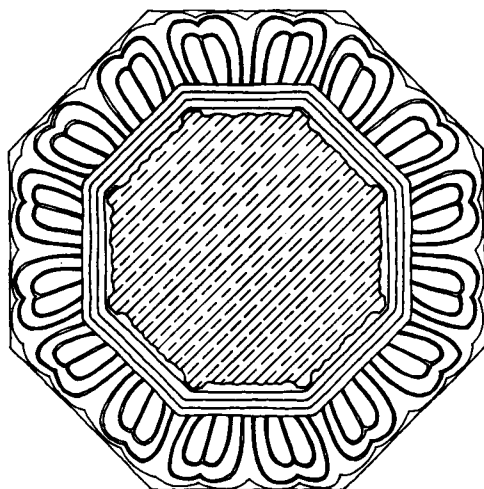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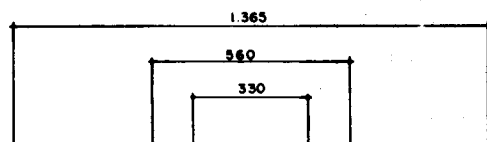
伏蓮帶 상면의 안쪽으로 3段의 層級으로된 中臺받침이 中臺石을 받는다. 이 層級받침은 弧形 쇠시리(몰딩)를 가운데두고 그 上下에 角形받침을 한단씩 둔 形態의 괴임석이다. 下臺石의 直徑은 136.5cm이다.

中臺 八角形 平面의 竿柱石으로 높이에 비해 廣이 매우 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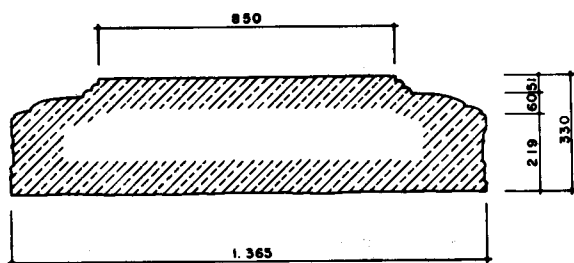
各 面に 隅柱를 나타내지 않고 넓은 眼象을 陰刻하여 그 內區에 八部衆像을 彫出하였다. 中臺石 上下端部에는 폭 4cm, 5cm의 突帶를 떠선으로 둘러 대었다.

八部衆의 彫刻은 眼象內空을 가득메워 새겼으며 細部的 線條에 이르기까지 매우 사실적으로 陽刻하였다.

眼象은 광활한 立像形으로 전면에 가득차 있는데 上部曲線이 三山形으로 구성되고 括弧의 막음선이 아주 크게 새려져서 基壇이나 좁은 面에 透刻되는 細長한 眼象과는 전혀 다른 맛을 보인다.



하대석 평면도



하대석 단면도



勝妙塔 地臺下部 眼像

이런 形態의 眼象은 9세기말에 조성된 雙谿寺 浮屠(眞鑑禪師墓塔으로 추정) 中臺石에 彫出된 안상과 비슷한데 다만 머리꼭선이 五山形을 이룬것이 다르다.

高僧의 墓塔에 四天王像과 八部衆像을 彫刻하는 일은 統一新羅때부터 비롯되었다. 佛法을 護持하는 守護神으로서 武將의 모습을한 四天王과 그 副將으로서의 八部衆인 것이다. 八部衆은 각기 ① 乾闥婆, ② 毘舍闍, ③ 鳩槃荼, ④ 薛荔多(餓鬼), ⑤ 龍, ⑥ 富單那, ⑦ 夜叉, ⑧ 羅刹등의 이름을 갖고 있으며 帝釋天의 外臣으로서 四天王과 함께 上下기능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塔婆의 造形으로 나타날때 그 上下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調査된 바로는 塔婆에 나타난 八部衆이 四天王 八部衆의 特徵보다는 如來八部衆(즉 부처의 說法을 듣기 위해 모여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되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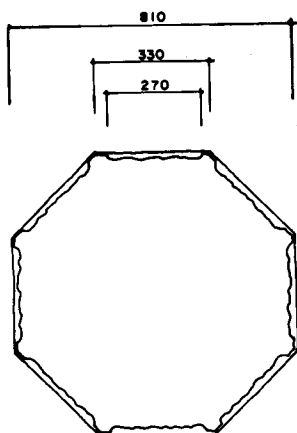
中臺石에 새겨진 八部衆像의 모습

註 4) 張忠植：統一新羅 石塔浮彫像의 研究(考古美術 154, 155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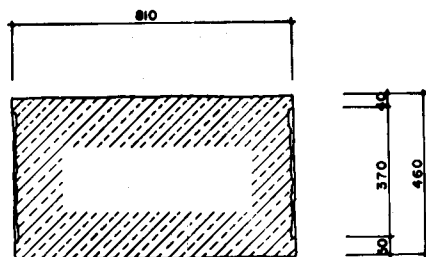


中臺石에 새겨진 八部衆像의 托影

中臺石의 채적이 塔身石 보다도 넓고 豐滿하여 浮屠塔 전체에 安定感을 준다. 竿柱形의 中臺石이 채용되던 初期부도들의 날렵한 모습과는 달리 多少 鈍重해 보이기도 한다.



주대석 평면도



중대석 단면도

上 臺

中臺石 바로위에 올려진 上臺石은 角形괴임과 仰蓮彫飾된 周緣部 상면에 三段 구성의 塔身받침이 1石에 同造되었다.

仰蓮彫飾은 單葉 16 瓣의 蓮花를 上·下 二列로 交互배치되어 있다.

上臺石 前面에 넓게 펼쳐진 上列의 蓮花는 각 隅角과 面中心에 1 瓣씩 배열되고 그 사이에 間葉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下臺에 彫出된 伏蓮座보다는 섬약하고 부드러운 形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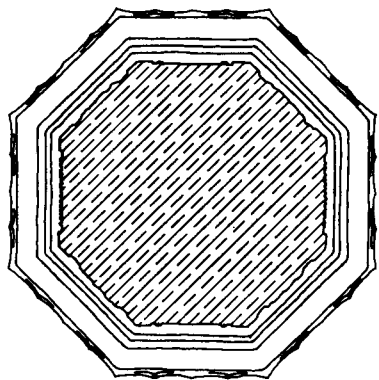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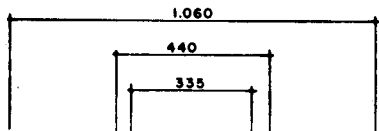
瓣內에는 풍려한 무늬의 花紋이 치장되어 있다. 花心주위에 고사리紋을 연결하여 곱팍이를 이루듯 커다란 花形文이 瓣內에 가득피어 화려함을 더했다.

이러한 花紋이 彫飾되어 있는 蓮瓣은 통일신라때의 瓦堂이나 石造物에도 더러 보이며 雙峰寺 澈鑒禪師塔이나 寶林寺 普照禪師, 봉암사 지증대사탑등 9세기 부도탑에도 보인다. 또한 高麗때의 大安寺 廣慈大師塔(945) 淨土寺 弘法國師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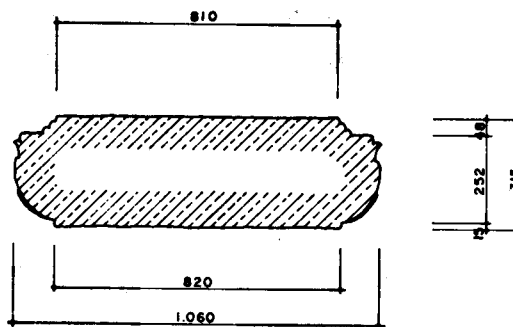
많은 墓塔의 蓮瓣에도 채용되는등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여기의 원공국사탑
에서와 같이 花紋이 크고 두드러지게 彫刻된 것은 흔하지 않다.

仰蓮帶의 상부 周緣을 따라 八角모를 접어 床面을 이루고 그 안쪽에 塔身을 받
치는 괴임을 三段層級으로 造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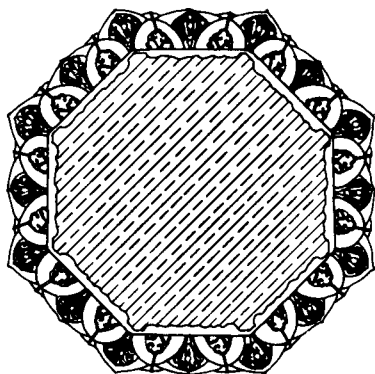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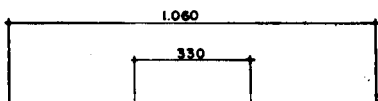
層級은 角形 下段과 弧를 이룬 석시리위에 角形을 다시한번 둔 形態이다.



상대석 부감도



상대석 단면도



상대석 양시도



上臺瓣花紋 장식

塔 身

역시 八角의 平面이고 面마다에 彫飾을 加했다.

隅角에는 기둥을 花紋으로 장식하였고 前後面에 門扉를, 左右面에는 窓戶를 그리고 나머지 四面에 天王像을 조각하였다.

塔의 정면을 보면 門額의 상부에 따로 周緣치장을 하고는 「圓空國師勝妙之塔」이라 두자씩 從書로 四行을 배열한 塔名이 있다.

문얼굴은 문지방, 문선, 문인방을 두툼한 2條帶線으로 짜서 框額을 만들고 두 짝의 板扇을 달아 중앙에 큼직한 자물쇠로 걸어채웠다.

門面가운데 1垂線만이 그어져 있어 門짝은 1枚板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고 고리나, 돌저귀, 띠장못 등의 장식철물 모습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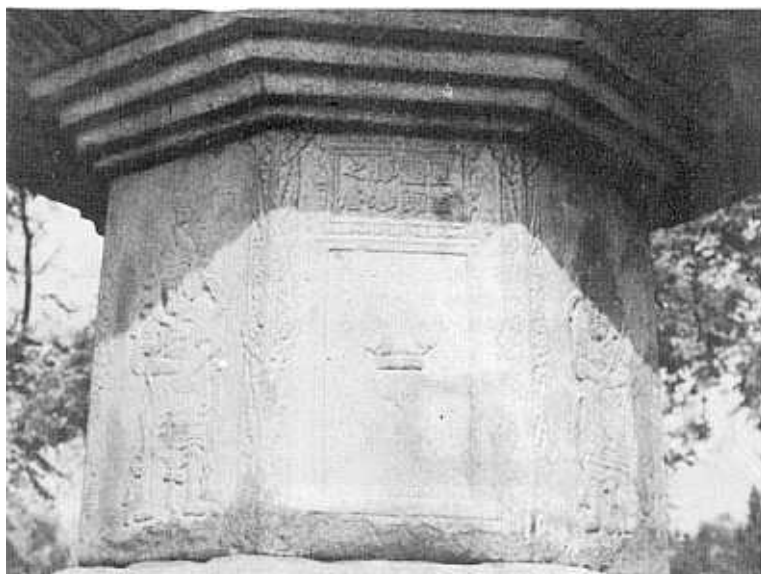
門벽선은 柱間사이를 거의 메꾸어 쳐있고 문지방은 隅柱에까지 뻗어 접속시켰다.

塔身 後面에도 문을 낸 모습은 前面과 같으나 門額의 윗부분은 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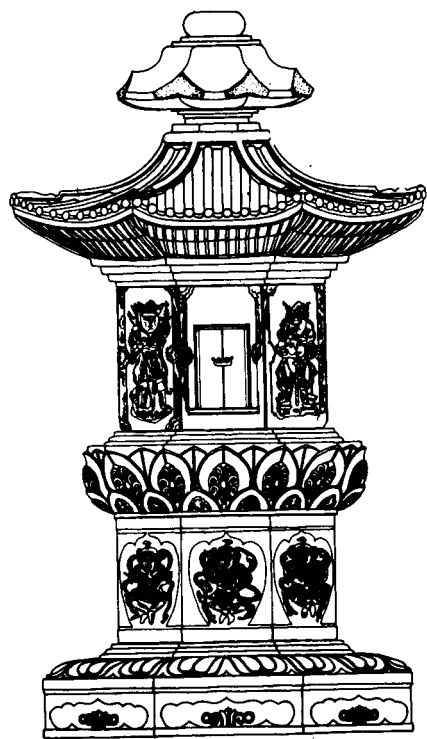
측면벽의 中央에 上下로 긴 矩形 살창이 있어 光窓임을 나타낸다.

창선을 단단하게 짜 맞추고 살대를 마름모꼴로 세워 꾸민 듯한 형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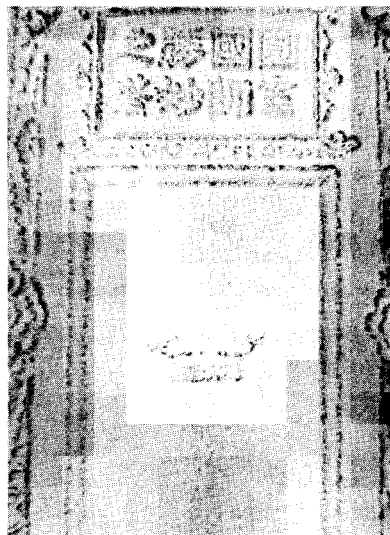
光窓의 표현은 매우 흥미롭다. 木造建物の 壁體를 그대로 묘사한 것이며 이 塔이 세워지기 이전의 浮屠에서는 별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塔身の 正面龕室門扉와 天王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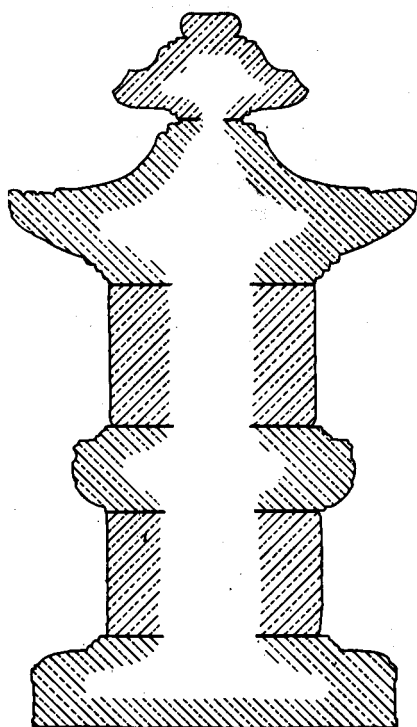
승묘탑 북측 입면 실측도



塔身正面門扉



四天王像



승묘탑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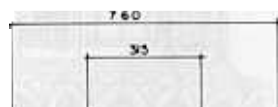


八角隅部の 기둥표현은 두드러져 있지는 않지만 모서리 折曲部에서 각 面으로 향해 3.2 cm 폭으로 柱緣線을 긋고 그 線區內에 寶花와 唐草文을 채워넣었다. 기둥높이의 中央과 上·下端部에는 큰 寶花紋을 모서리로부터 양면으로 넓게 펼쳐 넣어 기둥 緣線을 넘어 돌출되도록 彫飾하였다.

이런 類形의 隅柱表現은 興法寺 眞空國師塔에도 볼 수 있으나 돌출된 花形사이의 柱面에는 아무런 장식문양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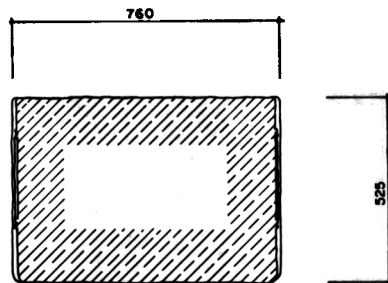
蓮華仰蓮帶로 彫飾한 上臺



탑신석 평면도



勝妙塔의 塔身部 光窓과 柱, 四天王像



탑신석 단면도

浮屠塔身이 木造建物 軸部를 模寫表現한데 있어서는 統一新羅期 浮屠에 비하면 훨씬 略化되고 形式化 되었다.

門과 窓을 배치한 壁面 構成에서도 上·下枋의 표현이 생략되고 특히 기둥표현에 있어서는 더욱 疏略되어 나약하게 장식화된 형용이다.

9세기 作인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에 배흘림을 둔 圓柱와 柱頭, 그리고 柱間 창방위에 소로형 접시받침을 배치한 것이라던가,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의 角形 기둥위에 曲面의 굽을 둔 柱頭의 모습, 기타 신라부도등에 우주와 枋額등을 模刻, 건축세부 표현을 구체화한 것을 比較해 볼때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된다.

門과 窓을 제외한 四面에 새겨진 四天王 立像은 正面直立한 자세에, 얼굴만을 약간 돌려 門戶쪽을 바라봄으로서 龕室門을 지키는 守門將의 役割을 나타내고 있다.

天王은 모두 雲頭를 딛고선 姿勢이다. 佛家에서 말하는 欲界六天의 첫 하늘인 四王天의 天王들이다. 즉 須彌山 중턱에 住하면서 佛法을 護持하는 네 天王으로 東西南北의 四方을 수호한다고 보고있다. 副將으로 거느린다고 일컬어지는 八部衆像을 이 塔의 基壇部에 배치하고 있음은 합당한 구성으로 이해된다.

塔身の 전체적인 量感은 비교적 豐滿한 편이다.

자물쇠 채인 板扇과 四天王像의 배치는 신라부도 이래로 계승되어온 通式이라 할 수 있으나 光窓의 出現은 매우 注目되며 이 塔을 10세기 이후에 建立된 時代性을 보여준다.

신라부도에서는 光窓을 볼 수 없고 高達寺址 逸名浮屠와 현재 景福宮에 移置되어 있는 法泉寺址 智光國師 玄妙塔(1085) 등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智光國師 玄妙塔의 窓은 다분히 西域쪽의 기풍을 갖인 火頭窓이기 때문에 여기의 살창으로된 光窓과는 계통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南漢江 流域에 자리잡은 高麗初 名刹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 한시대, 한地域에 국한된 양식일 가능성이 있다고⁶⁾도 하였다.

문짝에 새겨진 자물쇠는 他例에 비하여 소략되고 細長한 鐵鑰이며, 양쪽 머리 부분에 龍頭를 模刻하였다.

註 5) 高達禪院址 地表調査報告書 1984年 驪州郡 刊.

屋 蓋

塔身위의 屋蓋石은 木造建物の 지붕부분을 세밀히 묘사하였는데 대략 屋蓋받침, 처마, 지붕상부등 3段階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체 形態는 역시 八角의 개석(蓋石)이며 一枚의 큰 岩塊로 다듬어 사용했다.

塔身위로 바로 얹은 角形 받침턱 한단을 두고 3段層級の 屋蓋받침을 두었는데, 이것은 木造建物에서의 栱包帶를 상징하는 造成이다.

3段級の 層段받침은 직각보다 약간 벌어진 만각(挽角)으로 하여 높이를 잡고 바닥면을 약간씩 넓혀 層段을 벌림으로서 적당한 체증율로 형성되었다.

마지막 段위에 散枋表現의 얹은테가 있고 椽木과 浮椽을 彫出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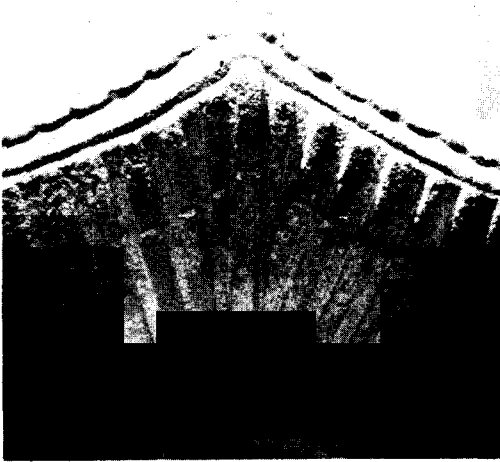
처마면이 귀부분으로 치켜 올라간곳에 舂舌와 사래를 正確하게 模刻하였다.

처마끝은 直絶하여 넓은 테두리를 두르며 八角에 따른 자연스러운 처마曲線을 이루었다. 부연위의 平交臺(이매기)부분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 암숫기와의 막새가 얹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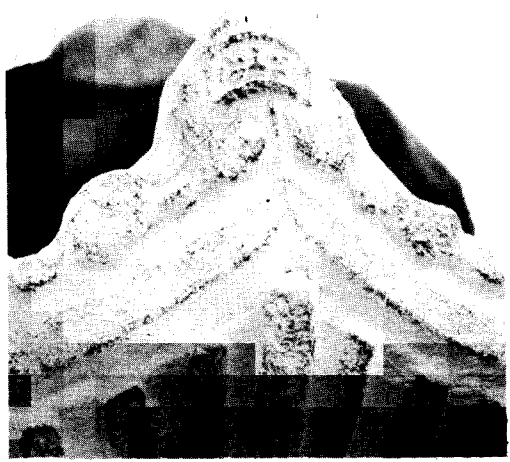
椽木과 浮椽은 층급을 이루어 角形으로 彫出되고 귀부분에선 부채살 퍼지듯 선 자연을 배치하고 추녀, 사래를 두툼하게 陽刻시켰다. 대체로 椽木을 角形으로 표현한 예가 많지만 쌍봉사 칠감선사부도를 비롯하여 麗代의 흥법사지부도, 梨大



眞空國師 勝妙塔 屋蓋石



처마부분(屋蓋)



귀마루끝 장식

博物館앞 부도(939年頃, 寶物 351號), 慶北大博物館부도(寶物 258호) 등에는 圓形연목과 角形 부연으로 현존하는 木造建物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興法寺址 眞空大師 浮屠는 栱包帶를 상징한 2段級의 받침대위에 弧形으로 둥글린 外目道里를 묘사하고 그위에 연목이 올려져 있어 더욱 사실적이다.

처마曲線에 보이는 仰曲과 안허리曲은 대체로 적절한 크기로 묘사되었다.

勝妙塔仰曲의 平均은 2.60 cm이고, 안허리曲은 5.9cm로 나타난다. (表 18~20)

勝妙塔 屋蓋石 曲線測定値

(表 18) 옥개석 외곡(남쪽 屋蓋石에서 測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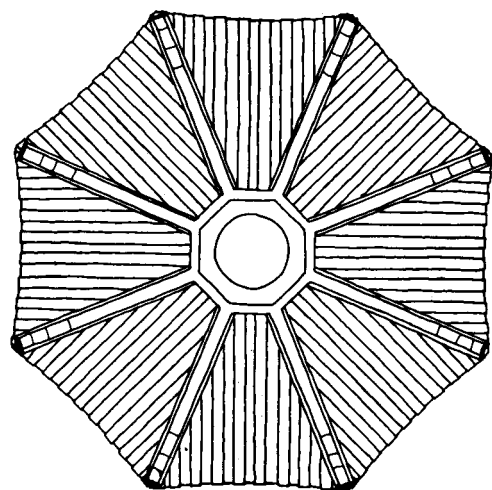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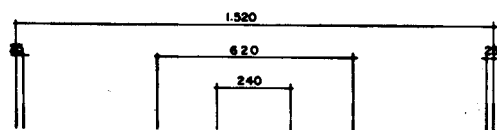
| 길이(cm) | 0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
| 깊이(mm) | 0 | 53 | 75 | 88 | 91 | 87.5 | 82 | 69 | 39 | 0 |

(表 19) 屋蓋石 안허리곡(南쪽 正面의 처마端部에서 測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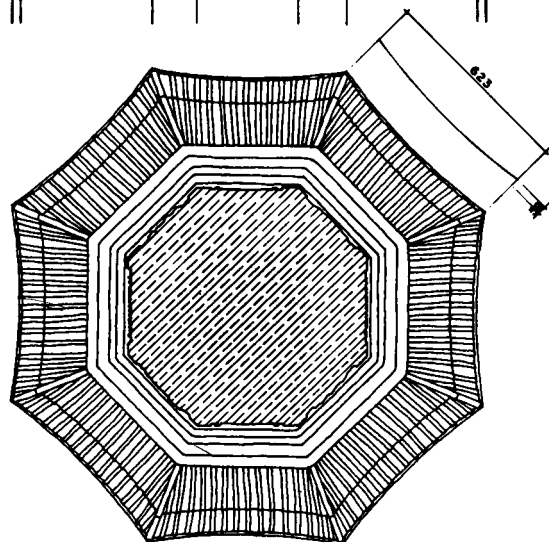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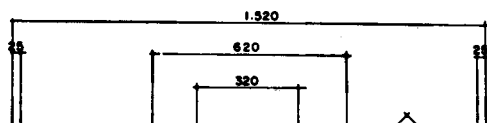
| 길이(cm) | 0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2.3 |
|--------|---|----|----|----|----|----|----|----|----|----|----|----|----|------|
| 깊이(mm) | 0 | 30 | 47 | 55 | 58 | 59 | 59 | 57 | 54 | 52 | 46 | 33 | 15 | 0 |

(表 20) 屋蓋石 양곡(南쪽 처마端에서 測定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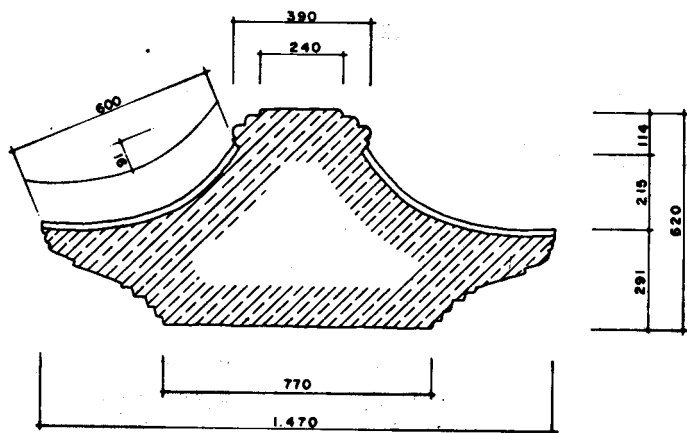
| 길이(cm) | 0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55 | 60 | 62.3 |
|--------|---|---|----|----|----|----|----|----|----|----|----|----|----|------|
| 깊이(mm) | 0 | 9 | 15 | 19 | 23 | 25 | 26 | 26 | 23 | 21 | 18 | 11 | 6 | 0 |



육개석 부감도



육개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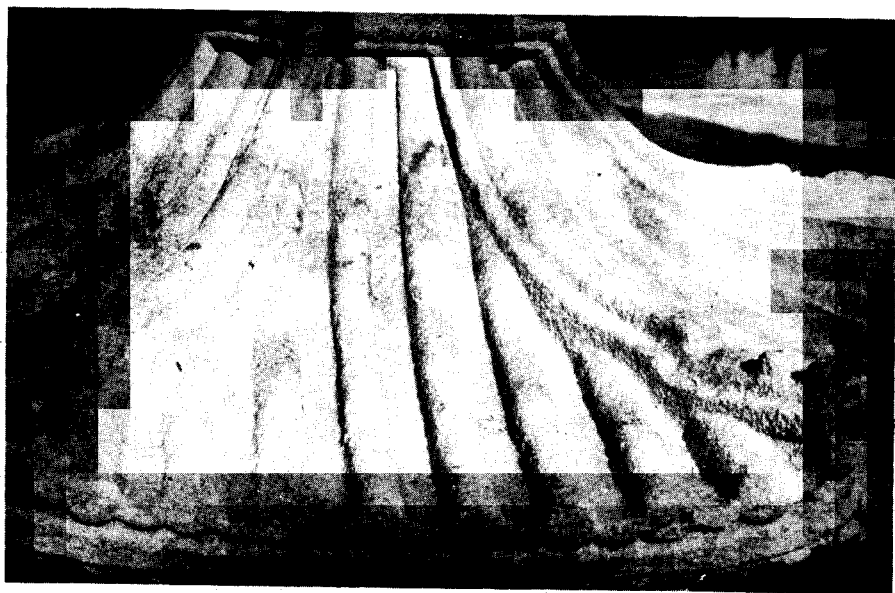


육개석 단면도

이 塔보다 바로 前期인 10세기 浮屠 屋蓋들이 거의 水平線을 이루다가 귀부분에서 살짝 들어올려진 것과는 다르다. 현존부도중 古形에 속하는 廉居和尚塔(844年 國寶 104號) 大安寺 寂忍禪師塔(861年, 寶物 273號)의 屋蓋처마를 닮은 전체적으로 안온하고 유려한 흐름의 처마曲線이라 할 수 있다.

지붕위의 落水面에는 기와골을 내고 八角의 합각부에는 隅棟(마루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지붕의 물매가 급한 형세여서 頂上部分이 상당히 솟아올라 있으며 기와골 下端에는 암·숫막새가 표현되었다.

원형의 숫막새와 가름한  형의 암막새이다.



귀마루는 여러겹 적새놓은 듯이 도톰한 隆起위에 숫기와등이 표현되고, 內弧를 이루며 흘러내리다 3/4 거리 下端에서 마루등이 斷絶되고 평평한 床面에 둥그스럼하게 突起된 2개의 造物이 刻出되었다.

지붕마루를 장식하던 망새기와 (바래기등의 곱새망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居頓寺址 內에서 곱새기와 片으로 보이는 瓦片을 수집한점에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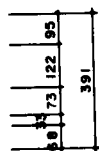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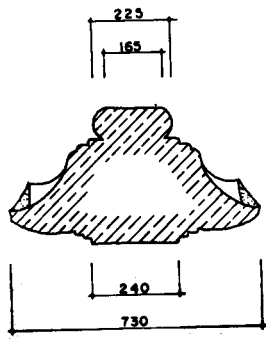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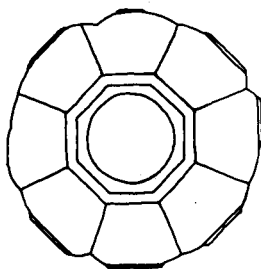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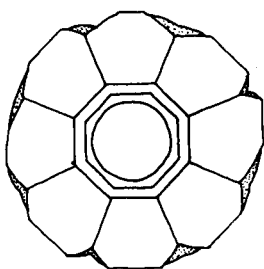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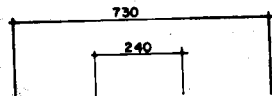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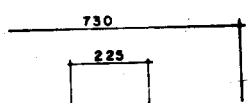
귀마루끝, 처마선이 솟아오른 轉角部 막새위에는 立狀化한 장식이 있다.

대개의 옥개전각 귀꽃이 파손되었드시 여기 귀마루 先端에 隆起된 형상도 거의 파손되고 두개만이 뚜렷한 형상을 보인다.

형체를 제대로 보존하고 있는 귀꽃부의 顔面을 보니 鬼面彫刻을 하였다.

작고 불규칙하게 일그러진 모양의 鬼面이다.

지붕 頂上部엔 큰 圓弧로된 突帶가 테두리 두리며 기와골 上端을 덮어 감싸서 마무리 하였고 八隅角의 마루등에 연결되어 있다. 그위에 다시 一段角形 상륜 받침대를 彫出하여 寶蓋를 얹었다.



보개석 부감도

보개석 양시도

보개석 단면도



寶蓋石

相輪部는 보통 覆鉢, 여러단의 寶輪, 寶蓋, 寶珠등으로 構成되는 것이나 여기서는 余他材들은 보이지 않고 一枚石으로된 寶蓋만이 남아있다.

여기의 寶蓋石도 八隅角部の 귀꽃부분이 모두 파손되고 돌의 色이나 石質도 약간 相異한듯하여 이 基塔材인지 아닌지도 分明하지 않다.

寶蓋石의 下端에 八角의 角形받침을 二段彫出하고, 처마부분을 아무런 장식없이 다듬었으나 귀부분에서는 反曲되는 線에 따라 홈을 파냄으로서 추녀의 위치를 표시했다. 처마끝 마구리면을 斜絶하여 적절한 처마양곡과 안허리曲을 두었으며 反轉된 轉角部에는 立飾花한 귀꽃을 장식한듯 하다.

깨어진 轉角面에는 쇠못자국이 파여있다. 즉 8개 귀모서리 정각에 약간 큰 구멍 1개와 양쪽볼에 작은孔 1개씩이 있어 별도의 金屬장식을 매달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지붕 낙수면에 기와골을 파냄이 없고 隅棟(내림마루)만이 뾰족하게 솟아있다.

寶蓋頂部에 다시 二段角을 조성한후 扁球形(편구형)으로 다듬은 寶珠받침을 형성하였다. 그 上面中心에 直徑 4cm, 깊이 5cm의 圓孔이 뚫려있어 寶珠를 固定하기 위한 擦柱孔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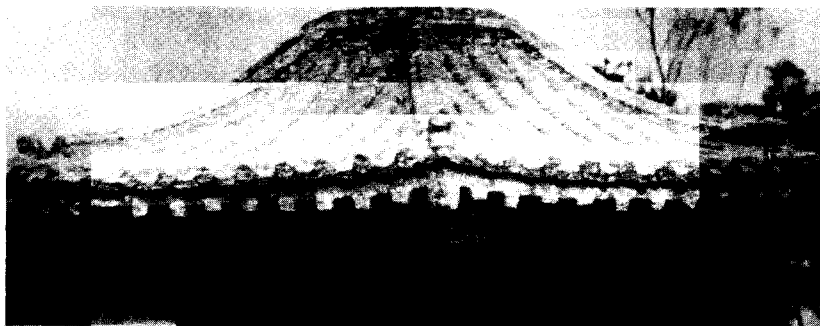
勝妙塔의 相輪部 構成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매우 疏略한 形態인데 이와 같이 蓋石위에 八角寶蓋石만이 곧바로 올려진 例가 興法寺址 眞空大師 浮屠등 몇 개의 類例가 있으므로 이도 한 類型으로 간주할 수 있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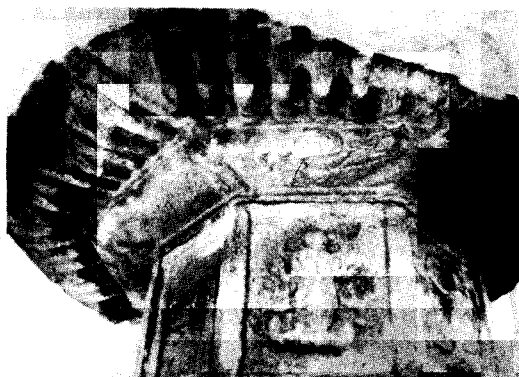
興法寺址 眞空大師 浮屠 屋蓋石

이 墓塔은 造形의 比例가 整齊되어 대체적으로 安定感을 보이고 있으며 다소 重厚한 편이다. 塔材의 全面에 걸쳐 華麗한 彫刻으로 莊嚴을 加했으나 彫法이 나약(纖弱)하고 細刻에 흘러 雄渾함이나 生動感은 떨어진다.

高麗時代 前半期の 隆盛했던 佛教藝術과 彫刻美術의 精粹를 볼 수 있는 훌륭한 石造美術品の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廉居和尚塔 屋蓋石 치마曲線 및 공포대모사



梨大博物館의 高麗代浮屠
(寶物 531 號) 치마부분

梨大博物館 부도(圓形椽木과 角形浮椽,
그리고 轉角부의 귀꽃)



5. 圓空國師 勝妙塔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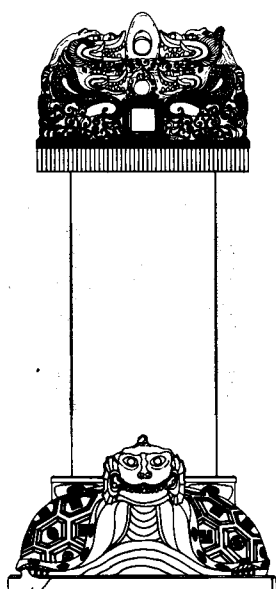


居頓寺의 中興主라 할 수 있는 圓空國師의 塔碑로서 지금도 寺址에 남아있다 龜趺와 螭首를 갖춘 典型的인 高麗時代의 石碑로서 寶物 第78號로 指定 保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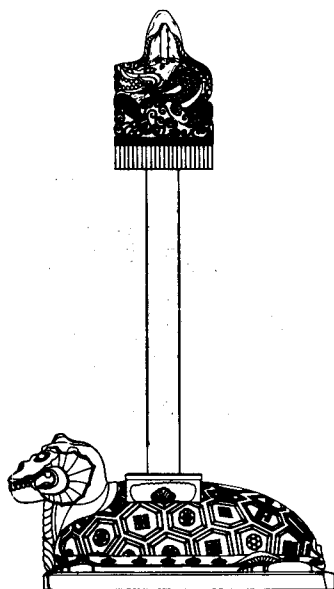
雄大한 크기의 碑身에는 前面에만 大師의 行蹟이 刻記되어 大理石으로 세웠으며 龜趺나 螭首는 통례에 따라 花崗石으로 加工되었다.

圓空은 高麗初 名僧으로 俗姓은 李氏 諱는 智宗이고 太祖 13 年(930)에 出生하여 일찍 佛門에 出家하였다. 廣化寺와 靈通寺 등에서 修道生活을 하였으며 宋나라에 들어가 永明寺와 國淸寺를 歷訪하며 高僧들에 師事하였다. 歸國하여서는 여러 寺院에 任釋하며 講學과 教化로 顯宗 4 年에는 王師가 되었다. 89 세인 同 9 年 (1018)에 原州 賢溪山 居頓寺에서 入寂할 때 圓空으로 諡號를 내리고 塔名을 勝妙라 하였다. 碑는 入滅 7 年후인 1025 年에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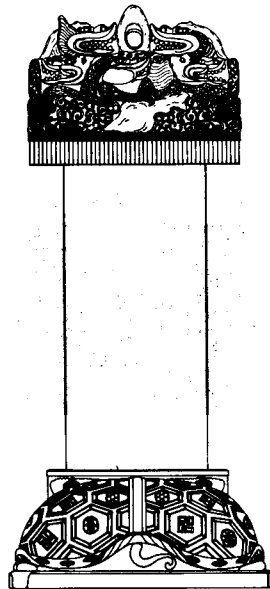
碑文은 고려 文宗때의 海東孔子라 불리우던 崔沖이 짓고 글은 金巨雄이 썼다. 碑殿은 장대석 외벌대로 쌓은 낮은 壇위에 마련하고 후면 산기슭에는 石築을 쌓아 단장되었다. 근래에 세운 國譯碑가 碑 옆에 따로 세워져 있다. 實測에서 나타난 細部事項을 樣式史的인 考察을 곁들여 살펴보고저 한다.



정 면 도



측 면 도



배 면 도

龜 趺

地臺石과 귀부가 거대한 單一石으로 造成되어 있다.

龜頭는 목을 치켜세워 直立한 전면 直視形의 자세로 거의 水平線上을 응시하고 있다. 얼굴 전체의 '생김새(形容)'는 方形으로 이마 부분이 뒤로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고 양볼이 평평히 펴져 있어 살찌고 순후한 龍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뿐 아직 神龜化한 모습은 아니다 平薄한 두눈의 눈동자는 희미한 안개속에서 들어나듯 편안히 쉬고있는 모습이다. 다른 碑의 귀부에서 특 불그러져 튀어나온 눈에 부리부리한 眼球로 무섭게 노려보는듯한 모습을 한것과는 다르다.

양 눈섭고리가 치켜 올라갔고 평탄한 이마위의 頭頂엔 뿔과 같은 突起가 솟아

있다. 입은 다물었으나 윗니는 들어나 보이고 입바퀴 부위에선 짝 물고있는 위, 아래턱 어금니와 섬약해진 鬼齒를 살짝 드러내 보인다.

입바퀴는 크게 발달하여 귀를 완전히 감주고 목덜미 뒤에까지 부채살 퍼듯 넓게 벌어져 있다. 펼친 부채살엔 힘살이 放射線狀으로 퍼져 있다. 上代 동물인 공룡이라던가 파충류의 입가 지느러미 또는 오리발의 물갈퀴 같은 모습이다



龜趺前面狀



龜趺側面狀

이런 입바퀴를 한 龜趺가 9세기 寶林寺 普照禪師 창성탑비(844)에서 부터 보이며 鳳林寺 眞景大師塔碑(923) 高達寺址 元宗大師碑(975) 奉先弘慶寺碑碣 등 고려초기의 귀부에 자주보인다. 그러나 입바퀴의 宏闊함이 모든 碑보다 훨씬 크게 강조되었고 힘살 자체는 고달사지나 홍경사비와 같이 굵고 힘찬 모습이 아니다.



龜頭의 입바퀴

입을 다물고 있는 龜頭도 9세기 塔碑인 月光寺 圓郎禪師碑나 禪林院址碑 등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시기에 입을 벌리고 여의주를 문 형상의 귀부가 더 많은 편임으로 이런 두가지 계통으로 분류해 볼 수도 있지않나 여겨진다.

목을 치켜세우고 앞발을 약간 벌려 일어서려는 자세를 취한듯 하여 몸체의 幅에 비해 龜體가 약간 높은 편이다. 고달사지 원종대사비등 차분히 갈아앉은 듯한 다른 귀부들과 비교된다.

목줄기는 여러겹의 주름을 접어 흘러내리고 바닥부분엔 菱形으로 주름잡힌 腹甲이 4겹이나 깔려 배를 띄운듯 하다.

앞발을 넓게 벌려 龜甲先端으로서리에 발가락을 살짝 내보이고 있다. 앞발의 발가락은 4爪가 들어나 있고 뒷발은 甲衣周緣에 살며시 덮혀 가장자리 일부만을 드러내 보인다. 웅크리고 있는 앞발에서 보면 초기 귀부에서와 같이 굵은 마디나 날카로운 생동감이 없다.

石造龜趺가 등장한 이래로 그 형식발달 과정으로 본 龜頭는 初期엔 거북(龜)을 충실하게 모사하여 순수한 龜頭形이었다.(太宗武烈王陵碑(661)를 비롯한 慶州地方의 古碑들, 實相寺證覺大師癡癡塔碑등(7세기후반). 統一期에 들어 점차로 龍頭化 되어 直立하고 더 시대가 내려오는 9세기부터는 환상에 젖은듯한 龍頭가 되었고 다시 獸頭化하여 鰲首形등의 형상을 갖게도 되었다. 이 塔碑의 龍頭는 기본적으로는 龍頭를 나타내고 있으나 점차 獸頭化 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시기의 다른 龜趺에 비하여 아직 순수한 龍頭狀이다.

귀부의 실측치는(표 21)와 같다.

(表 21)

龜 趺 實 測 值

단위 : mm

| | | | |
|-----|---|--|---------------------------------------|
| 地臺石 | 길이(南北方向) 높이(평균) | 2,499 180 | 幅(東西方向) 2,299 |
| 龜 甲 | 길이(몸체) (머리끝까지) 높이(지대~정수리) " (지대~비좌상면) " (지대~목뒤구갑) | 2,420 2,820 1,200 849 800 | 幅(東西長) 2,145 |
| 龜 頭 | 全高 全幅 길이(南北方向) | 581 692 620 | |
| 碑 座 | 길이(長邊) 上 下 右端 前面 左端 높이 右端 後面 左端 | 1,546 1,581 248 222 258 212 | 幅(短邊) 上 630 下 655 中央 44 " 57 |

龜 甲

시원스럽게 큰 六角形으로 짜인 重廓龜甲文 內區에 卍字와 寶相花紋을 交互 배치하였고 龜甲文을 이룬 界線은 굵은 陽刻線으로 두드러져 區劃하고 角形을 정확하게 六角으로 이루었다. 두꺼운 突帶界線안에 다시 굵은 띠를 둘러쳐 각 모서리 隅角에는 마디를 엮은 內線으로 둘러쳐 각개의 龜甲은 三條線으로 이루어졌다.

이 三條線의 굵기가 모두 같은 두툼한 半圓形 陽刻線인 까닭에 매우 雄健해 보인다. 龜甲의 外緣 즉, 甲衣 周緣에는 6cm幅의 띠를 둘러대고 여기에 작은 寶花紋을 새겨 넣었다. 龜甲의 등 中央에서는 長方形의 碑座를 두고 碑身을 세웠다.

碑座의 뒤 능선부에 굵게, 등줄기를 나타내는 隆起突帶가 龜尾를 향해 뻗어 내렸다. 龜甲文은 등줄기를 중심으로 양편이 對稱되어 있다.

등줄기는 三道를 형성하였다. 가운데에 약간 솟아오른 8cm幅의 넓은 띠 양편에 3.5cm 씩 좁은단을 둔 線刻으로 홀려내려 바닥에 닿을 즈음하여 뒤집혀진 甲衣속에서 꼬리를 드러내놓고 있다. 꼬리는 끝을 휘감아 돌려 생동함을 보여준다.

龜甲衣 周緣은 목부분과 네발 부근에서 자락이 들려 뒤집혀 보인다. 龜甲文內 바탕에 새겨진 卍字紋은 각 획의 끝을 다시 두번꺾은 卍形字로 되었으며 花紋은 가운데 花心(혹은 子房)을 둔 8瓣花紋이다.



龜背部의 모습

또 碑座후면 龜背복판에는 두꺼운 王子紋이 등줄기 양쪽에 1字씩 배치 되었다. 이렇게 크고 호방한 三條式 重廓으로 된 龜甲은 고달사지 원종대사비(975)와 흥법사지 眞空大師碑(940) 등 原城과 驪州地方의 高麗初 귀부에서 볼수 있으나 前者는 線區內 민무늬로 다른 장식이 없으며 後者는 卍字와 花紋이 있음은 같으나 六角의 甲文이 보다 작다.

高麗期의 다른 碑들도 甲紋이 적고, 淺刻되었고, 작은 花文과 글자등의 장식이 雜多하여 나약해 보인다.

前代인 統一新羅期의 귀부를 보면 初期엔 龜甲全體에 長方形 六角으로 하여 그 內部에 三重, 四重의 重疊刻出하고 다소 深刻한 편인데, 統一期後半에는 龜甲文形이 자유롭게 변화, 多樣해지면서 內區에 花紋, 王字紋등을 淺刻하는 경향이 있더니 10세기말로 부터는 이 碑와 같이 重厚한 龜甲文이 나타났다가 그후 다시 細分化 되어짐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龜甲文細部



碑座에 새긴 眼象과 귀꽃

碑座

碑座는 龜의 복판에 長方形으로 자리잡았다.

上平한 基座의 사면둘레에는 4cm의 테를 두르고 그 아래턱을 한번접어 四面엔 眼象을 내어 귀꽃을 새겼다.

眼象은 統一新羅時代 이래의 일반적인 안상형을 그대로 보이며 그 內區를 平坦하게 다듬고 귀꽃을 새긴 모습은 연곡사 玄覺禪師塔碑(979)나 현재 경복궁에 이 건된 淨兜寺址 五層石塔(1031) 下層基壇面石에 새겨진 眼象內 귀꽃문양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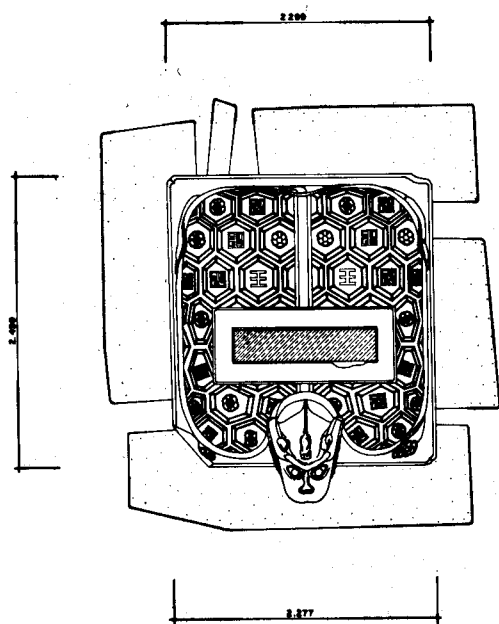
碑 身

大理石을 水磨하여 前面에만 碑文을 새겼다. 碑身の 크기는 넓이 123.8 cm, 두께 27.6 cm, 높이 261 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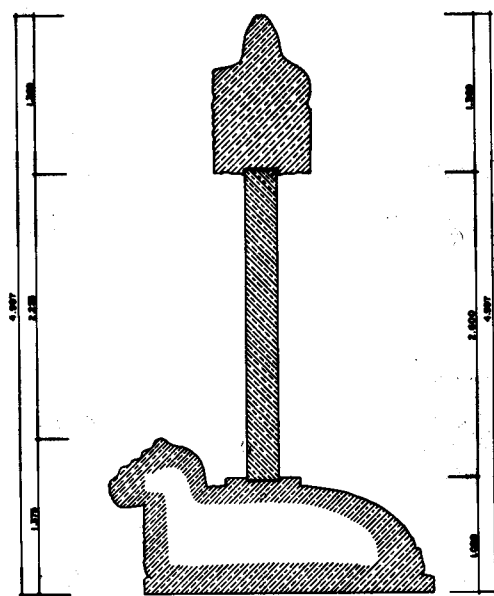
碑身머리 中央에 「贈諡圓空國師 勝妙之塔碑名」이라 從으로 두자씩 6行을 써서 題額으로 하였다. 字徑은 5.6×7 cm 각의 굵은 篆書體로 새기었다. 碑文은 字徑 1.8cm의 반듯한 楷書體로 38行 76字 총 2,888字를 碑面에 가득채워 있을뿐 다른 彫飾은 없다.

碑陰과 碑身양측면에도 장식없이 細磨한 表面에 石理만이 노출되어 보인다. 碑題는 「高麗國 原州 賢溪山 居頌寺 故 王師慧月光 天遍昭至覺智滿圓默寂然普化大禪師 贈諡圓空國師 勝妙之塔碑銘 并書」로 시작되며 崔冲이 撰하고 金巨雄이 書并篆 했음을 刻記하였다.

碑身の 上下에는 碑座와 螭首에 꽃아 固着시킬 축이 同造되었을 것이나 堅立된 상태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승묘탑비 전면 실측도



승묘탑비 단면 실측도

螭首

碑身위에 길이 182.3cm, 幅 91cm 정상부까지의 높이 130cm의 거대한 螭首가 올려져 있다. 이수의 下邊둘레에는 넓은 주름을 연속배치하여 휘장막을 둘러 놓은 듯한 띠를 둘러대었다. 이 垂直集線帶의 높이는 20.8cm이며 가는 幅의 花文帶를 다시돌려 上端을 마무리 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는 가득한 구름속에 두마리 龍이 浮彫되었다. 前面 中央에 題額을 써넣어주는 方額과 圓輪火焰으로 둘러진 여의주가 두 龍 사이에 彫飾되어 있다.

碑額을 篆刻하기 위해 額方은 반듯하게 細磨된 판이 있을뿐 글자를 새겼던 흔적은 없다. 空인 板의 윤곽은 二段의 角과 內曲한 弧로 구성된 세겹 테두리를 돌리고 그 외곽에 다시 單葉蓮華文帶를 돌려서 요즈음 市中の 액자와 같다. 額의 양편에 對座한 한 쌍의 龍은 몸과 머리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꿈틀거리는 몸의 비늘과 톱니같이 날카로운 이빨에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측면에는 한무더기 渦雲이 꽃송이를 이루듯 둥글게 뭉쳐진 위에 流麗해진 蟠龍一首가 前面쪽을 향하고 있다. 背面에도 滿雲속에 솟아난 두마리 龍首가 더욱 生動感있게 瑞氣를 발하고 있다.



螭首頂上部에는 한단계의 상부구조를 다시 造成하였다.

이수 전면에서 29cm 가량 뒤로 물려서 寶珠를 가운데 세워두고 雲間을 헤치고 솟아난 한쌍의 龍首가 더욱 사실화된 모습으로 對座해 있다.

커다란 눈과 치열사이에 번어난 鬼齒를 번득이며 瑞氣를 품고 있다.

螭首의 배 바닥은 周緣部에 좁은띠를 둔후 3cm 가량 파올려 絕水帶를 삼았다. 碑身의 四方 들레에는 蓮花文帶를 장식하여 휘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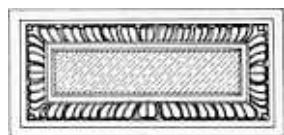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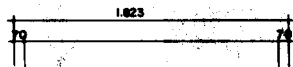
이 碑의 螭首는 대체적으로 고려시대 石碑 螭首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이나 彫刻이 사실적으로 섬세하고, 下邊에 새겨진 垂直集線帶의 莊嚴등은 다른 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特色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原城地方에 이웃해 있는 興法寺址 眞空大師塔碑나 高達寺址 元宗大師塔碑만큼 蟠龍結構가 深刻되거나 생동감 있게 조각되지 못하고 좀 나약해져 多少 圖式化된 感마저 느끼게 한다.

方額위에 火焰에 둘러쌓인 圓珠를 둔 예는 실상사 증각대사 응료탑비 (7세기 후반)에서 부터 미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달사지와 淨土寺 法鏡大師碑등에도 뚜렷하게 보인다.



螭首 頂上部의 모습



비 이수 양시도

또한 이수 頂上에 寶珠를 얹힌 例는 統一期에 쌍계사 진감선사비(887)에 보이며 쌍봉사 澈鑒禪師塔碑는 3개의 火焰寶珠가 있어 注目된다.

麗代에는 봉암사 지증대사탑비(924)와 정진대사비(965), 연곡사부도비 등에 獨立된 寶珠가 이수정상에 서있다. 特히 冥州郡의 普賢寺即圓大師碑(麗初)는 화려한 조각으로 치장된 寶珠가 돋보이며 大安寺廣慈大師碑(950)는 十字形火焰장식한 보주를 정수리와 兩端部에 하나씩 모두 3個나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 圓空大師 勝妙塔碑와 같이 정수리에 寶珠를 놓고 二匹의 龍首가 爭珠하듯 對立하고 있는 形의 이수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이 碑와 같이 龜趺와 螭首를 갖춘 樣式의 碑型은 三國統一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형성되었다. 이것은 唐碑의 형식이 傳來되어 模倣되었고 여기에 新羅에서 능숙하게 石物을 다루는 彫法과 造形意識이 加味되어 발전시켰다고 한다. 初期에는 보다 古典的인 형태를 갖추는 사실적 表現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나 9세기 이후에 들어와서는 사실적 表現에서 탈피하여 위엄있고 다양한 환상적 表現으로 변화하여 갔다.(6)

이렇게 변천된 統一新羅期の 石碑양식이 高麗時代의 여러石碑에 영향을 미쳤으며 朝鮮初期까지는 계속되었다.

또한 石碑에 龜趺를 표현하게 된 根源은 古代中國墓制의 四神圖 배치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며 우리의 옛 高句麗 古墳에서도 그 과정을 보인다. 즉 四神圖 壁畫에 나타난 玄武의 표현에서 由來되었음을 엿 볼수 있다.(7)

註(6) 李浩官: 統一新羅時代의 龜趺와 螭首(考古美術 154, 155호 合本)

(7) " " (")

6. 浮屠殿址


金堂址의 後崗, 현재 여러채의 민가가 자리잡고 있는 맨 뒷편 언덕 기슭에 작은 臺址를 造成하고 塔殿을 잡았던 遺構가 남아있다.

金堂 背面 기단으로 부터의 거리는 120 m, 金堂과 塔을 연결하는 中心軸으로 부터는 東쪽으로 37 m 가량 떨어져 있고 塔殿址 바닥의 標高는 金堂의 바닥보다 18.20 m의 相差를 보인다.

住民들의 證言에 따르면 여기에 浮屠가 있었으나 日政時(1910년대) 他處로 옮겨진 후, 황폐해졌다고 傳한다. 여기에 있었던 浮屠는 現在 景福宮 근정전 후원에 있는 寶物 第190號 圓空國師 勝妙塔이다. 同 塔碑는 지금도 160 m 가량 떨어진 寺址 東側에 남아있다.

塔殿은 民家뒤 발위에 약 1 m 정도의 石築쌓아 平土된 자리에 臺地를 이루었고 塔이 있던 자리 주위에는 細工된 長台石으로 方形 基壇을 이루었음을 남은 石列로서 파악할 수 있다. 塔區의 西邊과 北邊엔 가즈런히 놓여있는 石列이 그대로 露出되었고 東쪽과 南쪽에서도 윤곽을 짚을수 있는 위치에 각 1 편씩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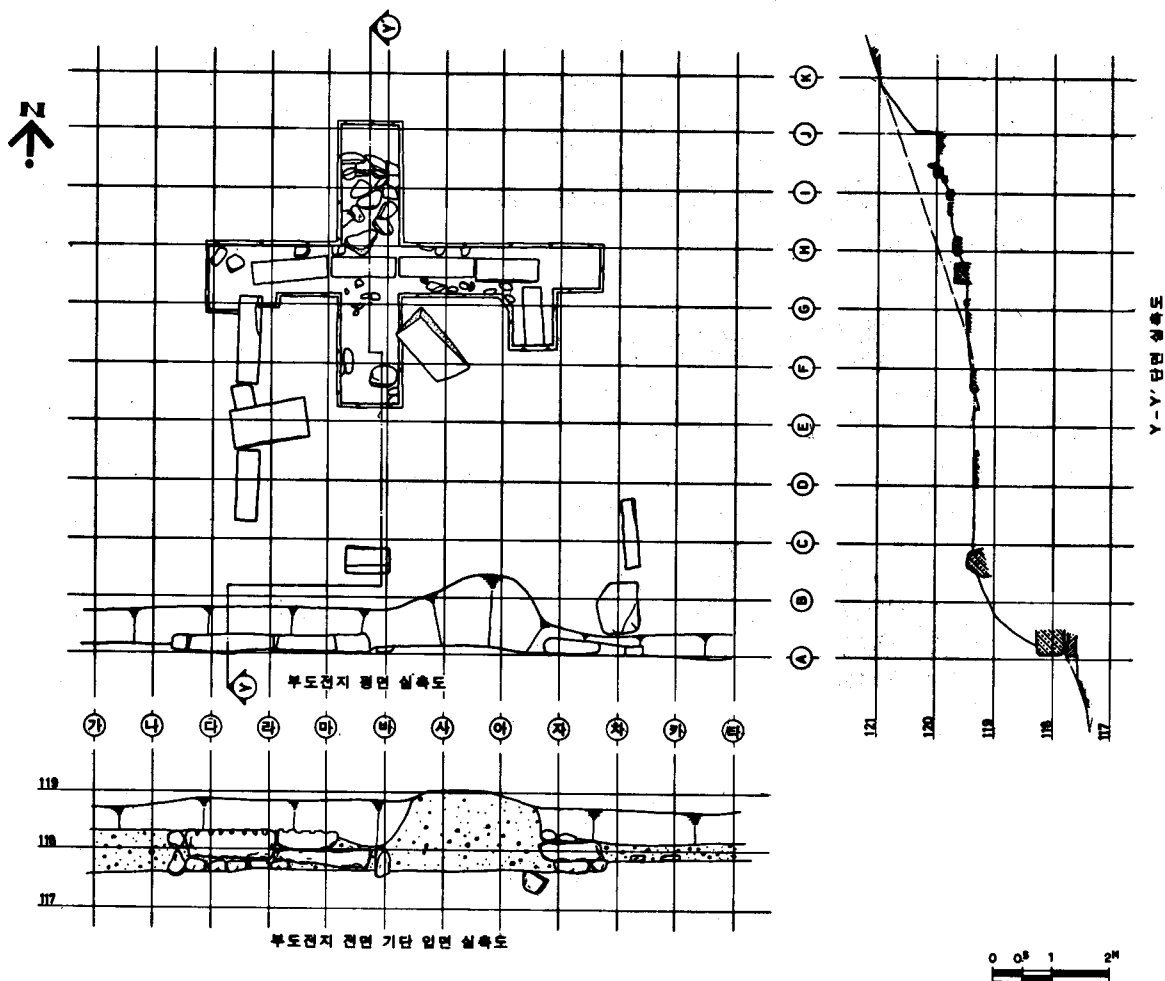
石列이 다소 이완되고 결실되어 있으나 塔區의 규모는 1邊長 4.9 m의 正方形으로 파악된다. 또한 塔區內에 地臺石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加工石 2개가 있다. 추정 지대석의 규격은 길이 1,300 mm 높이 650 mm 높이 375 mm로 上面과 3面 둘레가 곱게 다듬어졌고 배면과 밑바닥만이 粗惡한채로 있다.

이 두개의 돌을 나란히 집합해 놓는다면 1.3 m 方形이 되어 勝妙塔의 下台底邊 1.35 m보다 5 cm가량 적게 됨으로 이 돌이 地臺石인 것이 확실하다면 아마도 네 귀를 서로 엮물린  狀으로 배열하고 그 위에 浮屠塔을 올려놓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나머지 臺石은 발견되지 않는다.

塔區의 北쪽 후면 石列로부터 75 cm 가량에 背山 기슭을 흠막이 石築을 설치하였던 築石列이 드러났다. 그 基址石과 두단층의 石列이 확인되고 위부분은 붕괴되어 石築 前方에 흐트러져 있다.

塔殿 前方의 石築도 커다란 自然石과 거친 돌을 사용 축조되었다. 石築의 양단

이 殘有하나 中央부분이 붕괴되어 있다. 붕괴된 중앙부에 塔殿에 오르는 石階가 부설되었던듯 추측된다. 이 石築의 西端部는 큰 岩石을 切斷할때 사용한 켜기홈 자국이 위 아래에 남아있는 대형 석재로 쌓아져 있는데 이들은 아마도 後築한 것으로 판단된다.



塔殿址의 平面 및 斷面



塔殿가의 基壇石과 그 內區에 일부 묻혀있는 돌이 地臺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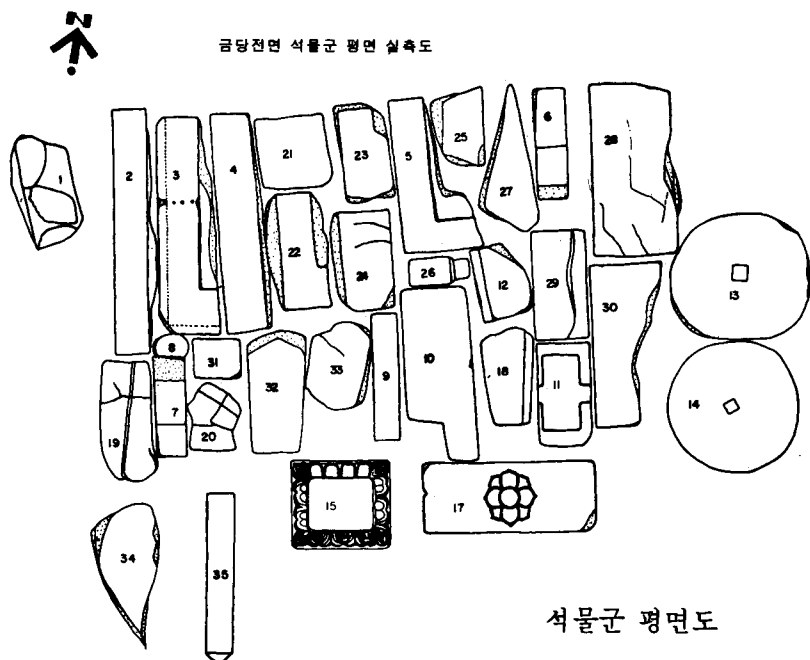
塔殿 前面의 石築

7. 金堂前面의 石物

金堂 前庭 三層石塔 西便에 群集된 일단의 石物群은 寺址內에 散在하였던 것을 1984 년도 정비공사 當時 한 곳으로 옮겨 모은 것이다.

여기에 모아진 총 35 개의 石物은 基壇石, 階段隅石, 門信枋石, 眼象刻한 臺石, 기타 平板石, 長台石 등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대부분 破損된 石材이다.

그 中에는 본래의 完形된 모습을 보이는 拜禮臺石과 蓮花臺石, 紋樣石(竿石 혹은 身石) 및 2 개의 圓盤形石(⑬, ⑭ 번석), 舊形 文化財標石등이 포함되어 있다. 基壇石 中에서 面石과 甲石으로 區分해 볼 수 있으며 甲石은 金堂 基壇 甲石과 같이 外面 下端部를 圓弧 Molding(쇠시리) 加工한 것과, 上部內側을 따낸 形의 甲石이 있다. 또한 甲石形도 外面과 上面만을 治石한 것과 마구리面까지 治石되어 CORNER 用임을 判別할 수 있는 甲石도 발견된다 ③. ⑤번석은 下部 쇠시리 없는 코너甲石이다. 그러나 쇠시리 넣은 크기가 金堂甲石보다는 작고 정교하지 못하여 金堂以外 他建物の 甲石인듯이 보인다. 基壇面石 또는 地臺石用의 長台石도 片面 加工된 것과 마구리面까지 治石된 코너形으로 區分된다. 平滑한 基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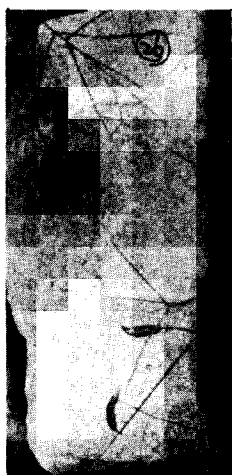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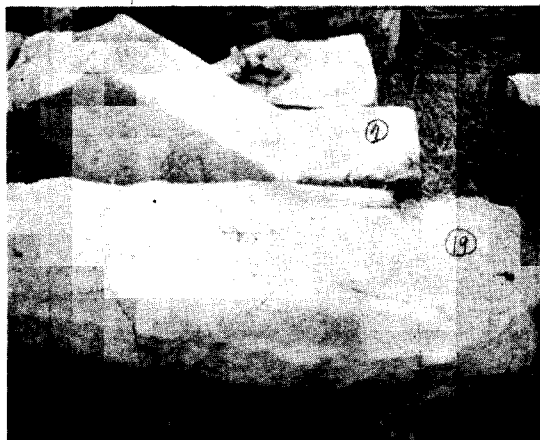




面石 破材로 볼 수 있는것이 ㉔, ㉕, ㉖ 등이다. 계단 소대석의 先端破材가 두개 인데 그 規格과 象眼의 형상으로 보아 金堂隅石이나 三層石塔에 부설된 方壇隅石과는 다르므로 다른 建物基壇에 使用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㉗, ㉘. ㉙, ㉚石도 側面에 二條의 陰刻線이 있고 파손상태가 심하여 정확하게 判別할 수는 없지만 계단 소대石의 破材로 보인다.

㉛번材는 四角柱形 石物로 材長의 1/3가량을 四面에서 따내고 따낸 面모서리를 둥근모로 처리하였다. 立柱로 使用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南新羅 初期의 組立式 石階隅石 先端에 세워지던 法首石과도 비슷한데 (감은사지 등) 거둔사지에는 그런 類型의 隅石이 없다.

⑩번 상부 十字形 加工石은 門信枋石등과 같은 형상이어 이 한 점만으로서 단정하기 어려우나 넓은 쪽의 바닥面이 金堂礎石에 同造된 고맥이 副座幅과 거의 같은 幅을 보인다. ①번 眼象刻한 石片은 치장된 臺座 또는 礎石으로 그 用途는 不明이다. 이상에 보인 石物群을 일람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表 22)



(表 22)

삼층석탑 주위석물 일람표

| 도번 | 규격(%) | 형상 | 가공상태 | 추정용도 |
|----|-------------------|-----|---------------------------------------|---------------|
| 1 | 450 × 530 × 640 | 장방형 | 안상새김, 잔다듬 | 하대석 |
| 2 | 360 × 365 × 2,100 | " | 1면 가공, 배면 쇠시리, 고운정 다듬 | 기단석 |
| 3 | 245 × 500 × 1,870 | " | 2면 가공(코너), 고운정 다듬, 하부 및 배면 쇠 시리 | 기단갑석 (코너석) |
| 4 | 220 × 400 × 1,900 | " | 1면 가공, 고운정 다듬, 하부 및 배면 쇠시리 | 기단갑석 |
| 5 | 255 × 640 × 1,300 | " | 2면 가공(코너), 고운정 다듬, 배면 쇠시리 | 기단갑석 (코너석) |
| 6 | 265 × 255 × 960 | " | 측면(1면) 쇠시리, 고운 정 다듬 | 계단소맷돌 |
| 7 | 270 × 465 × 505 | 정방형 | 측면(1면) 쇠시리, 고운 정 다듬 | 계단소맷돌 |
| 8 | 180 × 320 × 245 | 타원형 | 측면 및 상부 배면 쇠시리, 고운정 다듬 | |
| 9 | 215 × 220 × 1,100 | 장방형 | 2면(전·후면) 가공, 고운정 다듬 | 기단석 |
| 10 | 290 × 580 × 1,450 | " | 2면(전·후면) 가공, 고운정 다듬 | 기단석 (면석) |
| 11 | 175 × 460 × 890 | " | 十字形 上面돌출 가공, 잔다듬 | ?門址石 |

| 도번 | 규격(%) | 형상 | 가공상태 | 추정용도 |
|----|---------------------|-------|-------------------------------|----------------|
| 12 | 225 × 450 × 610 | 장방형 | 1면 가공, 상부 전면 쇄시리, 잔다듬 | 기단갑석 |
| 13 | 225 × 1,090 × 1,220 | 원형 | 중앙사각구멍, 고운정 다듬 | 원형판석 |
| 14 | 350 × 1,125 × 1,125 | " | 중앙사각구멍, 고운정 다듬 | 원형판석 |
| 15 | 345 × 470 × 550 | 장방형 | 정면 보화무늬 새김. 양측면 안상內 귀꽃 새김. | 좌대간석 (신석) |
| 16 | 220 × 750 × 860 | " | 사면 연화무늬 새김, 잔다듬 | 연화대석 |
| 17 | 312 × 600 × 1,400 | " | 4면 안상內 귀꽃새김, 윗면 연화무늬 새김. 잔다듬 | 배례대석 |
| 18 | 220 × 420 × 830 | " | 상부 배면(1면) 쇄시리, 고운정 다듬 | 기단석 (기단지대석) |
| 19 | 305 × 450 × 930 | " | 상부면 줄무늬(2줄), 고운정 다듬 | ? 계단소맷돌 |
| 20 | 240 × 480 × 600 | 마름모형 | 하부면 줄무늬(2줄), 고운정 다듬 | ? 계단소맷돌 |
| 21 | 230 × 600 × 600 | 정방형 | 3면 가공, 고운정 다듬 | 기단석 |
| 22 | 300 × 400 × 1,000 | 장방형 | 1면 가공, 고운정 다듬 | 기단석 |
| 23 | 250 × 420 × 800 | " | 고운정 다듬 | 기단석 |
| 24 | 330 × 450 × 860 | " | 2면 가공, 고운정 다듬 | 기단석 (코너기단석) |
| 25 | 360 × 360 × 660 | 사다리꼴형 | 1면 가공, 고운정 다듬 | 기단석 |
| 26 | 245 × 270 × 520 | 정방형 | 상면돌출, 둥근 쇄시리, 하면 사각돌림, 고운정 다듬 | ? 계단법수석 |


| 도번 | 규격(%) | 형상 | 가공상태 | 추정용도 |
|----|-------------------|-----|-----------------------|---------------|
| 27 | 290 × 460 × 1,240 | 삼각형 | 상부면 마모됨. 고운정 다듬 | 기단석 |
| 28 | 220 × 700 × 1,500 | 장방형 | 2면 가공, 상부면 마모, 고운정 다듬 | 기단석 (기단면석) |
| 29 | 150 × 460 × 950 | " | 1면 가공, 상부면 마모, 고운정 다듬 | 기단석 (기단면석) |
| 30 | 240 × 600 × 1,400 | " | 2면 가공, 배면 마모, 고운정 다듬 | 기단석 (기단면석) |
| 31 | 280 × 330 × 420 | " | 2면 가공, 고운정 다듬 | 기단석 |
| 32 | 330 × 470 × 1,050 | " | 4면 마모됨, 고운정 다듬 | 기단석 |
| 33 | 220 × 500 × 690 | " | 1면 가공, 고운정 다듬 | 기단석 |
| 34 | 570 × 550 × 1,100 | 삼각형 | 4면 마모됨, 고운정 다듬 | |
| 35 | 160 × 240 × 1,450 | 장방형 | 상면 글자 새김, 고운정 다듬 | 구표석 |



門信枋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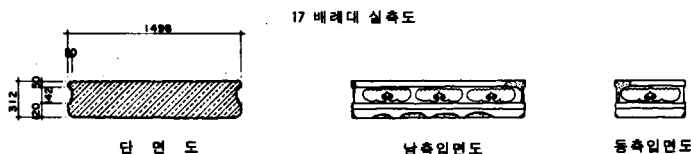
1) 拜禮臺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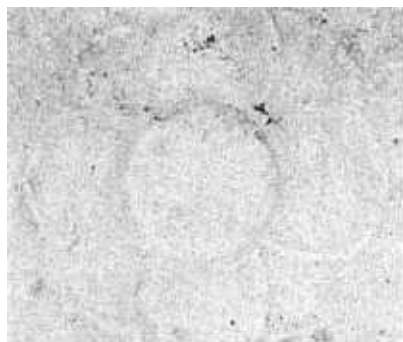
현재 三層石塔 옆의 破石材 무더기 前面에 놓여있는 拜禮臺石의 본래 위치는 未詳이다. 이 臺의 크기는 길이 1,498 mm, 넓이 590 mm, 두께 312 mm로 되어있다. 上面바닥을 細磨하여 곱고 거울같이 반들거리는 床面 中央에는 커다란 蓮花를 도드라지게 陽刻하여 배치하였다. 이 연화조식은 單瓣四葉으로 간결하게 새겼으며 四葉의 사이에 間葉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中央의 圓形花心에도 아무런 치장없이 둥그런 圓球가 도톰하게 솟아올랐다. 바닥 네귀中 두곳이 파손 탈락되었고 전체적으로 堅實하다. 側面은 上下端에 테두리 띠를 두르고(甲石緣과 같이) 가운데에 細長한 眼象을 陰刻하였다. 眼象은 前後면에 3개씩, 兩側面에는 1개씩 배치하였으니 眼象바닥 中央에는 立飾花된 귀꽃을 하나씩 새겼다.

眼象 형태는 羅末麗初의 時期의 石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眼象 머리 형상이 중첩된 山形을 이루고 있다.

上端部 테두리 띠의 幅은 50 mm, 下部 테두리 돌림도 50 mm 가량을 精巧하게 가공 治石하였고 그 下部는 거친 다듬으로 하였다.

이와같은 형태의 拜禮臺는 高達寺址 逸名 塔殿의 石燈 앞에도 놓여있으며 보통 佛塔이나 佛堂앞에 놓여 參拜客들의 拜禮에 便利하게 한다. 이 拜禮臺의 本來位置는 알 수 없으나 復元 淨化의 차원에서 본다면 三層石塔 前面에 두어도 無放할 것 같다.





拜禮臺石 上面蓮花文



拜禮臺 東側 眼像

2) 蓮花座臺와 身石(竿石)

三層石塔의 破石材 무더기 前面에 拜禮臺와 함께 나란히 놓여있는 石物이다. 臺石과 身石 두덩이의 加工石이 상, 하로 놓여있다. 이 두덩이의 돌이 현재 놓여진 狀態대로의 제물인지, 아닐까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臺石頂部 고임座의 크기와 身石의 底面이 거의 일치하여 있고 上下材의 紋樣彫飾이 方向에 따라 걸맞게 되어있으므로 보아 제자리를 찾아 놓여진 것으로 보여진다.

아래돌은 伏蓮座를 두른 蓮花臺石이다. 臺石의 크기는 長 860 ㎜, 廣 750 ㎜의 直四角形 형태의 矩形 평면에 높이는 225 ㎜이다.

地面에 접한 下半部는 垂直加工面을 보이고 上부분에 伏蓮을 彫飾하였는데 蓮花의 모양과 배치상태가 四面 모두 다르다. 지금 놓여있는 狀態에서 南쪽은 5個의 蓮瓣을 배치하되 兩隅部에 1개씩 하고 中間에 3개를 배치하고 單葉으로 된 蓮瓣內區에 화려한 花紋을 새겨 넣었다.

위에 올려져 있는 身石에 彫刻된 寶花 및 花雲 장식문양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前面) 南側

東側 西側



背面 北側



東・西 兩側面 臺座는 復葉二瓣이 가운데 배치되고 양쪽 귀에는 前後面의 花紋蓮花가 그대로 보인다. 이 東西面 身石은 커다란 眼象을 파내고 立飾花形의 귀꽃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背面 즉 北쪽을 向한 面의 身石面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다.

또한 臺座의 伏蓮瓣도 양쪽 隅角部에 花紋있는 蓮瓣 사이에 단출하고 細長한 單葉 四瓣이 단조롭게 배치되어 있다.

이 臺座와 身石을 組立한 合成品이 무슨 用途의 石物인지 알 수 없지만 方向性을 가지고 각 面마다 治裝彫飾을 달리하였다는 것에 매우 흥미를 느낀다. 臺座의 上端部엔 身石받침을 위한 괴임이 있는데 이 괴임部の 下邊은 蓮花座를 약간 둘러대었다.

方向에 따라 身石 治裝이 달라졌고, 또한 그에 따라 臺座石의 蓮瓣紋樣과 蓮瓣數를 달리하였음은 그 본래의 의도를 헤아리기 어렵다.



지금 二石만이 남아있고 다른 部材가 없어진 상태에서 완전한 형상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露臺(露柱下臺石) 또는 佛座臺등의 部分材가 아닌가 생각된다.

8. 民家에 옮겨진 石物

흥은식宅 外 12채의 民家 内部에는 寺址에서 옮겨다 놓은 石物들이 다수 있다. 주로 집을 지으면서 기단(죽담) 축조와 주초석, 장독대, 마당의 디딤돌, 우물가의 부석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돌의 元來의 用途도 대체로 기단石 또는 礎石 등이었다.

12 개호 민가중 1 점씩만이 있는 집은 두 집 뿐이고 나머지는 1 戶當 10~20 點의 石物이 있다. 이들 石物들은 대체로 長方形으로 된 민무늬 加工石으로 기단석이나 步石등이 많으며 몇점만이 細工된 Molding (쇠시리)과 彫刻이 들어간 石物이다. 장대석 등 기단石의 규격은 몸체 30×45 cm, 길이 80~196 cm 사이에 있으며 表面 加工狀態는 고은정 다듬에서 잔다듬으로 治石되어 있으며 형상이 거의 균형잡혀 있다.

개중에는 형상이 불균형하고, 파재도 있으며 50 cm 미만의 短材도 있다. 礎石은 ① 方形礎盤에 圓形柱座를 둔 것 ② 柱座없이 方形 또는 長方形 礎石 ③ 圓形礎石 ④ 圓形礎石에 蓮花彫飾한 것 등으로 大別된다. 圓形柱座를 둔 것은 金堂礎石과 같이 모두가 고목이 받침용 副座를 두었으며 2 方向副座일 뿐이고 直角方向이나 三方向 副座를 同造한 礎石은 없다.

쇠시리 加工 方法에서는 二段彫出한( 형과  형)이 발견된다. 圓形 礎石에 蓮花彫飾한 例로는 No. 84~86의 박성거氏宅 사랑채 礎石으로 사용되었으며 徑 40 cm 内外의 작은 돌 上面을 單葉 혹은 複葉蓮花帶로 돌렸는데 그 彫飾手法이 매우 조잡하다.

柱座를 쇠시리 加工한 礎石은 80 cm 内外에 큰 方形 또는 長方形 礎盤에 두툼한 운두의 쇠시리 加工을 하여 金堂址 등에서 볼 수 있는 類의 礎石이다.

안후봉氏宅의 No. 41 石物은 八角形으로 형성된 蓋石인데 이를 거꾸로 하여 柱礎石으로 사용하고 있다. 蓋石의 크기는 外徑(最大徑) 56 cm, 內徑(短邊) 30 cm, 地表上 높이 13 cm이며 屋蓋緣部の 안허리와 양곡들림이 약간 나타나고 처마 밑을 수평으로 하고 八角으로 형성한 각 面에 角과 內曲된 弧로 層段을 이룬것이

木造建物の 처마밑 부분을 模寫한 것과 같다.

이 石物은 작은 石燈등의 蓋石이나 塔婆등의 寶蓋石일 것으로 추정된다. 박병문 氏宅 우물가의 No.22 石物은 方形의 臺石으로 上面에 蓮花帶가 돌려져 있다. 뒤집어 볼 수 없어 上面을 확인한 바 없지만 크기와 형상으로 보아 臺座의 用途일 것으로 보인다.

또 同氏宅의 No.18번 長台石은 길이 133 cm, 넓이 30 cm, 높이 27 cm의 加工石으로 그 前面에는 上端에 물림턱을 내어 파낸 후 內面에 마름모꼴 重廓 線溝를 두 곳에 배치 陰刻하였다. 下端에도 二段角으로 테두리를 둘렀다.

또 上面에는 곱게 加工된 床面 中央에 작은 蓮葉 一瓣을 새겨 넣었다. 長台石을 이용 精巧하게 治石하고 彫刻을 넣은 것으로 보아 通常의 基壇石은 아니며 重要建物の 基壇石 또는 佛臺座 外緣등에 배치될 治裝石의 用途가 합당할 것 같다.

中心郭의 西便 논두렁에 모여져 있는 石物은 대체로 이 일대 耕作地에서 수습되어 集結해 놓은 石物이다. 논둑에는 多數의 瓦片과 土器片도 깔려져 있으므로 建물이 있었던 지역으로 쉽게 추정된다. 그러나 이곳의 地形은 여러段階로 層段을 이룬 논으로 연결되었고 논둑의 높이가 보통 50 cm이상 1.5 m까지에 이르고 있어 넓은 臺地를 確保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다만 金堂에서 똑바로 바라보는 西便과 推定講堂地 西便에만 建物터를 마련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바로 이 부근에 연결된 논둑에 集中的으로 石物이 있다.

여기에 보이는 石物들은 대체로 加工石과 자연석으로 대별된다.

加工石이라 할지라도 方形, 長方形, 楕圓形 등의 形態로 나눌 수 있으나 전체적인 형체가 불규칙하고 角과 線이 精巧하지 못하다. 治石 상태도 拙劣하여 대충 다듬은 모습이다. '이들 加工石의 용도는 礎石과 基壇石, 階段石, 步石, 臺石등일 것이며 그 規格이 각양각색이다. 特히 No.134, No.113, No.112, No.121, No.156 등은 大形石으로 형상도 거의 正方形 또는 長方形이고 운두도 높아 큰 규모 建物の 礎石일 가능성이 많다. 이보다 규격은 적지만 No.145, No.148, No.130, No.122, No.138 등도 형상이 바르고 30 cm 이상의 地表上 노출된 운두를 보이므로 좋은 礎石이 될 수 있다.

自然石형의 石物도 형상은 불규칙하나 材의 규격이 크고 材質도 좋아 礎石이나
기단석 보석 등으로 使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寺址의 성격상 金堂 西便의 耕地에
는 後苑 寮舍나 僧房등의 建物址였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礎石이나 礎石, 담장
地臺石 등을 治石안된 막돌로 使用함이 通例라 하겠다.

民家지역과 西便建物址의 石物 일람표를 다음과 같이 作成한다.



No 9. 고맥이 반침 副座를 同造한 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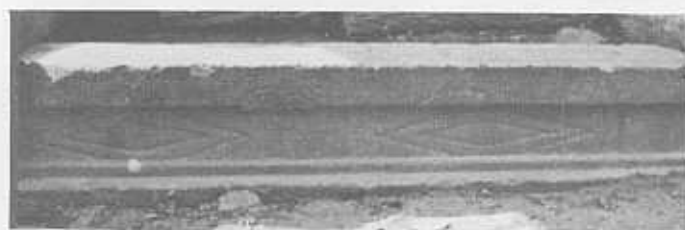
No 58. 박성거氏宅 礎石



No 84-86. 박성거氏宅의 圓形
蓮花影飾 礎石



No 41. 안후봉氏宅의 八角형 蓋石



No 18.
박명문氏宅의 加工長台石



No 22. 박명문氏宅의 臺座石

No 7. 홍은식氏宅의 잠대석



(表 23) 석 물 일 략 표

| 도번 | 규 격 (mm) | 형 상 | 가공상태 | 형태상특성 및 추정용도 |
|----|---------------|-------------|--------|--|
| ◎ | 홍 은 식 씨 댕 | (1 ~ 14) | | |
| 1 | 300 × 1,890 | 장 방 형 | 고운정 다듬 | 上面가공, 배면모점은 쇠시리 밑 흑두기가공, 기단석 |
| 2 | 305 × 1,810 | " | " | 上面및 3 면가공, 전면 우측 모점은 쇠시리 기단석 |
| 3 | 295 × 1,510 | " | " | 上面가공, 기단석 |
| 4 | 585 × 770 | 정 방 형 | 잔 다듬 | 上面및 4 면가공, 주초석 |
| 5 | 365 × 615 | 장 방 형 | 고운정 다듬 | 上面우측 모점은 쇠시리및 좌 측상부면 뾰족하게 돌출, 기단석 |
| 6 | 170 × 735 | " | " | 上面측구멍, 2 면가공 기단석 |
| 7 | 295 × 1,015 | " | " | 정면 우측에서 배면으로 ㄷ자형 구멍 뚫림, 기단석 |
| 8 | 225 × 480 | " | " | 기단석의 일부파재 |
| 9 | 780 × 875 | 정 방 형 | 잔 다듬 | 사각반침석위 2단쇠시리의 원형 초석, 평행한 이방향고맥이, 상 부면마모, 원형주초석 |
| 10 | 240 × 1,075 | 장 방 형 | 고운정 다듬 | 각면이 마모됨, 기단석 |
| 11 | 325 × 1,400 | " | " | 상부면 모점은 쇠시리, 4 면가 공, 기단석 |
| 12 | 500 × 820 | " | 잔 다듬 | 上面 평편한 타원형 주초석. |
| 13 | 255 × 1,470 | " | 고운정 다듬 | 上面및 4 면가공, 기단석 |
| 14 | 325 × 2,285 | " | " | 상부배면 모점은 쇠시리밑 흑두 기가공, 기단석 |
| ◎ | 박 병 문 씨 댕 | (15 ~ 25) | | |
| 15 | 1,060 × 1,060 | 정 방 형 | 잔 다듬 | 2 면파손 上面평편, 하부면 연 화부늪새김, 원형초석. |
| 16 | 365 × 1,245 | 장 방 형 | 고운정 다듬 | 상부배면 모점은 쇠시리, 4 면 가공, 기단석. |
| 17 | 260 × 1,180 | " | " | 4 면가공, 기단석. |
| 18 | 220 × 1,335 | " | " | 상부배면 모점은 쇠시리, 상면에 마름모꼴초를 새김, 기단석. |
| 19 | 340 × 1,550 | " | " | 4 면 마모됨, 기단석. |
| 20 | 325 × 1,485 | " | " | 4 면 마모됨, 기단석. |

| 도번 | 규격 (%) | 형상 | 가공상태 | 형태상특성 및 추정용도 |
|----|-------------|---------|-------|--------------------------------|
| 21 | 325 × 1,350 | 장방형 | 고운정다듬 | 배면상부 물림턱, 상부면평편, 4면마모됨, 기단석. |
| 22 | 320 × 1,100 | " | " | 상면 역화부늪새김, 전·후면 모 접은 쇠시리, 기단석. |
| 23 | 310 × 2,880 | " | " | 상면평편, 일부마모, 기단석. |
| 24 | 330 × 3,600 | " | " | 上面및 각면가공, 기단석. |
| 25 | 500 × 1,600 | " | " | 좌측면마모, 상면평편, 상부배면축구멍, 기단석. |
| ◎ | 이성실씨댁 | (26) | | |
| 26 | 450 × 800 | 장방형 | 잔다듬 | 上面평편, 삼면가공, 일면마모됨, 주초석. |
| ◎ | 윤창섭씨댁 | (27) | | |
| 27 | 360 × 500 | 삼각형 | 잔다듬 | 삼각형형상 4면가공, 주초석. |
| ◎ | 박병남씨댁 | (28~35) | | |
| 28 | 255 × 1,035 | 장방형 | 고운정다듬 | 上面및 4면가공, 기단석 |
| 29 | 230 × 1,595 | " | " | 각면마모됨, 기단석 |
| 30 | 265 × 1,595 | " | " | 중앙면마모, 4면가공, 기단석 |
| 31 | 240 × 1,020 | " | " | 각면가공, 기단석 |
| 32 | 450 × 500 | 삼각형 | 잔다듬 | 삼각형형상 4면가공, 주초석 |
| 33 | 215 × 550 | 장방형 | 고운정다듬 | 3면마모됨, 기단석 |
| 34 | 320 × 1,960 | " | " | 上面좌측, 직사각형 홈구멍, 4면마모, 기단석 |
| 35 | 260 × 1,820 | " | " | 4면마모됨, 기단석 |
| ◎ | 안후봉씨댁 | (36~53) | | |
| 36 | 270 × 840 | 장방형 | 고운정다듬 | 上面좌측 등근모를 형성 4면가공, 기단석 |
| 37 | 500 × 675 | 정방형 | 잔다듬 | 상부면 평편 4면마모됨, 주초석 |
| 38 | 590 × 820 | 반원형 | " | 반원형상태, 상부면평편, 주초석 |
| 39 | 325 × 1,345 | 장방형 | 고운정다듬 | 상면평편, 4면마모, 기단석 |
| 40 | 215 × 1,200 | " | " | 4면마모됨, 기단석 |
| 41 | 430 × 560 | 팔각형 | 잔다듬 | 3단팔각주초석, 팔각면가공 |

| 규격 | 규 격 (%) | 형 상 | 가공상태 | 형태상특성 및 추정용도 |
|----|-------------|-------------|--------|---------------------------------|
| 42 | 205 × 890 | 장 방 형 | 고운정 다듬 | 배면물림턱, 4면가공, 기단석 |
| 43 | 270 × 1,785 | " | " | 상부면평편, 배면마모, 4면가공, 기단석 |
| 44 | 140 × 1,410 | " | " | 4면마모, 기단석 |
| 45 | 420 × 1,195 | " | " | 上面및 4면가공, 기단석 |
| 46 | 428 × 2,035 | " | " | 上面가로두줄새김, 4면가공, 기단석 |
| 47 | 410 × 570 | 정 방 형 | 잔 다듬 | 上面및 2면가공, 2면마모됨, 주초석 |
| 48 | 520 × 600 | " | " | " |
| 49 | 380 × 525 | " | " | 上面평편 4면마모됨, 주초석 |
| 50 | 300 × 300 | 원 형 | " | 上面평편한 원형초석 |
| 51 | 235 × 460 | 장 방 형 | " | 上面 돌출한 고목이좌, 4면가공, 사각초석 |
| 52 | 180 × 790 | " | 고운정 다듬 | 上面가로두줄새김, 4면가공, 기단석 |
| 53 | 295 × 1,150 | " | " | " |
| ◎ | 박 성 거 씨 덕 | (54 ~ 71) | | |
| 54 | 310 × 2,270 | 장 방 형 | 고운정 다듬 | 上面및 각면가공, 기단석 |
| 55 | 360 × 1,715 | " | " | " |
| 56 | 385 × 675 | " | " | 上面모점은 쇠시리, 4면가공, 기단석. |
| 57 | 250 × 670 | " | " | 4면가공, 기단석. |
| 58 | 765 × 800 | 정 방 형 | 잔 다듬 | 사각받침위 3단쇠시리 원형초석, 평행한 2방향 고목이좌. |
| 59 | 280 × 850 | 장 방 형 | 고운정 다듬 | 4면가공, 기단석. |
| 60 | 640 × 1,250 | " | " | 上面평편, 4면가공, 기단석 |
| 61 | 240 × 780 | " | " | 4면마모, 기단석 |
| 62 | 240 × 1,115 | " | " | 上面및 4면마모, 기단석. |
| 63 | 240 × 1,200 | " | " | " |
| 64 | 200 × 1,150 | " | " | " |
| 65 | 250 × 1,340 | " | " | " |

| 규격 | 규격 (%) | 형상 | 가공상태 | 형태상특성 및 추정용도 |
|----|-------------|-------------|-------|--------------------------|
| 66 | 110 × 880 | 장방형 | 고운정다듬 | 上面 및 4면마모, 기단석. |
| 67 | 210 × 1,005 | " | " | " |
| 68 | 350 × 1,450 | " | " | " |
| 69 | 250 × 890 | " | " | " |
| 70 | 165 × 870 | " | " | " |
| 71 | 190 × 1,280 | " | " | " |
| ◎ | 윤택영씨 덕 | (72 ~ 79) | | |
| 72 | 300 × 730 | 장방형 | 고운정다듬 | 上面평편, 4면마모, 기단석 |
| 73 | 280 × 735 | " | " | " |
| 74 | 270 × 865 | " | " | " |
| 75 | 280 × 770 | " | " | 上面평편, 1면마모, 기단석 |
| 76 | 270 × 975 | " | " | 4면마모, 삼등분으로 깨어짐, 기단석 |
| 77 | 265 × 655 | " | " | 上面평편, 4면마모, 기단석 |
| 78 | 270 × 680 | " | " | " |
| 79 | 295 × 610 | " | " | " |
| ◎ | 박성거씨 덕 | (80 ~ 86) | | |
| 80 | 870 × 1,000 | 정방형 | 잔다듬 | 上面평편, 3면가공, 1면마모, 주초석 |
| 81 | 330 × 1,070 | 장방형 | 고운정다듬 | 上面평편, 4면마모, 기단석 |
| 82 | 315 × 780 | " | " | 4면마모, 기단석 |
| 83 | 300 × 1,540 | " | " | " |
| 84 | 400 × 400 | 원형 | 잔다듬 | 6쌍의 연화무늬를 새긴 원형 초석 |
| 85 | 400 × 400 | " | " | " |
| 86 | 400 × 400 | " | " | " |
| ◎ | 안동운씨 덕 | (87 ~ 89) | | |
| 87 | 250 × 980 | 장방형 | 고운정다듬 | 上面평편, 4면마모, 기단석 |

| 규격 | 규격 (%) | 형상 | 가공상태 | 형태상특성 및 추정용도 |
|----------|-------------|---------------|--------|---------------------------------|
| 88 | 310 × 780 | 장방형 | 고운정 다듬 | 上面평편, 4면마모, 기단석 |
| 89 | 445 × 550 | 정방형 | 잔 다듬 | 上面평편, 4면마모된 사각형의 초석. |
| ◎ | 박경수 씨 대 | (90 ~ 92) | | |
| 90 | 315 × 315 | 원형 | 잔 다듬 | 4면가공된 원형초석 |
| 91 | 520 × 810 | 정방형 | " | 上面평편한 마름모형의 초석 |
| 92 | 385 × 790 | 장방형 | " | 上面평편한 둥근형의 초석 |
| ◎ | 박석진 씨 대 | (93 ~ 102) | | |
| 93 ~ 102 | 325 × 430 | 정방형 | 고운정 다듬 | 기단석의 파재, 4면가공. |
| ◎ | 홍도희 씨 대 | (103) | | |
| 103 | 200 × 530 | 장방형 | 고운정 다듬 | 上面평편, 4면마모, 기단석 |
| ◎ | 田畠址 분포석물 | (144 ~ 158) | | |
| 104 | 500 × 580 | 정방형 | | 上面평편, 4면마모, 자연석 |
| 105 | 500 × 880 | 장방형 | | " |
| 106 | 570 × 1,580 | 사다리꼴형 | | 사다리꼴형, 上面평편, 4면마모, 자연석 |
| 107 | 445 × 675 | 장방형 | | 4면마모, 자연석 |
| 108 | 820 × 1,910 | " | 고운정 다듬 | 정면 및 우측면가공, 上面직사각형 홈구멍 3개, 화강석. |
| 109 | 260 × 785 | " | | 사다리꼴형, 4면가공, 자연석. |
| 110 | 280 × 1,310 | " | | 上面평편, 4면마모, 자연석. |
| 111 | 360 × 880 | " | | 上面평편한 가공된사각형, 자연석. |
| 112 | 680 × 800 | 정방형 | 고운정 다듬 | 上面평편, 4면가공된 자연석 |
| 113 | 600 × 915 | 장방형 | | 덤벙주초석. |
| 114 | 480 × 480 | 정방형 | | " |
| 115 | 395 × 1,050 | 장방형 | | 4면마모됨, 자연석 |
| 116 | 300 × 800 | " | | 上面평편, 4면마모, 자연석. |
| 117 | 380 × 640 | " | | " |
| | | | | 삼각형에 3면이마모된 자연석. |

| 규격 | 규격 (%) | 형상 | 가공상태 | 형태상의특성 및 추정용도 |
|-----|---------------|-----|--------|---------------------------|
| 118 | 400 × 700 | 장방형 | | 4면마모된 직사각형의 자연석 |
| 119 | 920 × 940 | 정방형 | | 8자형으로된 자연석 |
| 120 | 470 × 1,030 | 장방형 | | 上面좌측에 모점은 쇠시리를 둔 자연석 |
| 121 | 680 × 1,150 | 육각형 | | 上面이 평편한 육각형으로된 자연주초석 |
| 122 | 620 × 600 | 정방형 | | 직사각형 모양의 우측면이 파손된 자연주초석 |
| 123 | 660 × 1,750 | 장방형 | | 上面이 평편하고 4면이 다듬어진 자연석기단 |
| 124 | 400 × 600 | 정방형 | | 4면이 마모된 자연석 |
| 125 | 450 × 1,020 | 장방형 | | 上面이 평편하고 네귀가 다듬어진 자연석 |
| 126 | 480 × 900 | " | | 삼각형 형태를 이루어 다듬어진 자연석 |
| 127 | 470 × 900 | " | | 4면이 마모된 자연석 |
| 128 | 625 × 1,080 | " | | 上面이 평편하고 4면이 마모된 자연석 |
| 129 | 460 × 580 | " | | 정사각형태를 이루고 4면이 다듬어진 자연석 |
| 130 | 630 × 760 | 정방형 | | 직사각형태의 4면이 약간 마모된 자연주초석 |
| 131 | 450 × 800 | 장방형 | | 직사각형태의上面이 평편한 자연석 |
| 132 | 610 × 860 | " | | 마모가 심함, 자연석 |
| 133 | 640 × 640 | 삼각형 | | 삼각형형태의上面이 평편한 자연석 |
| 134 | 1,100 × 1,130 | 정방형 | 고운정 다듬 | 정사각형태의 가공된 화강석주초 |
| 135 | 580 × 1,380 | " | | 上面앞쪽에 모점은 쇠시리를 둔 자연석 |
| 136 | 370 × 910 | " | | 마모가 심함, 자연석 |
| 137 | 640 × 825 | " | | 계란형으로 마모된 자연석 |
| 138 | 600 × 645 | 정방형 | | 정사각형태의上面이 평편한 가공된 자연주초석 |
| 139 | 375 × 610 | 장방형 | | 직사각형태上面이 평편한 가공된 자연석 |
| 140 | 270 × 945 | " | | 上面이 평편한 직사각형의 4면이 마모된 자연석 |
| 141 | 270 × 615 | " | | " |
| 142 | 550 × 685 | " | | 정사각형태의上面이 평편한 가공된 자연석 |

| 도번 | 규격(%) | 형상 | 가공상태 | 형태상의특성 및 추정용도 |
|-----|-------------|-----|--------|----------------------------|
| 143 | 500 × 560 | 장방형 | | 정사각형태의 上面이 평편한 가공된 자연석 |
| 144 | 500 × 1,000 | " | | 上面이 평편하고 4면이 마모 된 자연석 |
| 145 | 600 × 695 | 정방형 | | 정사각형의 가공된 자연주초석 |
| 146 | 610 × 1,220 | " | | 마모가 심한 자연석 |
| 147 | 330 × 850 | " | | 上面이 평편하고 4면이 마모 된 자연석 |
| 148 | 560 × 915 | 원형 | | 계란형의 상부가 평편한 자연 석 원형초석 |
| 149 | 430 × 940 | 장방형 | | 마모가 심한 자연석 |
| 150 | 480 × 690 | " | 고운정 다듬 | 직사각형태의 上面이 평편한 자연석 |
| 151 | 330 × 822 | " | " | 마모가 심한 자연석 |
| 152 | 370 × 1,000 | " | " | 上面이 평편하고 2면이 가공 된 자연석 |
| 153 | 685 × 740 | " | 잔 다듬 | 上面이 평편하고 4면이 가공 된 자연석 |
| 154 | 755 × 785 | " | " | 마모가 심한 자연석 |
| 155 | 640 × 385 | " | 고운정 다듬 | 上面모적이 쇠시리틀 둔 가공 된 화강석기단 |
| 156 | 800 × 1,245 | " | " | 직사각형의 가공된 화강석 주 초 |
| 157 | 950 × 2,900 | " | " | 직사각형의 가공된 화강석 기단 |
| 158 | 485 × 2,500 | " | " | 마모가 심함. 화강석 기단 |

9. 瓦埴類・土器類

居頓寺址에서 수습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瓦片들은 統一新羅 下代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高麗時代의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일부 朝鮮朝의 瓦片도 보이고 있으나 적은 量이다.

1) 숫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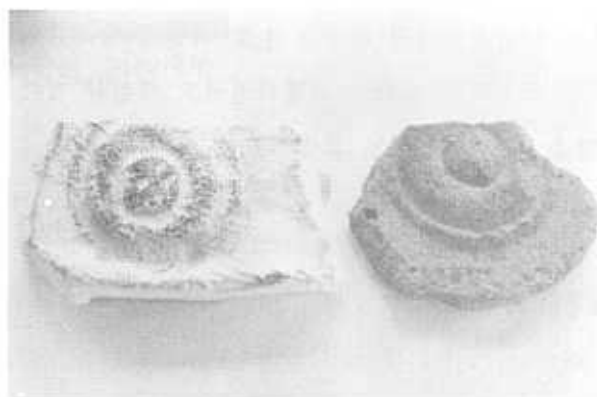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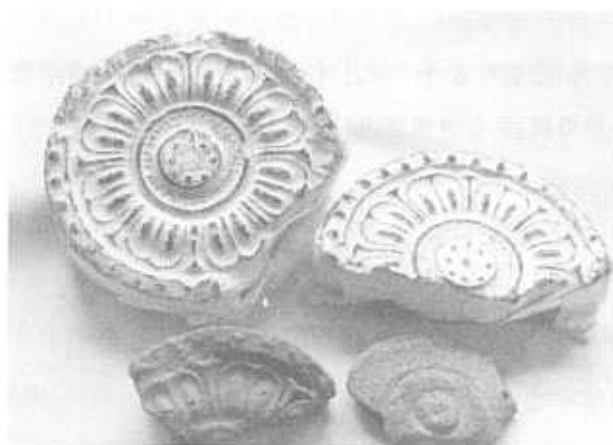
수습된 숫막새는 蓮華文과 日暉文의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암막새에 비하여 숫적으로 적은 편이나, 시대적으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羅末에서 麗初에 해당되는 무늬를 갖고 있다.

蓮華文 숫막새는 復葉八瓣의 蓮瓣을 새긴 사이로 間瓣을 배치한 것으로 통일신라 말기에 많이 보이는 모습이다.

周緣에는 작은 구슬을 촘촘히 박아 놓았고 그 안팎으로 一條의 線帶를 돌렸다. 蓮子를 박아놓은 子房 주위에는 가는 細線으로 꽃수술을 묘사, 물결치듯 流麗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類의 무늬는 高麗初期까지도 나타나고 있으나 세련된 맛으로 보아서는 新羅末까지로 올려 볼 수 있는 모습이다.

日暉文 숫막새는 대부분 高麗初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바 몇점이 더 出土된 日暉文 암막새와 함께 처마끝을 장식하였을 것이다. 이 日暉文 숫막새는 周緣部分이 떨어져 나간 상태이어서 전체적인 크기를 알 수 없으나 암막새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중심부의 가장 작은 圓은 경우에 따라 상당히 돌출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크기도 약간 작을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있는 두번째 同心圓의 表面보다 약간 더 돌출 되었을 정도로 돌출정도가 낮다. 개성 만월대지에서 출토된 숫막새류에서 보이는 日暉文에 비교하여 同心圓의 숫자가 적은 편이다. 이러한 日暉文은 高麗初期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곳이 高麗初期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되며 王室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늬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日暉文 숫막새(右)와 여막새(左)

2) 암막새


암막새는 상당수가 수습되었다. 약간의 日暉文암막새와 唐草文암막새가 대부분인데 일부 당초문암막새는 밑면에까지 당초무늬를 베풀고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日暉文암막새는 同心圓을 이룬 부분이 日暉文숫막새와 아주 비슷한 모양으로 작은 파편이어서 하나씩만 남아 있는데 원래 몇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개성 만월대의 경우 두개씩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도 두개로 추정이 된다. 또한 외곽을 이루는 周緣部가 마멸되어 확실한 모습을 알 수 없지만, 一條의 突起線이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唐草文암막새는 상당수가 수습되어 있는데 가늘고 길게 뻗어나간 덩굴이 비교적 깨끗하면서도 세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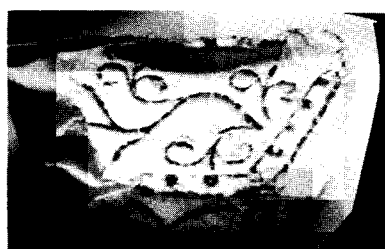
암막새의 시초가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미 三國時代의 末期에서부터 나타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숫막새보다는 그 처음 나타난 시기가 상당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암막새의 초기 형태는 따로이 무늬부분을 만들어 붙이지 않고 일반 암기와 의 끝면을 약간 두껍게 만든다음 무늬를 베풀도록 하였다. 이것이 점차 발전하여 폭이 좁은 형태로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폭이 넓어져 가고 있다. 여기에서 수습된 암막새는 대부분 그 폭이 넓어서 高麗로 넘어온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당초문 암막새의 무늬는 가느다란 덩굴을 주로 하면서 하나씩의 셋가지가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을 뿐 복잡하지 않아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맛이 있다.

무늬를 이루는 면은 가장 보편적인 모습으로  형을 이루고 있는데 完形이 없기 때문에 전체 크기를 알 수는 없다. 주위를 감싸고 있는 突帶에는 제법 굵은 구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는데, 幅이 좁아서 구슬이 꼭 찬 느낌이다.

이 당초문암막새중에 밑면에까지 무늬를 베풀것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막새가 통일신라시대에도 더러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암막새는 비교적 폭이 좁다. 폭이 좁은만큼 제작시기를 고려가 아닌 통일신라말기까지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類의 암막새가 그 제작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전혀 뜻밖

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신라말기에 이와같은 형태가 유행이 되었을때 이곳에서도 채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암막새의 폭이 약 7.7 cm로 다른 것에 비하여서는 좁지만 실제로 약간 넓은 편이어서 생각보다는 시대가 떨어지는 고려초기로 추정할 수도 있다.



밑부분에 시문된 여막새편



3) 망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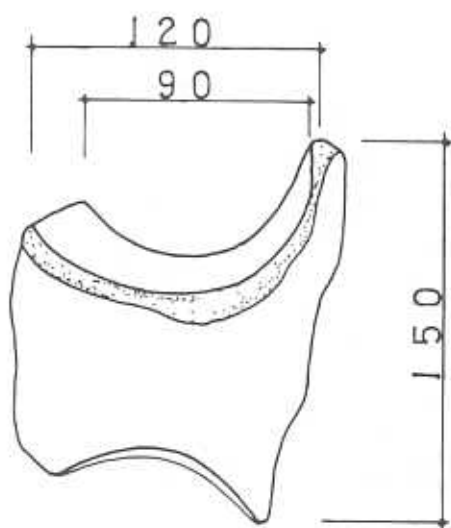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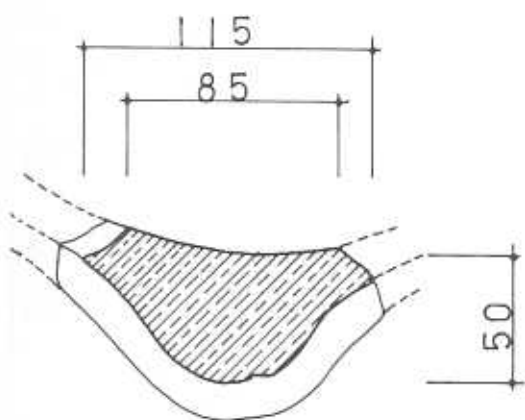
보통은 바래기 기와라고도 부른다. 요즘은 망와로 통칭되지만 여기에서 수습된 두 점은 등이 굽은 곱새망와의 파편 1점과 獸面 1점이 있다. 獸面은 보통 鬼面이라고 하여 추녀나 사래끝에 고정시키기도 하고 내림마루나 귀마루끝에 망새로서 장식하는 기와의 일종이다. 극히 일부만 남아서 사용처를 알기는 어려우나 눈과 눈썹의 한쪽과 그 밖을 둘러싸고 있는 蓮珠가 박힌 周緣의 일부가 남아 있다. 특 불거진 눈망울이 인상적인 모습인데 눈썹이 빙글빙글 돌면서 두툼하게 있어서 강렬한 느낌이다. 다만 눈망울의 위치가 周緣에 바짝 붙어 있어서 조금은 폭이 좁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곱새망와의 파편은 중간부분중에서 등이 안으로 굽은 부분으로 추정되는바 삼도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솟기와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곱새망와는 대개 獸面(鬼面)과 함께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형들이 사용되었던 시기는 대략 高麗 이전이기 때문에 居頓寺의 初創이 통일신라로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다.

너무 작은 파편이어서 좀더 확실한 것은 더 많은 자료가 출현하기를 기대하여야 하겠다.



鬼面望瓦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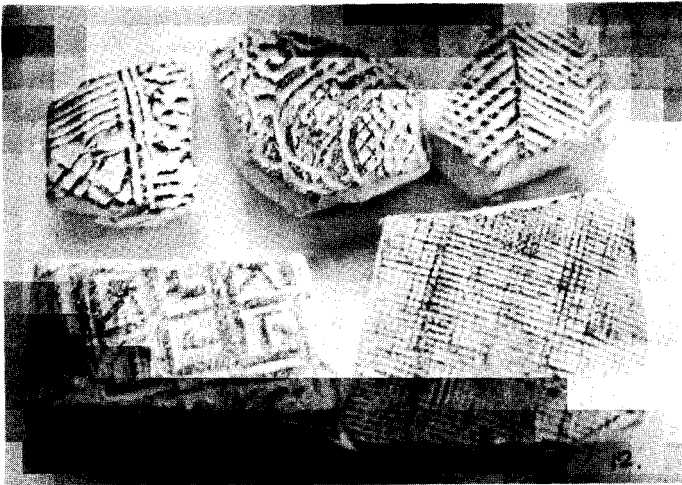
望瓦 (바래기 형의 곱새기와)

4) 平瓦片 및 土器片

瓦片은 상당히 많이 깔려있다. 제법 두꺼운 것도 있으며 사진 No.12와 같이 철망(격자)형의 등무늬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무늬는 주로 高麗初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두께가 두툼하여서 약간의 혼란을 느낀다.

이곳의 瓦片들은 胎土가 흰빛에 가까운 회색빛을 띠우고 또 軟質이어서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두꺼워졌을 듯 하며 거의 모든 기와가 30mm 이상으로 朝鮮朝 中期 이후에나 나타나는 두께를 가지고 있다.

기타의 등무늬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대체적으로 빗살무늬가 주종을 이룬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굵은 편이며 골이 뚜렷하며 그 제작시기를 居頓寺가 全盛期를 이루었던 高麗初期에서 中期까지로 추정된다.



瓦片과 함께 土器片도 상당수 수습되고 있다. 器形을 알아보기 힘든 정도의 작은 것들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高麗朝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1984年度 정비공사때에 金堂址 北쪽 基壇 앞에서 한꺼번에 出土되어 現在 春川 시내 민속박물관에 진열되고 있는 9點의 이 土器 測定値는 (表24)와 같다. 口緣部가 대개 안으로 약간씩 오므라져 있는 형태의 오목한 대접類의 용기로써 역시 高麗時代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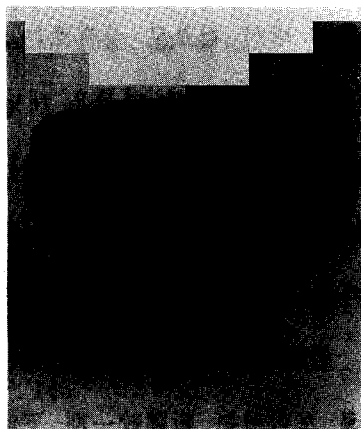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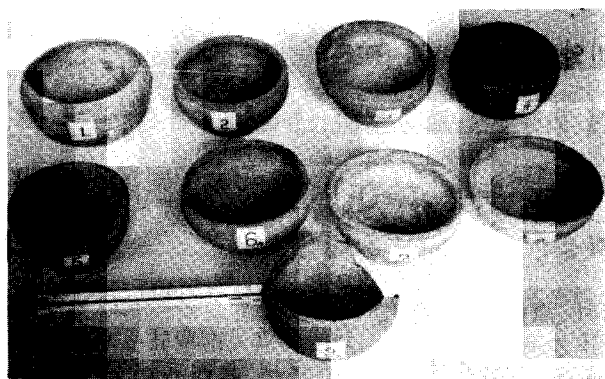
全體的으로 보아 朝鮮朝의 瓦片과 土器片도 적은 분량이나마 일부 섞여있고 統一新羅期의 瓦片, 土器片도 역시 小量 노출되고 있어서 居頓寺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時期를 羅末에서 朝鮮朝 中期 즉 임진왜란 전후한 시기까지로 추정할 수 있겠다.

(表 24)

土 器 實 測 值 (발견당시 원성군에서 측정함)

1984.10. 5. 발견

| 번 호 | 높 이 | 아 래 넓 이 | | 윗 넓 이 | | 둘 레 | 두 게 |
|-----|--------|---------|--------|---------|--------|---------|---------|
| | | 장 | 단 | 장 | 단 | | |
| 1 | 9.3 cm | 6 cm | 6 cm | 9.9 cm | 8.6 cm | 35 cm | 0.4 cm |
| 2 | 5.3 cm | 5.2 cm | 5 cm | 9.6 cm | 9.2 cm | 32 cm | 0.4 cm |
| 3 | 5.8 cm | 5.8 cm | 5.5 cm | 10.5 cm | 9.8 cm | 31.8 cm | 0.8 cm |
| 4 | 5.7 cm | 4.8 cm | 4.5 cm | 8.8 cm | 8.5 cm | 29.8 cm | 0.4 cm |
| 5 | 5.2 cm | 5.3 cm | 4.9 cm | 9.7 cm | 9.3 cm | 28.1 cm | 0.6 cm |
| 6 | 5.5 cm | 4.7 cm | 4.3 cm | 9.6 cm | 9.4 cm | 32 cm | 0.35 cm |
| 7 | 5.1 cm | 5.6 cm | 5.5 cm | 10.8 cm | 9.7 cm | 31 cm | 0.7 cm |
| 8 | 4.9 cm | 5 cm | 4.8 cm | 10.5 cm | 9.4 cm | 30.4 cm | 0.5 cm |
| 9 | 6 cm | 4.4 cm | 4.3 cm | 8.2 cm | | 30 cm | 0.6 cm |
| | 일부 파손됨 | | | | | | |



Ⅲ. 居頓寺의 歷史, 地理的 環境

1. 居頓寺의 沿革

居頓寺址는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에 있다. 南漢江의 中流인 경기도 驪州를 지나 상류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류인 蟾江이 合水되는 興湖里가 나타난다. 바로 興原倉址가 있는 곳이다. 이 興原倉에 인접하여 富論面의 法泉里가 있고 이 마을 안쪽 산기슭에 유명한 法泉寺址가 있다. 居頓寺址는 이 法泉寺址와 이웃하여 있는 셈이다. 현재의 행정구역상 같은 富論面에 있기도 하지만 강을 따라 불과 20리 이내에 있기 때문이다.

法泉寺가 바로 강변에 위치한 것에 비하여 居頓寺는 약간 떨어져 있다. 거리상 약 5km 남짓한데 옛날에는 10리쯤 되는 것으로 전하여 온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여러 地理誌에 의하면 居頓寺는 玄溪山에 位置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玄溪山은 현재 寺址에 남아 있는 圓空國師 勝妙塔碑에 나타나 있는 賢溪山과는 음이 같다. 다만 玄이 賢으로 되어 있을 뿐인데, 山의 이름만 변한 것으로 실제로는 같은 山이다.

居頓寺에 관한 기록은 대단히 빈약하다. 圓空의 勝妙塔碑가 남아 있어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전하고 있으나, 실제 居頓寺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 그러나 寺址에는 상당히 많은 遺構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들의 종합적인 調査로 그 창건시기를 추정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확실한 것이 될 수는 없다.

居頓寺址에 남아 있는 여러가지의 遺構 또는 寺址 全域에 흩어져 있는 瓦片들로 보아서는 新羅統一期 下代에서부터 高麗朝를 지나 朝鮮朝 前期까지 이 사찰이

운영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확실한 年代를 밝힐만한 문헌이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圓空國師 智宗은 그의 말년을 이 居頓寺에 와서 지내다가 입적한다.⁽¹⁾ 따라서 당시의 大禪師였던 智宗이 마지막을 보내기 위하여 선택된 사찰이 바로 居頓寺인 셈이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규모가 큰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居頓寺는 위치로 보아 상당히 외진곳에 있다. 統一新羅末期 왕실이 허약해지면서 정치적인 분열과 사회적인 혼란에 뒤따라 불교계의 통제가 약화되면서 지방불교가 뿌리를 내리는데 바로 禪宗이 그 모태가 된다. 신라말 중국에 유학한 고승들은 주로 南中國에서 南宗禪을 계승하였는데 이때 중국에서 돌아온 고승들은 주로 地方社會에 많은 山寺를 경영하였다. 신라말의 禪宗勢力은 국가로부터 寺額을 받으면서 中央寺院에 종속된 관계를 유지한 예도 있으나 9세기 말부터 지방세력의 격심한 등장속에서 중앙세력과 밀착하기보다 인맥을 강조한 불교종파로서 독립된 山門을 형성하였다.⁽²⁾

따라서 이때에 세워진 사찰중에 居頓寺가 끼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聞慶의 鳳巖寺에 智證大師寂參塔이 있다.塔과 나란히 塔碑가 세워져 있다. 이 塔碑에 새겨진 銘文에 의하면 智證은 호를 道憲이라 하였고 俗姓은 金氏이었다. 어려서 부석사에 들어가 불경을 공부하였다. 字를 智詵이라 하였는데 憲德王 16(824)년에 태어나서 憲康王 8(882)년에 세상을 떠났다.

智證大師 智詵은 憲康王으로부터 크게 신임을 받고 있는 중에 마지막으로 曦陽山에 鳳巖寺를 창건하고 王師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고 봉암사에서 入寂한다.⁽³⁾

(註 1) 朝鮮金石總覽・原州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

(註 2) 許興植・高麗佛教史研究・一潮閣・1986, P. 146

(註 3) 朝鮮金石總覽・聞慶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그런데 이 寂照塔碑의 내용중에 居頓寺와 연관되는 몇귀절이 적혀 있다. 먼저 賢溪山이라는 山名이 나타나는데 이 賢溪는 圓空國師勝妙塔碑에 적혀 있는 山名과 같다. 다음으로 賢溪山·安樂寺라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安樂寺라는 寺名이다. 智證大師가 머무르고 있던 절로서 봉암사를 세우기 이전까지 住錫하신 곳이다. 지금의 居頓寺가 安樂寺와 같은 사찰로서 나중에 이름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居頓寺의 부근에 별도의 寺刹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居頓寺와 安樂寺를 같은 위치로 추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만한 규모의 사찰이 쉽게 여러곳에 세워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 또하나의 문제는 봉암사를 창건한 智證大師와 居頓寺에서 末年을 보낸 圓空國師와의 관계를 밝혀보고 그에 따른 居頓寺와 安樂寺의 관계를 추정하여 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두 寺名이 같은 禪宗의 계통인 智證과 圓空이 住錫하고 있었던 사찰이라면 이야기는 간단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圓空國師 智宗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圓空國師의 諱는 智宗, 字는 神則, 俗姓은 李氏로 全州人이다. 아버지는 行順, 어머니는 金氏이다. 金氏의 꿈에 한 老僧이 나타나 金塔하나를 가리키며 이는 큰 德이니 네가 잘 지키고 있으라는 顯夢을 하고는 낳은 아들이 곧 大師이다.

大師는 어려서부터 자태와 稟性이 뛰어나더니 8살때부터 놀기를 그만두고 法寶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마침 三藏이 舍那寺에 기거하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가서 중이 되고 다시 廣化寺의 景哲和尚을 받들어 수련하여 스승보다 낡은 경지에 이르렀다. 開運三年(946), 靈通寺에서 具足戒를 받고 廣順三年(953)에 曦陽山の 超禪師에게 갔다.

顯德初(954~)에 證眞大師(璨幽)로부터 넓은 세상에 나아가 眼目을 넓히라는 계시를 받고 中國의 吳越國으로 건너갔다. 먼저 永明寺의 壽禪師를 찾아 보니 壽禪師가 法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온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데 무엇때문

에 수고롭게 바다를 건너왔느냐고 묻자 이미 사방에 두루 있으니 건너온들 안될
게 뭐 있느냐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壽禪師에게서 心印을 받았다.

峻豐二年(961)에 國淸寺에 가서 淨光大師를 배알하고 天台敎를 배웠다. 開寶
元年(968)에 僧統 知內道場 功德事 贊寧과 天台縣宰 任埴등이 法華經을 가르쳐
달라고 하여 大師가 사양치 않고 가르쳐 주었다.

다시 證眞大師의 제시를 받아 開寶三年(970)에 돌아와서 光宗의 우대를 받고
金光禪院에서 거처하였다. 開寶末年(975)에 重大師가 되고 磨衲袈裟를 받았다.

景宗이 즉위하자 三重大師를 제수하고 水精念珠를 하사하였고 成宗朝에는 積石
寺에 옮겨 살면서 號를 慧月이라고 하였다. 淳化年間(990~994)에는 成宗이 藥
宮으로 불리들여 高談과 妙義를 들려 주기를 請하고 더욱 우대하였다.

穆宗도 先王의 뜻을 받들어 좋은 인연을 맺고 光天・遍炤・至覺・智滿・圓默의
號를 누차 더하였다. 繡方袍를 하사하였으며 佛恩寺와 護國外帝釋院등에 住持로
있게 하였다.

顯宗때에 이르러서 廣明寺에 거처하게 하고 寂然이란 法稱을 올리었다.

開泰三年(1013) 가을에 顯宗이 大師를 王師로 모시자는 詔書를 내리자 신하
들이 모두 찬성하여 亞相인 庾方과 密使 張延祐, 執憲 李昉등을 보내어 뜻을 전
하였다. 이에 大師는 한달간이나 사양을 하다가 마침내 이에 응하니 임금의 친히
가서 절하고 王師로 삼았다. 현종은 金銀의 실을 넣어 짠 비단 法衣와 器具, 그
리고 차와 음식을 바쳤으며 대사의 가르침에 열심히 따랐다. 三年後에 普化라는 號
를 더 하였다.

그 후 병이들자 주위에서 물러가 쉴 것을 권하였으나 자신만을 위해서 물러갈
수 없다 하고 있다가 天禧二年(1018年) 초여름에 原州 賢溪山 居頌寺로 갔다.
居頌寺에 간지 얼마 안되어 그해 여름에 세상을 떠나니 享年이 89세요

중이 된지 72년이 되었다. 그리고 절의 東南쪽에 葬事하였다. 임금은 國師를 追贈하고 圓空이란 諡號를 내렸다. 탑을 세우고 塔號는 勝妙라 하였으며 崔冲에게 命하여 碑銘을 쓰게 하였다.⁽⁴⁾

智宗은 證眞大師 璩幽의 영향을 받아 크게 깨우친 바가 있었고, 吳越國 永明寺의 壽禪師에게서 法眼宗의 禪敎融合 사상에 깊은 감화를 받았었다.

證眞大師 璩幽는 高達禪院을 거점으로 상당기간 활동한다. 高達禪院은 高達寺로도 부르는데 慧目山門의 開創者인 玄晄에 의하여 시작이 된다.

圓鑑大師 玄晄은 高達寺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때가 경문왕 9년(869)이다. 玄晄의 제자 審希는 역시 慧目山에서 道를 배우고 具足戒를 받았다. 후에 鳳林寺를 開創하는 開山祖가 된다. 證眞大師는 바로 이 審希에게서 師事를 하게 되고 뒤에 國師가 되어 元宗이라는 諡號를 받고 末年에 高達禪院에서 入寂한다.

高達禪院안에 남아 있는 元宗大師 慧眞塔碑(碑身만 현재 景福宮에 옮겨져 있음)에 의하면 당시 三院으로 유명한 高達院, 道峰院, 曦陽院이 언급되고 있다. 이 三院은 門下의 제자가 동요하지 않고 서로 이어서 住持를 하면서 대대로 끊이지 않음을 법도로 삼고 있었다고 한다. 道峰院은 慧炬國師가 住錫하던 寺院으로 밝혀져 있으나 자세한 기록은 불충분한 상태이다.

그러나 고려초까지 寺勢가 크게 유지되었던 곳으로 많은 高僧을 배출한 上記의 三院은 禪宗系를 대표하고 있었다.⁽⁵⁾

따라서 圓空國師가 마지막을 장식하였던 居頓寺나 智證大師가 머물고 있었던 賢溪山 安樂寺가 그저 무관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智證大師 寂照塔碑에 나타나고 있는 賢溪山이 지금 居頓寺가 있는 賢溪山과 다

(註 4) 朝鮮金石總覽 原州 賢溪山 居頓寺 圓空國師 勝妙塔碑

(註 5) 許興植・高麗佛敎史研究・一潮閣・1986.P. 146

른 山일 가능성도 있으나, 道峰院이나 高達院의 위치와 曦陽院의 位置가 모두 南漢江, 또는 漢江과 연관되어 있어, 南漢江邊에 있는 賢溪山과 쉽게 연결지어 질 수 있음은 결국 같은 山일 가능성이 더욱 짙어진다.

曦陽院 즉 鳳巖寺는 聞慶의 속현인 加恩縣으로 曦陽山의 周峴(周項嶺)을 넘으면 연풍현과 연결이 된다. 따라서 이곳에서 서울(開京)을 가려면 伊火嶺이나 周峴을 넘어 연풍으로 나온 다음 忠州를 거치게 된다. 이때 忠州에서 南漢江을 이용하면 쉽게 居頓寺, 法泉寺, 高達院에 당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속하여 내려가다 漢陽의 광나루에서 배를 내리면 道峰院도 가깝다.

역지로 끌어다 맞추는 격이 될지 모르지만 위와 같은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三院 또는 禪宗系의 스님들이 서로간에 왕래하면서 法을 퍼는 데에 아주 적당한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간부분에 위치한 原州의 여러 寺院들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居頓寺址에 남아 있는 三層石塔은 그 창건시기를 新羅末로 추정하고 있다. 전형적인 新羅石塔으로 그 규모가 작아져 있을 뿐이다. 수습되고 있는 瓦片中에 망새기와가 몇점 있다. 이 망새는 곱새망와의 일부로 추정되는 것 1점과 일반적으로 귀면와라고 하는 것의 파편인데 이러한 종류의 기와는 대체적으로 高麗以前의 建物址에서 出土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金堂의 礎石, 基壇등에서 볼 수 있는 技法들은 오히려 高麗初期에 만들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결국 塔과 金堂의 造成年代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圓空國師 智宗이 크게 활약하던 시기에 居頓寺는 상당히 큰 寺刹로 가장 盛觀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聞慶의 曦陽山에 鳳巖寺를 창건한 智證大師가 한때 住錫하고 있던 곳이 賢溪山 安樂寺라고 하였는데 이 賢溪山의 위치가 原州의 賢溪山과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賢溪王師인 道憲 즉 智證大師의 활동무대가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三院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三院중에서도 중심지에 있는 高達院은 당시에 같은 原州땅으로 居頓寺와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 高達院의 開創을 玄曄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智證大師와 同時代의 사람이다. 따라서 智證大師 智誥이 주로 활동하였던 남한강변에 寺刹을 세우거나 기왕에 있는 적당한 寺刹을 택하여 住錫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居頓寺의 寺名이 安樂寺에서 바뀐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같은 賢溪山 주위에 서로 다른 사원으로 存在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玄溪山은 그렇게 큰 산이거나 名山으로 이름이 나 있지도 않다. 그리고 安樂寺라고 하는 절터가 남아 있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여서 쉽게 우리에게 접근이 되었을 것이나 아직 별다른 보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居頓寺址 以外の 특별한 寺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현재의 居頓寺址에 남아 있는 3층석탑의 造成年代가 9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와 같이 智證大師 智誥이 활약하던 시기에 居頓寺의 자리가 정해졌거나 아니면 그 전이라 하더라도 8세기 말이나 9세기 초로 추정하여 볼 수 있다.

특히 居頓寺는 고려초기 禪宗系의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法泉寺 興法寺등과 약간 떨어진 高達院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권에 있는 寺刹로서 크게 주목되어야 할 寺院이다.

지금은 마을을 이루고 있지만 金堂址의 북쪽으로 펼쳐져 있었을 講堂址 또는

여타의 여러 建物址가 있었을 것이며, 일부 남아 있는 石築등의 遺構가 당시의 웅장함을 잘 대변하여 주고 있다. 특히 金堂은 상당히 큰 규모에서 그 중심부에 남아 있는 巨大한 佛像臺座가 말하여 주듯이 雄大한 佛像을 모시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金堂을 重層의 殿閣으로 추정하여도 무리가 없는 규모이다.

寺域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瓦片중에 朝鮮時代に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瓦片들은 대체적으로 두께가 두꺼우며 등무늬의 線條가 뚜렷하지 못한 것들이다. 따라서 朝鮮朝의 어느정도까지는 절이 유지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밝혀져 있듯이 최소한도 朝鮮中期까지는香火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朝鮮朝 末期에 나온 邑誌나 大東地志등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모두 파괴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따라서 9세기 초에 시작된 이 사찰은 약 7세기 정도 유지되다 16세기 말경에 운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購入漢益 厚優賢之意 猶 敦獎善之仁 初署大師延請居於金光禪院末年加重大師施粥粥製衣自後衆所

具瞻遊多兼濟難去玄之趣桃李無言而徘徊之流輪麻成列名高雖寒遇睦喇歷代實之他皆做此故至 景宗踐祚除三重大師賜水精念珠 成宗朝運往積石寺號爲慈月淨化中以特飛

芝迎入紫宮講席高談異聞妙義舉幼少林之觀瞻且同宜室之話煥載靡 宸襟優水 龍院仍受府廟祿存 穆宗繼水先志亦締勝緣顯鶴儀而暫不曠時垂 鴻常以略無虛歲累加光天

通昭至覺智滿圓然禪師贈備方袍兼以佛恩寺護國外帝釋院等爲住持之所焉今上應一千年昌運奄撫神圖轉十二行法輪恢弘像教召義龍而雲理呼律虎以風騰崇授大師師請住廣明寺達

法稱曰寂然開泰二年秋有 詔曰朕聞上從軒皇上達周發皆資師保用輔邦家斯所以崇德象賢亦不敢倚一慢二者也今親大師師識趨券內心出理中理甘露於敬田繼像光於實際際持至理開悟

衆迷朕何不師之乎群臣罔有異辭會云可矣乃遣亞相庚方密使張延祐執憲李昉等結奉 九重之命往扣玄關果伸三返之儀新開錦帳師以月廣雖固 天心不移

安能道隱無名止合離時近 遂因循而應之然後 上親詣拜爲王師仍獻金銀織成圖錦法衣器具茗餅等數禁不載故能體優勝具 情愜戶章方推請益之賦感靈寶展之問日改月化聞斯行諸師警教一音言提萬行蓋洪

鐘而待扣響應有緣臺高鏡以忘麗昭通無礙酌定水而資 帝澤廓其空而導 皇風其利博哉爲弘濟也則彼靈裕願升於國統誠項項焉慧宗稱首於頭陀是區區者擬于此際不可同流越三年又

加號曰普化皆所謂有大德者必得其名矣後以飲過 風病綿留氣序十全參請尙傳遺類之言萬眾欣懷頻致藥膏之施有親串謂師云唯病病從日聖賢爲是栖栖何親都邑况垂暮齒宜軫歸心師

聞之听然而笑曰庸詎知安道先生與命期而始去淨名居士因衆疾以且憂苟未當途那忙養足汝謂予自利耶蓋欲利他之故也天禧二年首夏道之將廢時然後行振金鐺以告群拂衲衣而長驚沙洲獨

鳥迢迢而飛入烟波碧落孤雲杳々而旋尋潤壑止于原州賢溪山居頓寺方開宴座未及浹辰奈因生也有翼遽欲復於無物是月十七日病而彌充願以真冷謂衆曰昔如來以大法眼付諸弟子如是展轉

及至于今將此法付囑於汝汝當護持無令斷絕吾滅後亦不得以喪計奏 聞有離規矩言訖示化壽八十九臘七十二是晨也日慘煙煇雲愁黯黯 聲之隙亂 平山椒竄取之群悲嗚呼巖穴並顯

風然之變咸與逝矣之傷門徒慶充等辭誦三號分崩五內莫問涅槃之樂空匪聚颯之香觀白鶴之林影安依芳蔭卜青島之地勝即謝闕宮以其月二十二日旋葬于寺之賢閣禮也 上比及殯時方聞

遺占念泥洹之何早 懷震悼以偏深特降靈臣代行禮吊舉易名之典用光傳法之門贈 國師諡曰國空達立勝妙之塔因命整備碑揚敷然臣也詞憲刻簞學謝漫鵲性類族庖本乏號嗣之

利工非大匠素登傷手之虞既奉 頒宣無由溫顧披文相質爭符賦客之官變谷爲悟座續高僧之傳甘同西笑用効南刊譚爲銘曰

性德爲佛 忘情曰禪 澹乎境界 離彼首詮 測不可測 玄之又玄 執繩易惑 摸象多偏 忘情曰禪 達摩肯攜 然而識之 於是乎就 祖祖奉揚 師師傳授 去聖彌遠 承基漸謬

誰與復者 自有其人 天鍾正氣 岳降惟神 孤標拔俗 偉度超倫 纔從非處 即慕弘真 朽宅罷遊 緇流染學 戒律嚴持 辯才卓犖 道在日新 心

由宿覺 謙業精勤 存誠貞確 四 遐陬淮海 直詣越邦 騰名騰肆 寓目經慈 攻堅不輟 親與無雙 三乘載章 四衆皆降 五箭重過舟 珠璣返浦 猶笑入秦 似孔居魯 宏敞法門 獨爲慈父 化洽彌天 仁富率土

曇花再綻 慧靈重輝 五朝前席 萬乘攝衣 功周教滿 理極知微 汎若而退 偶然以歸 七疊峰臥雲 幽溪澗石 猿鶴相隨 塵埃轉隔 志緒閑安 時當變易 命也非常 觀之自適 八 無滅而滅 不終而終 釋網如賞 宗林復空 龜碑乃斷 胸塔斯崇 果更浩

堪 長播高風 九 太平紀曆歲在旂蒙亦當若秋七月二十七日樹 臣僧貞元契相慈明惠保得來等刻字

(碑身高二六〇一五七刻字徑一八二刻字徑七刻字)

居頓寺園空國師勝妙塔碑

所在 江原道原州府富壽山居頓寺址
年代 高麗顯宗十六年（西紀一〇二五年）

贈諡園空國師勝妙之塔碑銘（題額）

高麗國原州寶溪山居頓寺故 王師慈月光天通照至覺智滿圓默寂然普化大禪師贈諡園空國師勝妙之塔碑銘并序

中樞直學士宣議郎尚書吏部郎中知 制誥兼史館修撰官賜紫金魚袋臣崔冲奉 宣撰

恭聞佛道玄微了一心而即是禪源澄寂與諸法以超然得之者權實都忘觀之者色空俱泯而緣祥生見執萬種差殊非階漸無以發其蒙非空濶無以到彼岸縱靈羊挂角難可追尋猶師子嚙申必須方便

故乃無謂有謂不聞而聞聞葉應對於西乾達摩傳於東震付衣分座或示信於衆觀曲尺剪刀或強名於諸諱師師密授符契允諸祖相承緇旆弗絕洎夫去聖遠遺光靈漸衰前覺者瞻之在前後隨者

噫若乎後鑿丘求井都迷阿耨之宗摘地索途盡味純隨之理自非空門排士李世瞻人將何存意遺言能得其妙應機變不恒厥居紐大音之解微張脩綱之頌紀其誰尸者唯我有之師諱智宗字神則俗

姓李氏全州人也父行順抱戴仁履謙居慕愷憐君子常求福以不回徇僕丈人自凝神而有道母金氏鴻妻拉養榮婦齊名和鳴美著於風番衍慶標於椒詠嘗夢金刹一竿上撥雲端有 眉僧舉手指

之曰此大威德你可護持因即有娠欲臨彌月手動香火口絕羣腥修胎教以惟精契產經而載誕師呈姿岐嶷稟性英奇愛從襁褓之中便是風塵之外松生徑寸先知構廈之材江出濤騰預識濤空之量年

投于水厥深易發衆謂壽成誰云幼學開寶三年稟具於靈通寺之官壇瑠璃戒行三業已清函宮惡心六塵難染嘗過社省之有青衣願醉內懷中所貯米而飲仰自顧厥疾悻而曰我是神護此上人汝豈容易弗 其味乎聽者驚恐爭加禮重其靈驗多此類也廣順三年造曦陽山超禪師時有侍者僧灑掃法堂少許地不受

水超問曰有箇處水不著你作麼生僧無對師代曰更不要灑一任掃地超公乍聆警應深識道存謂若灑灑一言玩瞻三語因成偈頌用播寰稱美價絲是頓高寶筵以之或服屬顯德初 光宗大王立皇

極崇法而微習初之禪俾伸角妙選丹霞之佛明示懸科師雄入讓園首探理窟街疊雙之絕藝彰累百之高名于時用夏變夷正契車書之混陟遐自選競追汗漫之嚴凡是同年盡遊西國而獨知足之足念

茲在茲摩過虎溪却爲牛後未幾魂交故證真大師曰弗登山何以小魯弗觀海何以狹河事既如斯汝宜往矣師覺曰昔者常啼東諸由聽於神人善財南求蓋親於知識今則時非可失理與冥符離云道阻

且長爭敢人涉叩百六年夏徑臻 敕下仰告征期 光宗聞入洛之言曰愈懇請詠于耶之什觀置錢筵既叙睽離爰遣跋涉攀扶搖於九萬鷗真橫天經浩渺於三千馬衍思浪得達共越國先謁永

明寺禪師壽問曰爲法來耶爲事來耶師云爲法來曰法無有二而遍沙界何勞過海到這裏師曰既過沙界何妨過來壽公豁開青眼優待黃頭便解繫珠印印故得入親近地修對治門時止飽

於醒間更無他味日日唯聞於荷荷不離餘香熟識玄同神情朝徹晚豐二年漸次抵國濟寺稟拜淨光大師光亦開通榻席開升堂思欲伯暗書附於王生重耳經傳於尹令尋以以大定懸天台教授師是

壽是謂如切如磋那同八月之春似待九年之妙雖會宿覺尙藉時勤開寶元年歲杪僧統知內道場功德事贊奉天台縣宰任遣等閒師精研慧刃足可屠龍敏發玄機宜堪中鏡高山仰止異口同音請於傳

敕院講大定懸論并法華經師率意而從當仁不讓以爲行商告倦闡示化城薄子祛疑須開寶歲矢在絃而旋發刀引鏡以且成徐陟況暈乍麗塵柄對三根而賈勇論六懸以抗接足使如堵而觀折牀而麗

荆渚九旬之驟風風然南徐百日之談其塗殷矣既而睡見本國有寶塔 天自繫繩挽之塔隨力俯仰又申感故證真大師曰汝能得意胡莫詠歸耶乃謂動在隨緣濟無與載若悟式微之戒過還不係之

程三年撰袂而興泛益而渡已叶易東之志人稱居右之材 光宗示以羅什如摩摩

2. 南漢江과 居頓寺

居頓寺는 南漢江의 江岸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실제로 강변으로부터 약 10 리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江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대부분의 寺刹들이 重要한 교통로를 가깝게 두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居頓寺의 위치를 보아 陸路보다는 水路와 밀접한 것을 알 수 있다.

居頓寺가 있는 부근을 지나는 大路는 남한강을 따라 오르내리는 水路외에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가장 가깝게 있는 法泉寺가 水路외에도 陸路의 要處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三國時代이대로 南漢江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한 점이 있었다. 특히 竹嶺과 鷄立嶺이 열리면서 水運의 中心이 되었던 南漢江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다. 高句麗, 百濟, 新羅의 三國은 서로 漢江 流域을 차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실제로도 三國은 각기 가장 국력이 강성하였을 때 漢江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中原郡에 있는 高句麗碑의 경우만 보아도 고구려가 가장 강성하였을 때를 전후하여 南漢江을 점령하고 있었던 史實을 잘 말해주고 있다.

南漢江에 水運이 發達되면서 소백산맥을 넘나드는 중요한 嶺路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는 嶺南의 洛東江과도 아울러 연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금도 江岸을 따라 수 많은 遺蹟들이 남아 있는 것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

특히 高麗朝에 들어서면서 漕倉의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고 南漢江에 興原倉과 可興倉이 설치된다. 그중에서도 興原倉의 위치는 바로 法泉寺와 인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法泉寺와 가깝게 자리잡은 居頓寺와도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可興倉도 마찬가지로이어서 院洞과 內洞의 寺址 및 봉황리의

마애불과 연관된 寺院들이 漕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의 문제로 제기하는 바이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여 볼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강변에 자리잡은 사찰들이 꼭 漕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배가 오르내리는 水路를 보살피거나 지키는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큰 강이라 하더라도 中流 以上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자연 여울이 나타나게 된다. 南漢江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류로 올라갈수록 여울이 많이 나타난다. 옛날과 지금이 꼭 같을 수는 없고, 水量에도 차이가 있겠으나 여하튼 어느정도의 여울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울이 있는 곳을 큰 배가 통과하려면 상당한 기술도 필요하지만 상당한 人力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가뭄이 들어 水量이 줄어들면 여울의 통과는 더욱 어려워진다. 물론 하류로 내려갈때 보다, 올라갈때가 더욱 어렵다. 가뭄이 들면 여울을 오르내리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때 별도로 水路를 내어 배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통때에는 밧줄을 배에 걸고 江의 양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끌어 올려주어야 한다.

강변마다 마을이 있다던지 아니면 지키는 군사가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알아준다면 모르지만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가끔씩 오르내리는 배를 위하여 별도의 인원을 상주시키는 대신에 寺刹을 짓고 승려들을 머물게 하는 한편 항상 물길을 관리하도록 하여 놓는다면 그보다 더 간편한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南漢江을 따라 세워진 수 많은 寺刹들이 꼭 위와 같은 이유에서 建立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寺刹들이 江과 연관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무시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居順寺는 특히 한강과 가깝게 있다. 바로 강변은 아니지만 불과 십리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는 큰 길이 없다. 지금도 교통이 나쁜

곳이어서 한번 찾아 보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만약 水路 즉 배를 이용하기로 하면 여주에서 불과 60여리 내외의 가까운 거리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와같은 상황은 남한강을 따라 계속이 되며 강변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이 居頓寺와 비슷한 여건에서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驪州의 神勒寺로 부터 시작되는 南漢江의 寺刹들은 아직 그 寺名도 확실하지 않은 곳까지 열거할 수는 없지만 高達寺址, 法泉寺址, 興法寺址, 靑龍寺址, 中原郡 可金面 內洞寺址, 院洞寺址, 塔坪里寺址, 金生寺址, 淨土寺址, 億政寺址, ……등이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寺刹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구역을 장하여 江을 지키고 관리하였다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유익한 상태가 되었으리라고 가정하여 볼 수 있으며, 중요 山城 內部에 寺刹를 세워 승병을 두었던 제도와 연관하여 볼 때,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닌 것이다. 특히 고려 초기에 융성하였던 몇몇 寺刹들 특히 法泉寺, 興法寺, 居頓寺, 淨土寺址 등은 남한강의 中流를 장악하면서 또한 興原倉과 可興倉을 사이에 두고 있어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문헌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이 江岸의 寺刹들을 살펴 본다면 전혀 새로운 사실들을 접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綜合的 考察 (結語)

지금까지 居頓寺址의 石造遺構에 대한 實測調査 結果를 項目別로 詳述하였으며 考察된 概要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居頓寺의 配置는 金堂과 石塔등의 寺院中心郭을 前面(南側) 底平한 곳에 두고 講堂을 비롯한 擁護神衆을 모시는 中・下壇에 屬한 殿閣을 中心郭 背後의 層段造成된 臺地위에 배치하였다.

中心郭 前面에는 大石築壁을 쌓아 臺地를 造成하고 中央通路의 위치에는 門址가 있고 이 門址의 左右로 廻廊을 연결하여 金堂주위를 감싸고 있다.

寺址의 맨 뒷면 산기슭에 後日에 建立된 圓空大師 勝妙塔의 浮屠殿이 마련되었으며 東쪽 於口에 同 塔碑를 세웠다.

金堂의 西便으로 낮은 耕作地에 僧房등 後苑寮舍를 두었던 흔적의 石物이 발견되며 이곳의 출입은 大石壇 西便의 별도 進入路로 통행한 듯하다. 大石築壇의 築石手法은 이웃한 興法寺址나 浮石寺의 大石壇과 비슷하며 山地伽藍에서는 흔하지 않은 廻廊을 두른 점에서 高麗前期 以前の 經營임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同時代의 寺院으로서는 單塔式 伽藍으로 한것이 注目된다.


三層石塔의 규모는 적으나 典型的인 統一新羅時期의 一般形 石塔樣式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고 基壇과 塔身에 아무런 治裝彫飾을 加하지 않았으며 屋蓋받침이 각층 5段이고, 塔身받침등을 別途로 두지 않은 點등에서 統一下代 邊方寺院들의 나약해진 石塔들보다는 다소 앞선 時期의 健實한 石塔으로 느껴짐으로서 9세기 前半의 石塔이라 추정한다.

塔 基底部에 方壇을 쌓은후 建塔되었음은 異彩롭다.

中心郭의 中央部를 크게 점하고 있는 金堂은 96坪餘의 大規模 法堂일뿐 아니라 高峻한 基壇과 精緻한 加工의 礎石 및 莊大한 佛坐臺積心石등으로 보아 雄渾

하고 品格있는 大殿閣이었음을 알 수 있다.

礎石排列狀은 正面五間 側面三間の 平面形으로 되어 內陣三間에다 前後와 兩夾退間을 外陣으로 하여 內部平面의 空間構成을 하였다.

礎石은 方形礎盤에 圓形柱座를 두었으며 石身이 彫刻을 三段彫出( 型) 하였고 柱座를 포함한 礎盤面에까지 內外面을 모두 精巧하게 細工함으로서 마루 등을 別設하지 않고 敷壇등으로 露出한 듯하다.

圓形柱座에는 모두 고목이 받이用 副座를 同造하였는데 外邊柱에는 壁體에 나란한 一字形 二方向 副座를, 四隅柱와 內陣四隅에는 直角方向 副座를, 그리고 佛坐臺 주위에 內陣柱礎에는 三方向 副座를 둠으로서 內陣三間에는 後佛壁과 兩側面 佛壁을 設置하였거나, 또는 높은 內陣高柱에는 柱植과 같은 버팀기둥을 붙혀 세워 補強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礎石의 형상과 佛坐臺石의 배치로 보아 內陣三間에 三尊佛像을 奉安하는 神聖空間이 造成되고 外陣退間으로 巡廻禮佛하는 古式法堂의 用途로 하였음을 推定되기도 한다.

또한 礎石의 排列된 상태의 柱間 간사이가 18 ~ 19 尺 정도로 廣闊하고 本尊佛 積心石의 폭과 높이가 2 m가 넘도록 육중하고 그 外面에 짜여져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座臺外護 治裝石 一邊길이가 2.9 m나 되는 巨大한 佛座臺인 것으로 보아 金堂은 重層佛堂일 가능성도 헤아려 볼 수 있다.

基壇은 二重地臺위에 높은 面石을 세우고 甲石을 얹은 架構式 基壇을 구성했으며 甲石副椽下端을 크게 궁글려 甲石운두의 1/3 가량을 큰 圓弧로 따낸 木棼手法이 매우 豪放하여 다른 寺刹基壇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雄健한 모습이다.

礎石과 基壇의 治石手法으로 보아 현존하는 金堂址는 三層石塔보다는 한 時代 뒤일 것으로서, 佛教奉行이 가장 旺盛했었던 高麗初期의 所作이 아닐가 생각된다. 이때의 居頓寺는 法泉寺 및 興法寺와 더불어 가장 盛觀을 갖춘 시기였을 것이며 圓空國師 智宗과 같은 高僧이 住錫하였던 시기이다.

1018 年에 세워진 圓空國師 勝妙塔은 統一新羅期 浮屠塔이래의 典型的인 八角圓堂形을 基本으로 滿面에 華麗한 彫刻으로 治裝한 基塔이다. 基塔部에 眼象과

蓮花彫飾한 외에 八部衆像을 배치하였고 塔身에 門扉와 鐵鑰, 그리고 四天王像을 배치함은 같은 時期의 다른 浮屠塔에서도 볼 수 있는 예이나, 龕室의 光窓을 마름모 세살창의 형태로 꾸며넣은 것과 塔身正面에 塔名을 刻한 예는 쉽게 類例를 찾아보기 어렵다.

屋蓋部 構成은 木造建物を 象徵的으로 模寫한 것으로 隅棟마루끝의 장식은 金堂周邊에서 수집된 망새기와片 및 鬼面望瓦片和 연관하여 注目된다.

이 勝妙塔은 塔碑와 함께 高麗時代 佛教彫刻美術의 精粹를 보여주는 石造物이라 할 수 있으나 그 彫法이 纖弱하고 細刻에 흘러 雄渾함이나 生動感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勝妙塔碑는 墓塔보다 7年後에 세워졌다. 거대한 單一石의 龜趺위에 碑身石을 세우고 螭首였은 형식은 統一新羅이래의 通例를 따르고 있다.

龜頭는 이 시기의 龜趺가 대체로 환상적인 龍頭로부터 점차 獸頭化해 가는 경향을 좇아 그런 모습을 다소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 순수하고 順厚한 龍頭의 姿態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크고 뚜렷한 龜甲의 형상은 정확하게 六角形의 重郭龜甲紋을 이루었고 그 內區에 卍字와 寶花紋을 넣어 장식하였음은 이 시대의 南漢江邊에 이웃한 高達寺址, 興法寺址등의 石碑龜趺와 비슷하여 時代와 地域性을 잘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巨大한 螭首下面에 垂直集線帶를 둘러 장엄을 살린것과 螭首頂上에 별도로 突起된 上段部를 형성, 爭珠하는 二龍을 刻出함으로서 莊重하게 꾸며져 있음은 다른 碑와 相異한 樣式이라 할 수 있다.

寺址內에 散在한 礎石과 長臺石, 紋樣石들의 精緻한 加工과 彫刻手法에서 盛觀을 이루던 高麗時代 彫刻美術의 眞面目을 對할 수 있는 듯하다. 寺刹의 沿革을 밝힐 수 있는 文獻的 資料는 매우 貧弱한 편이나 많은 石造物과 瓦片, 土器片의 수습으로 대체적인 寺觀은 살필 수 있었다.

三層石塔의 構造樣式과 金堂周邊의 中心郭 일대에서 發見된 바래기 望瓦類의 굽새기와 片, 또 鬼面望瓦片의 수습은 居頓寺가 高麗以前부터 있었음을 보여주는 事例라 할 수 있으며 金堂基壇의 構成형식과 礎石의 加工手法에서 高麗初期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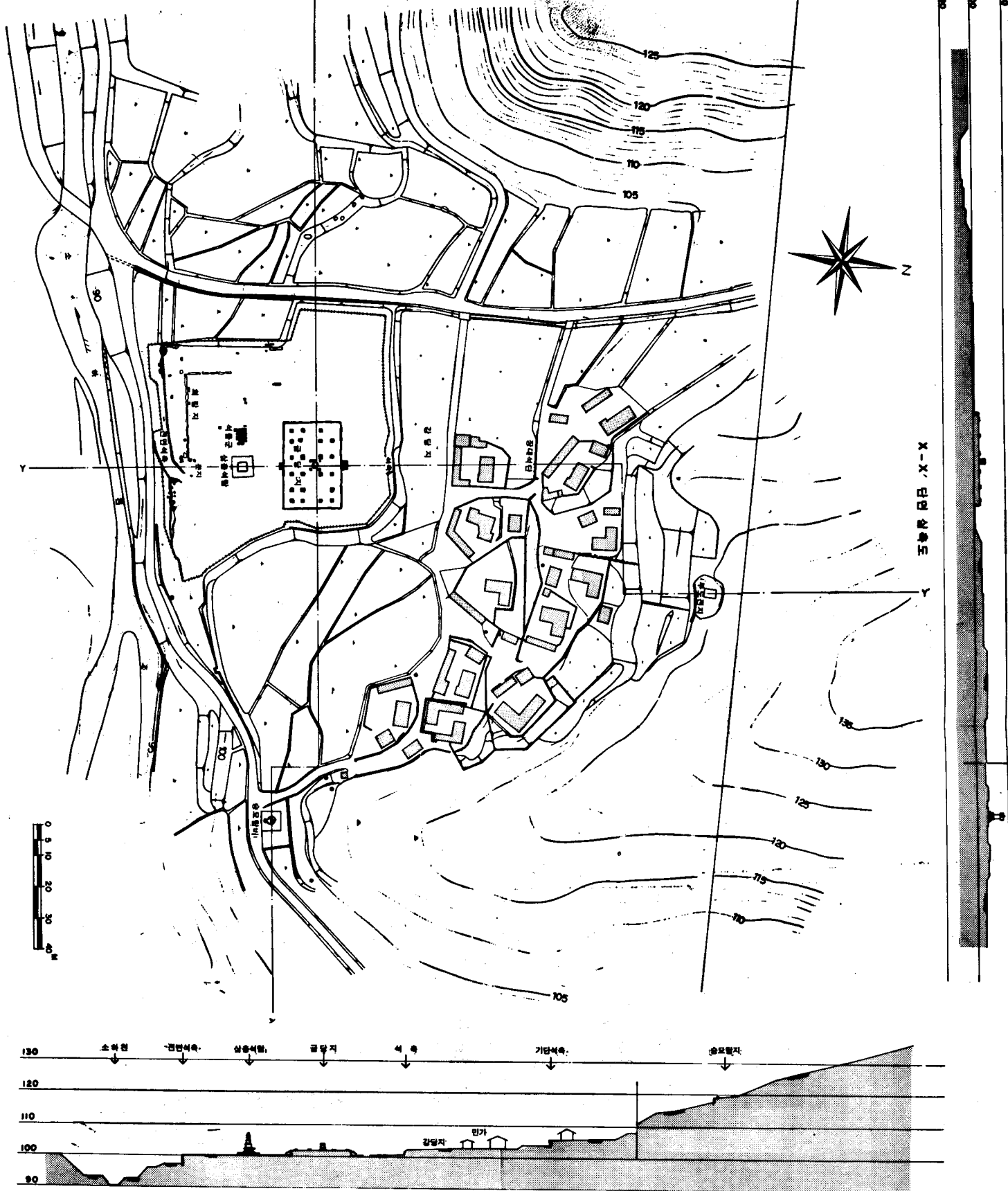
時代感을 느낄 수 있어 이웃에 인근한 法泉寺와 興法寺 그리고 驪州의 高達寺址 등과 더불어 9세기경의 羅末로부터 高麗때의 繁盛期를 거쳐 朝鮮中期까지 寺勢를 維持하여 왔던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寺運이 다하여 法脈이 끊기고 香火가 完全히 꺼진 下限時期를 明確히 밝힐 수 있는 資料는 찾지 못했다. 대체로 壬辰倭亂을 전후한 시기가 아닐가 하는 鄉土史家들의 意見을 경청하며 앞으로도 持續的인 研究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寺址全域에 對한 精密發掘을 통한 本格的인 學術調査가 이루어져 더 많은 遺構가 露出됨으로서 이 寺址의 重要性이 인식되고 積極적인 保存策이 강구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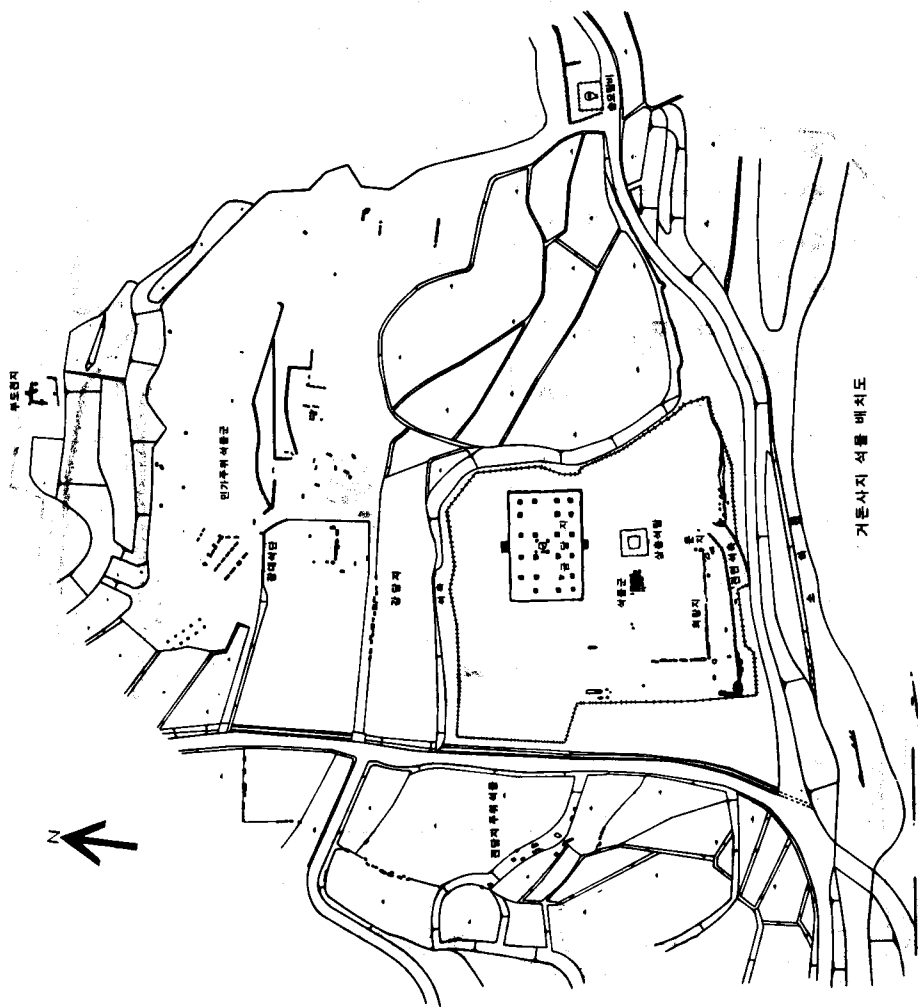
實 測 圖 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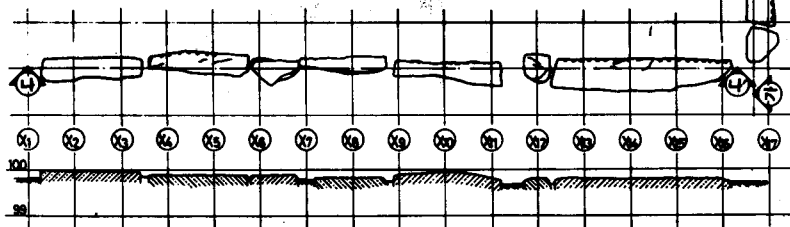
| | | | |
|-----|------|-----------------------|-----|
| 1. | 거돈사지 | 지형현황실측도 | 141 |
| 2. | " | 석물배치도 | 143 |
| 3. | " | 중심곽현황실측도 | 144 |
| 4. | " | 회랑지 평면실측도 | 145 |
| 5. | " | 전면석축벽(西便) 현황도 | 146 |
| 6. | " | " (東便) 현황도 | 147 |
| 7. | " | 강당지후면 건물기단 및 강단전면석축 | 148 |
| 8. | " | 삼층석탑(남측, 동측)입면도 | 149 |
| 9. | " | " (서측, 북측)입면도 | 150 |
| 10. | " | " 단면실측도 | 151 |
| 11. | " | " 각층 평면, 양시도 | 152 |
| 12. | " | " 각층 상세도 | 153 |
| 13. | " | 금당지 평면실측도 | 154 |
| 14. | " | " 기단실측도(동, 서, 남, 북입면) | 155 |
| 15. | " | " 초석, 기단상세도 | 156 |
| 16. | " | " 불상대 좌석실측도 | 157 |
| 17. | " | 원공국사승묘탑 정면도(남측) | 158 |
| 18. | " | " 북측입면도 | 159 |
| 19. | " | " 서측입면도 | 160 |
| 20. | " | " 동측입면도 | 161 |
| 21. | " | " 각층상세도(기단부) | 162 |

| | | | | |
|------|------|----------|---------------------|-----|
| 22 . | 거돈사지 | 원공국사승묘탑 | 각층상세도 (탑신 . 옥개부) | 163 |
| 23 . | " | 원공국사승묘탑비 | 평면실측도 | 164 |
| 24 . | " | " | 정면도 | 165 |
| 25 . | " | " | 측면도 | 166 |
| 26 . | " | " | 배면도 | 167 |
| 27 . | " | " | 단면도, 이수양시, 기단평면도 | 168 |
| 28 . | " | 부도전지 | 실측도 (평면, 단면) | 169 |
| 29 . | " | 금당전면 | 석물군 실측도 (배치 및 상세) | 170 |
| 30 . | " | " | " | 171 |
| 31 . | " | 민가주위 | 석물분포도 | 172 |
| 32 . | " | " | 석물실측도 1 | 173 |
| 33 . | " | " | 석물실측도 2 | 174 |
| 34 . | " | " | 전답주위 석물실측도 | 175 |
| 35 . | " | 전답주위 | 석물분포도 | 17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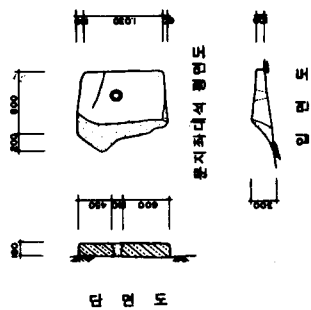


Y-Y'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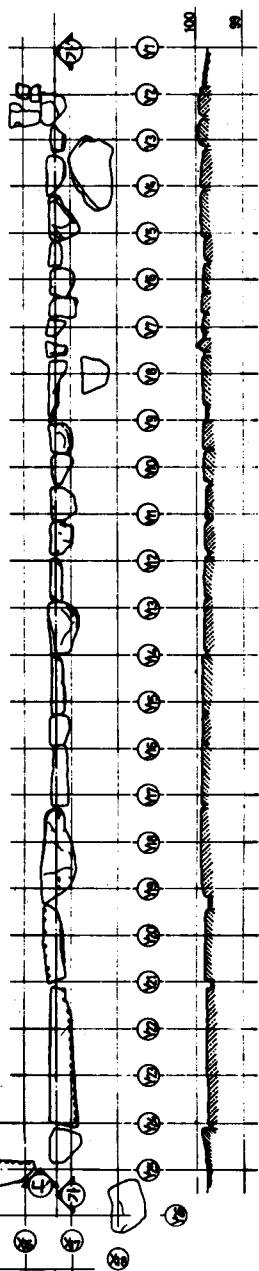


도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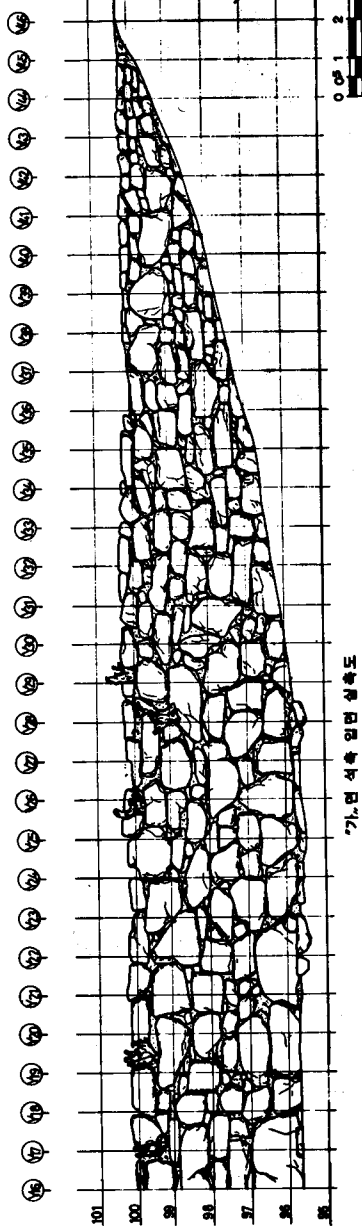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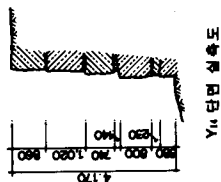
문지좌대석 평면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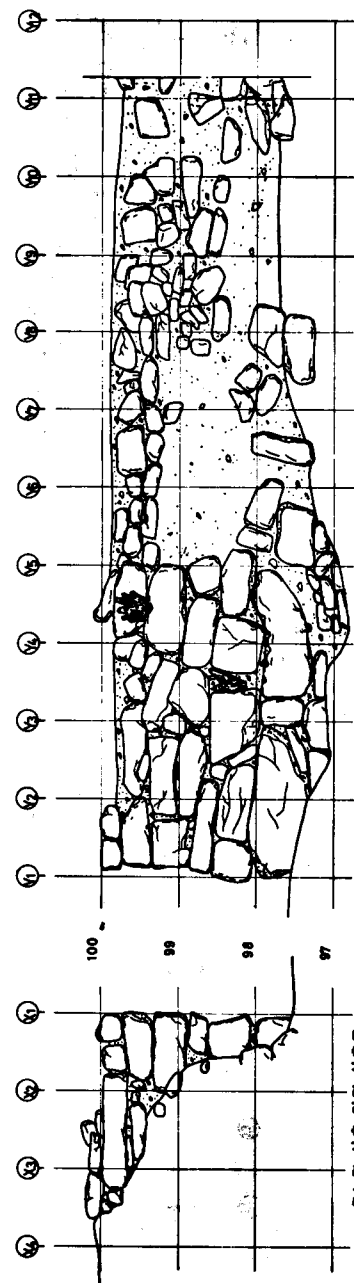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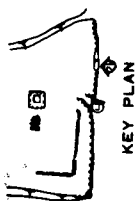


가-가 단면 실측도

중심과 회랑지 평면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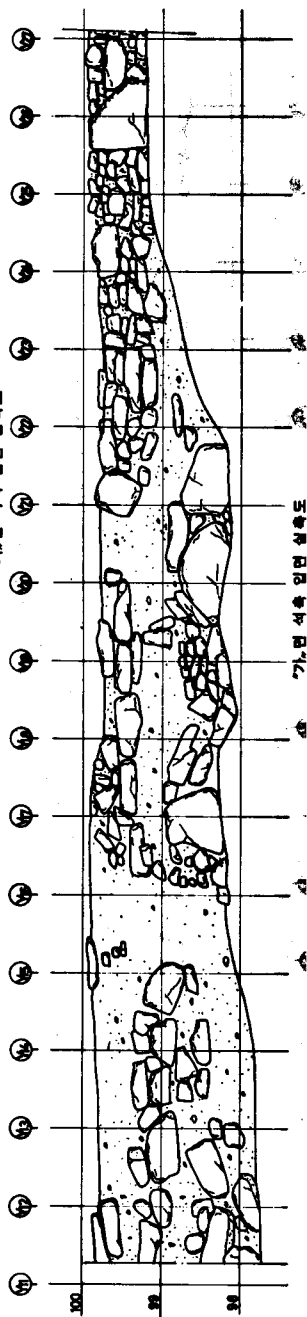
- 146 -



가나.면 석축 입면 실측도

가나.면 석축 입면 실측도

가나.면 실측도



가나.면 석축 입면 실측도

가나.면 석축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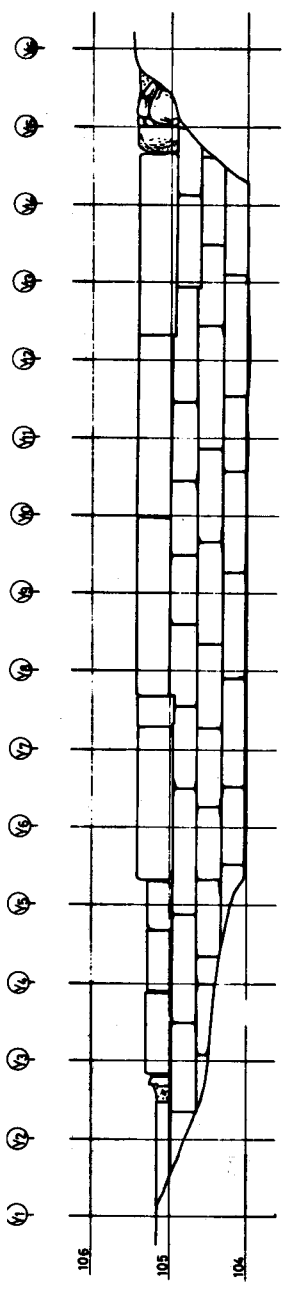
가나.면 석축 입면 실측도

가나.면 석축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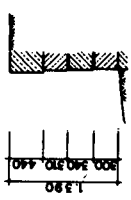
가나.면 석축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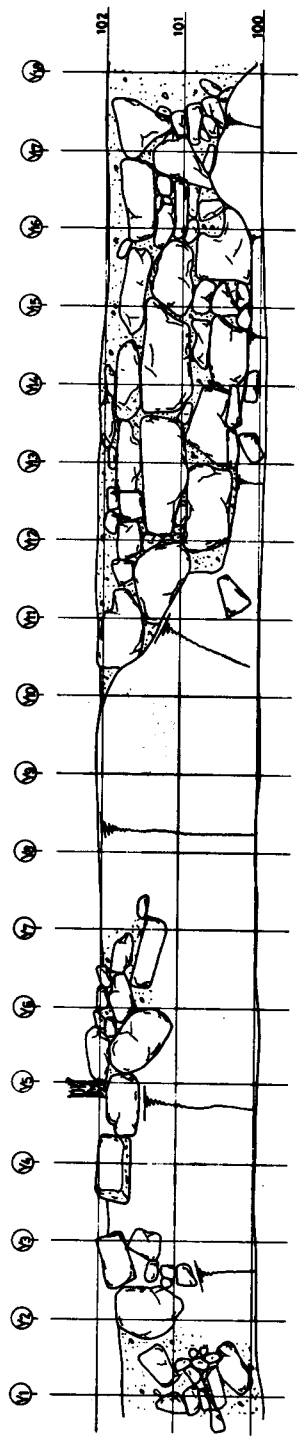
거둔사지 전면 석축벽 (東便)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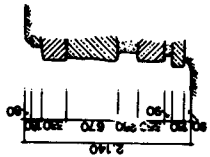
경주시국립박물관지하기단 입면 실측도



Y11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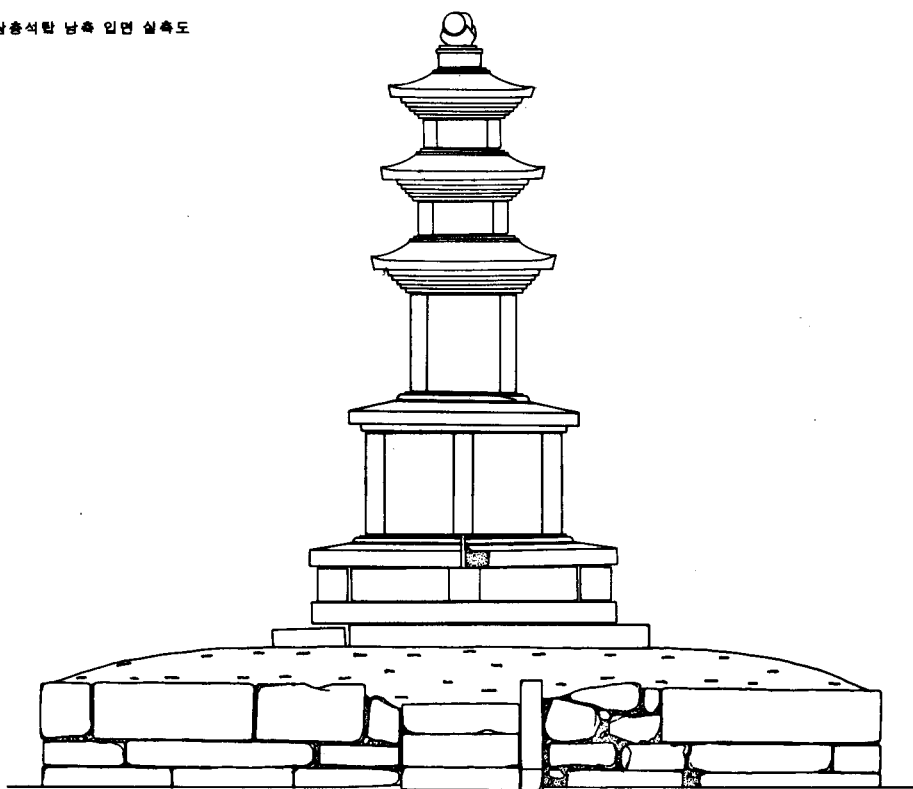
경주시국립박물관지하기단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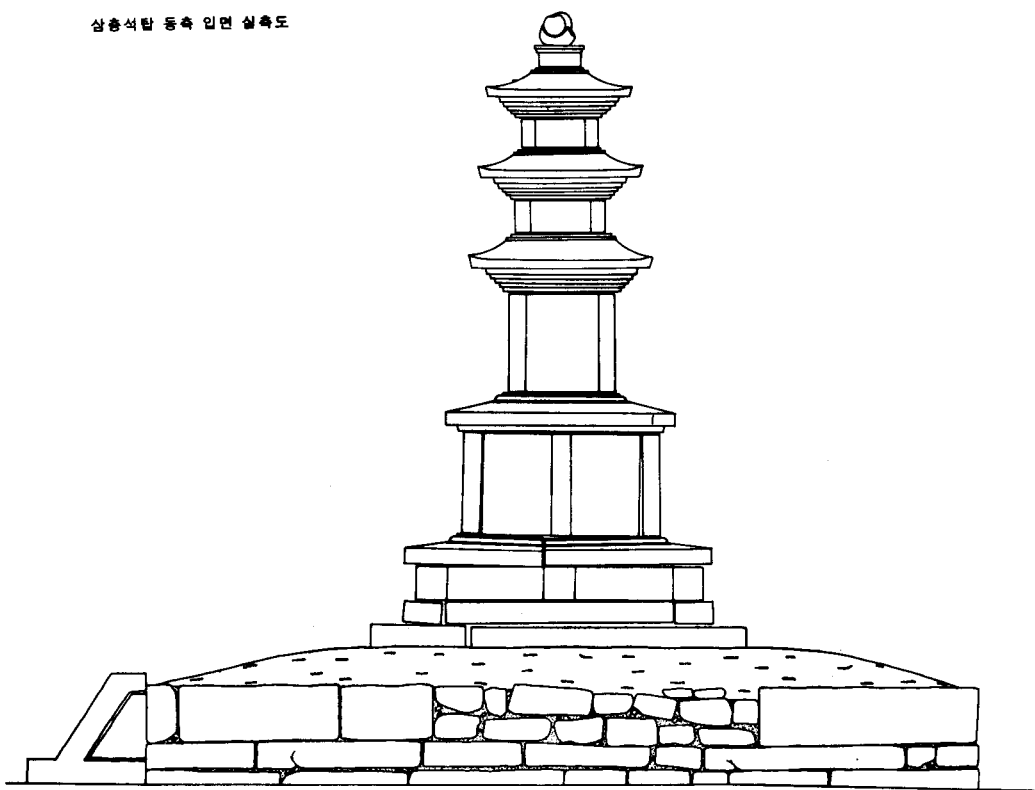
Y10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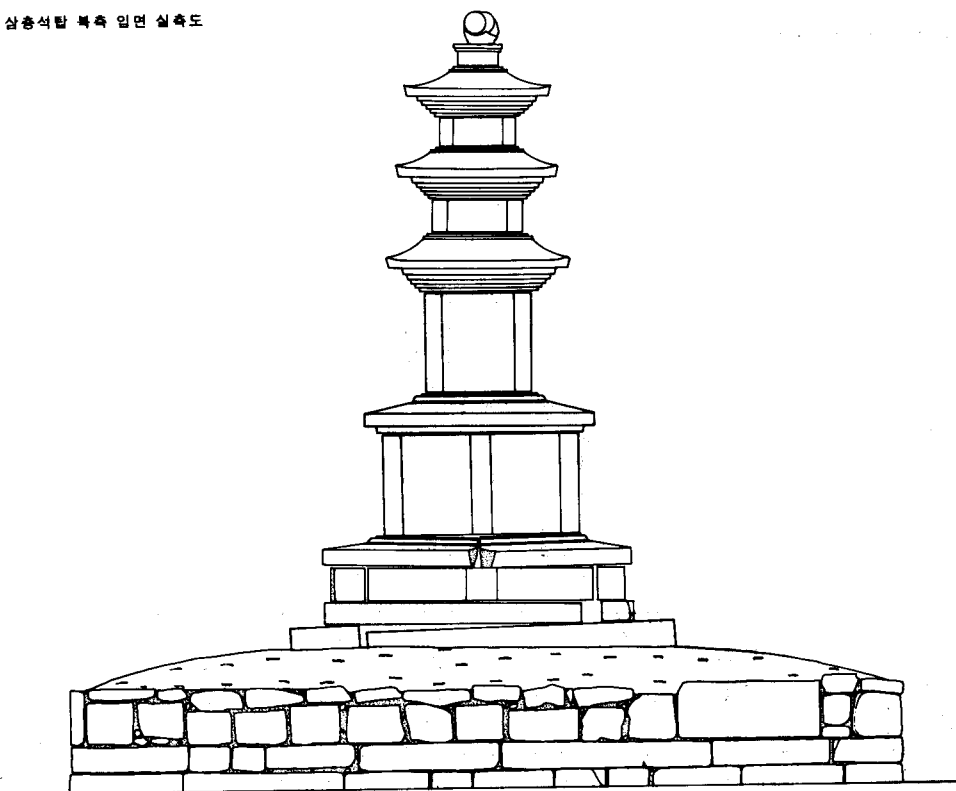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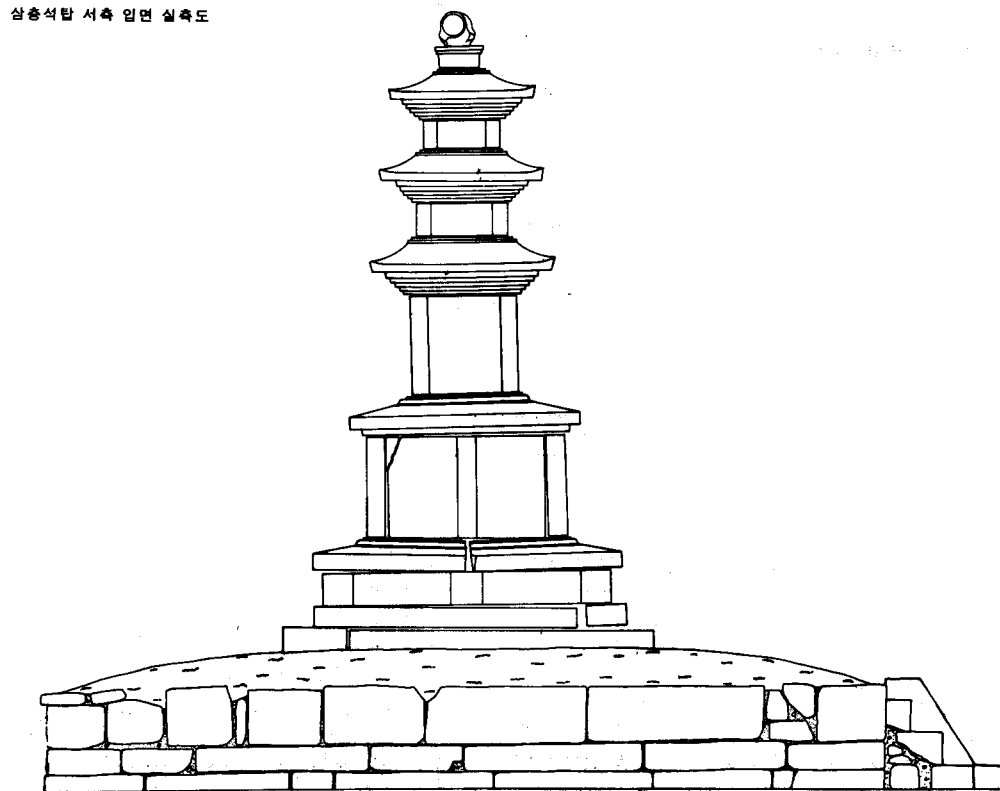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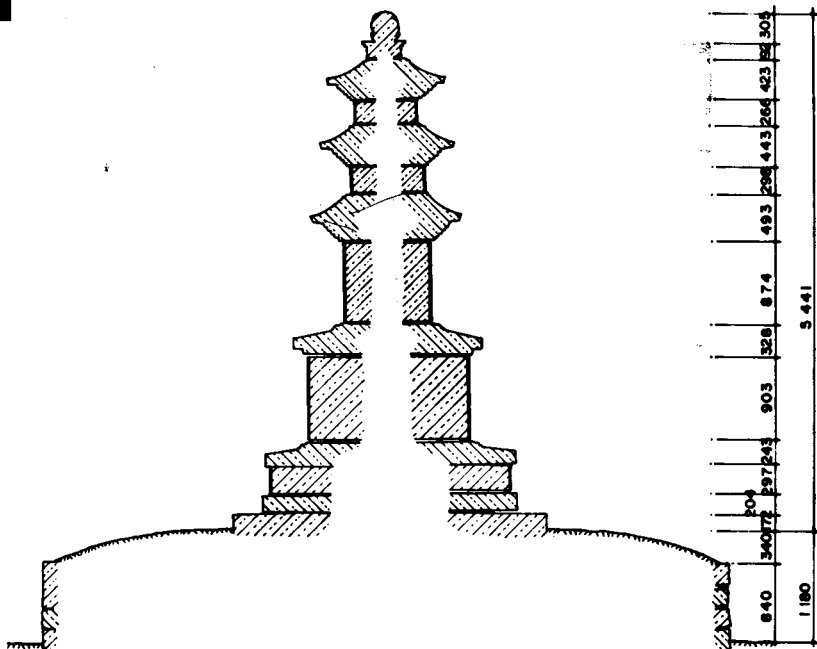
삼층석탑 남측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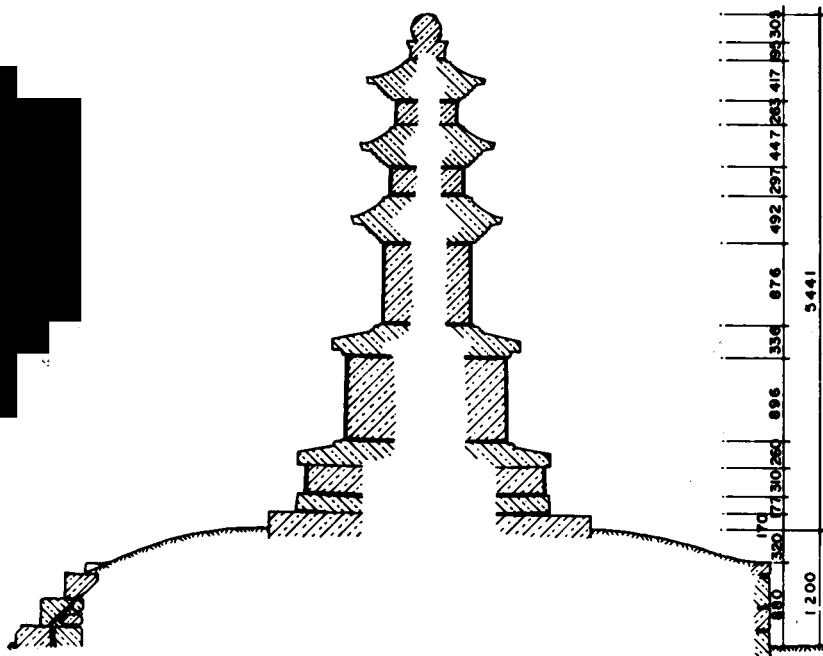
삼층석탑 동측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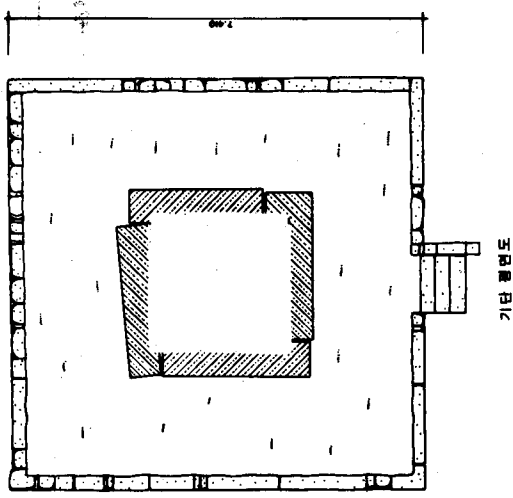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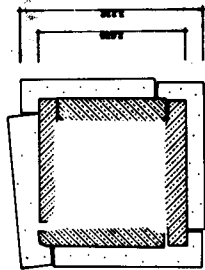
동 - 서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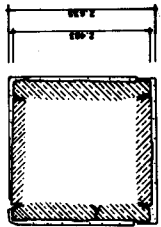
남 - 북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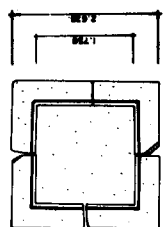
기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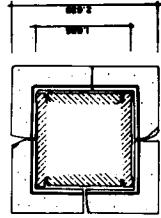
기대석평면및 기대석제거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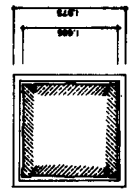
기대석평면및 기대석제거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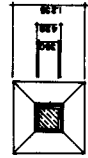
기대 감석 평면도



기대감석평면및 기대석제거단면도



기대 감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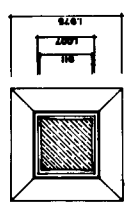
3층 옥개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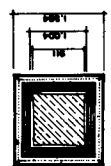
노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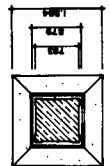
삼층석탑 각종 평면,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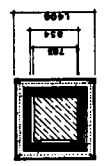
상대 감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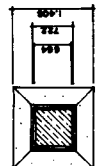
초층 옥개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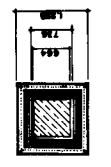
초층 옥개석 평면도



2층 옥개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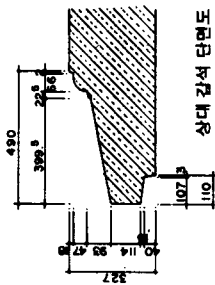
2층 옥개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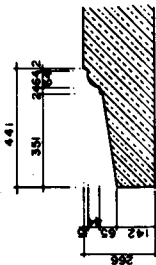
3층 옥개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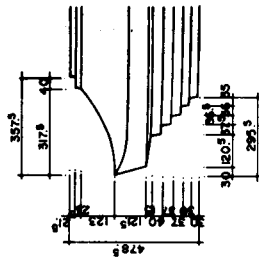
탑실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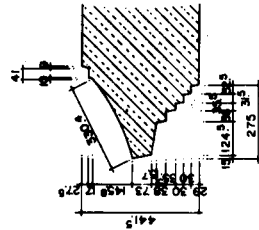
상대 각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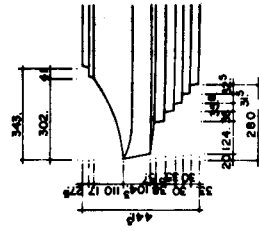
하대 각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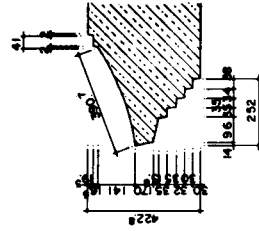
초층 옥개석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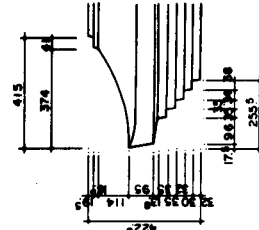
2층 옥개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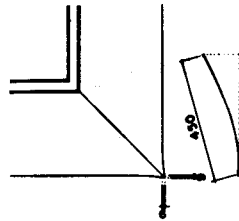
2층 옥개석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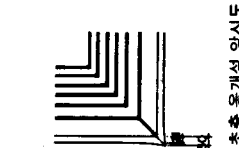
3층 옥개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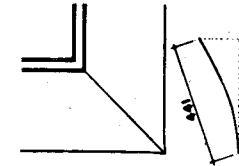
3층 옥개석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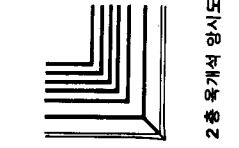
초층 옥개석 부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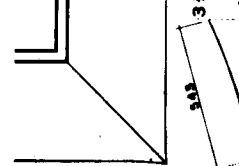
초층 옥개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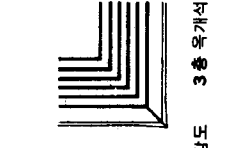
2층 옥개석 부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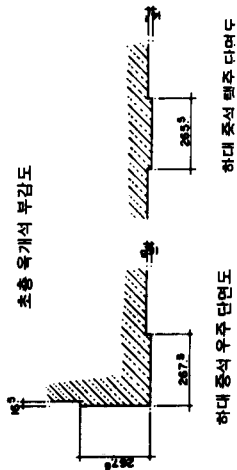
2층 옥개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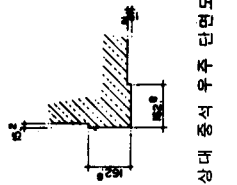
3층 옥개석 부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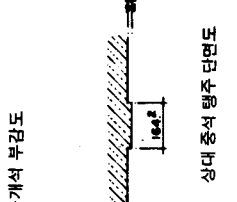
3층 옥개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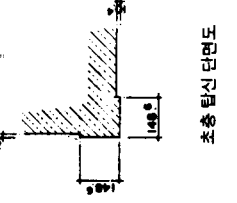
하대 중석 우측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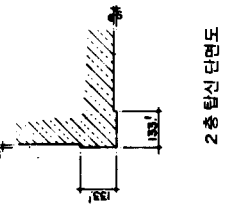
상대 중석 좌측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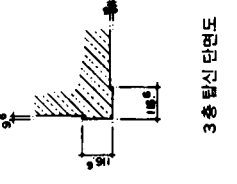
상대 중석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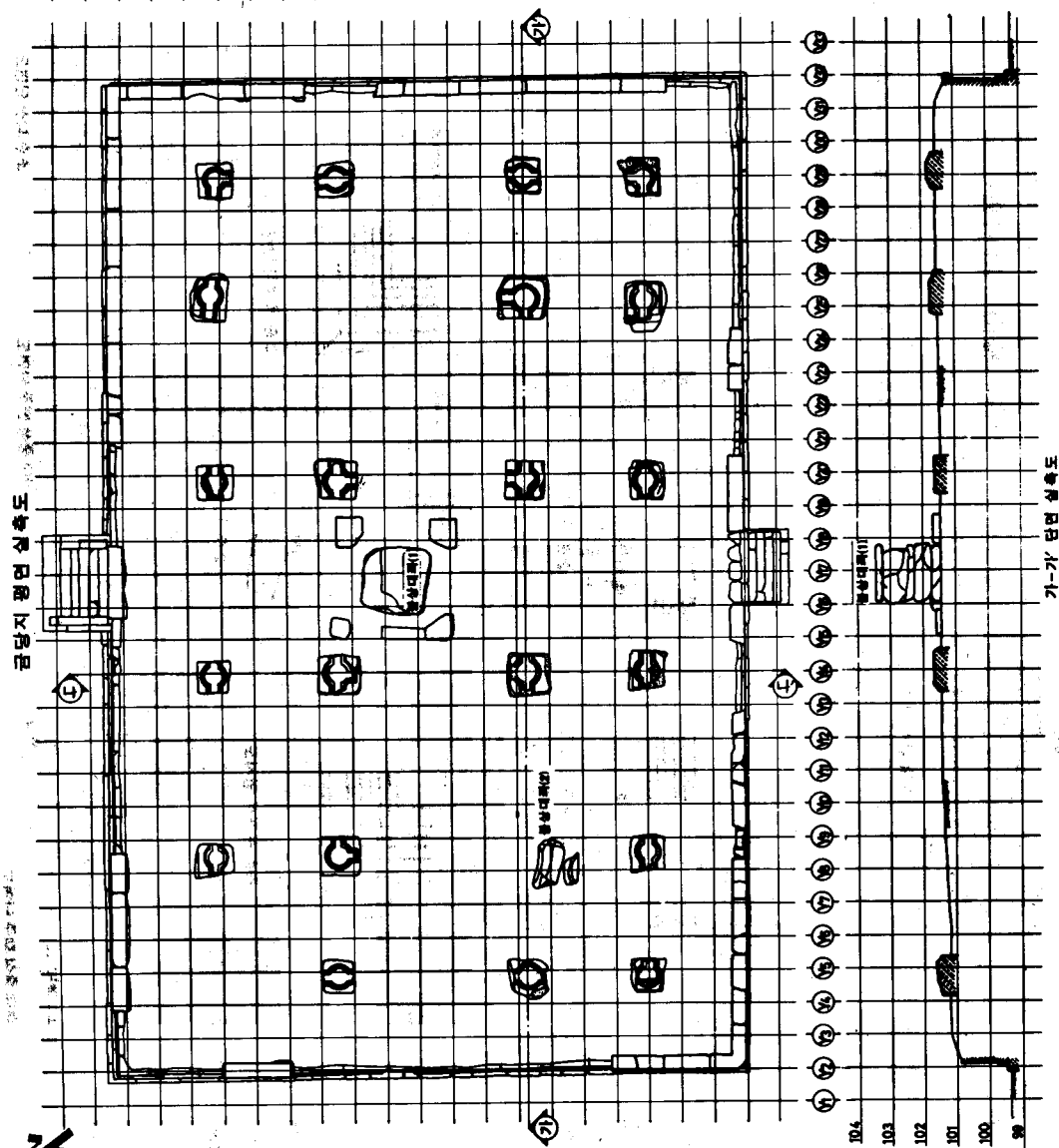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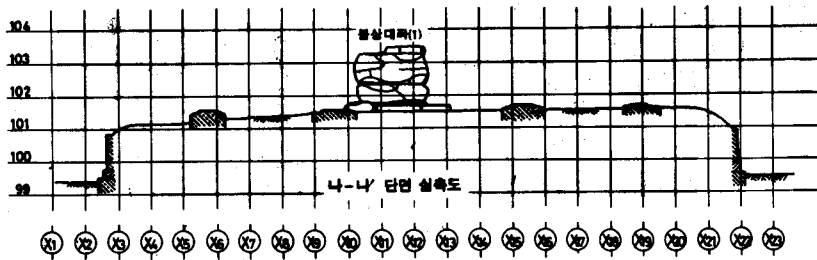
초층 탑신 단면도



2층 탑신 단면도



3층 탑신 단면도





남측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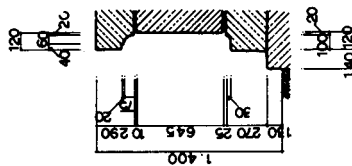
북측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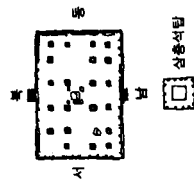
서측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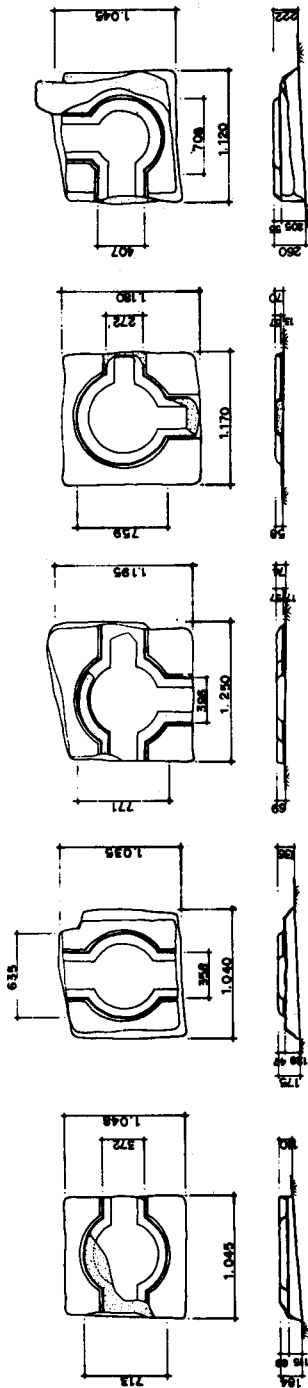


동측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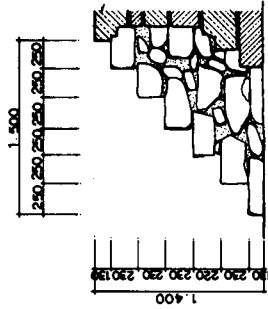


기단 단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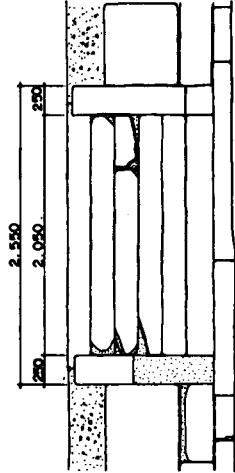
초석 평면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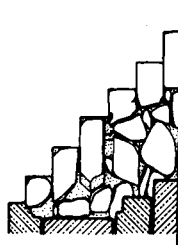
돌축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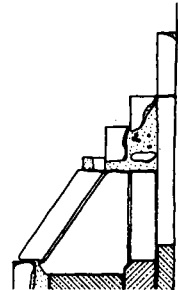
돌축 평면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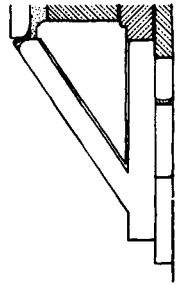
돌축 평면 입면 실측도



돌축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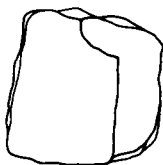


돌축 평면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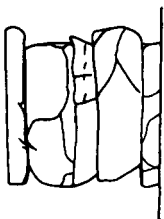


돌축 평면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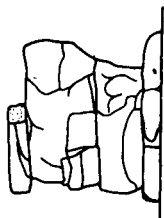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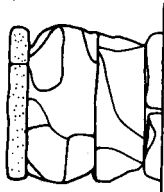
평면 석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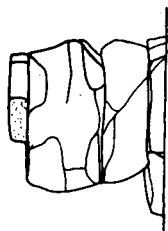
평면 석축도



평면 석축도



평면 석축도



평면 석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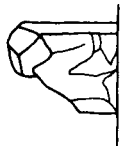
불상대좌(1)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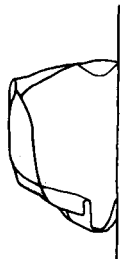
평면 석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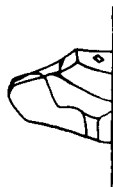
평면 석축도



평면 석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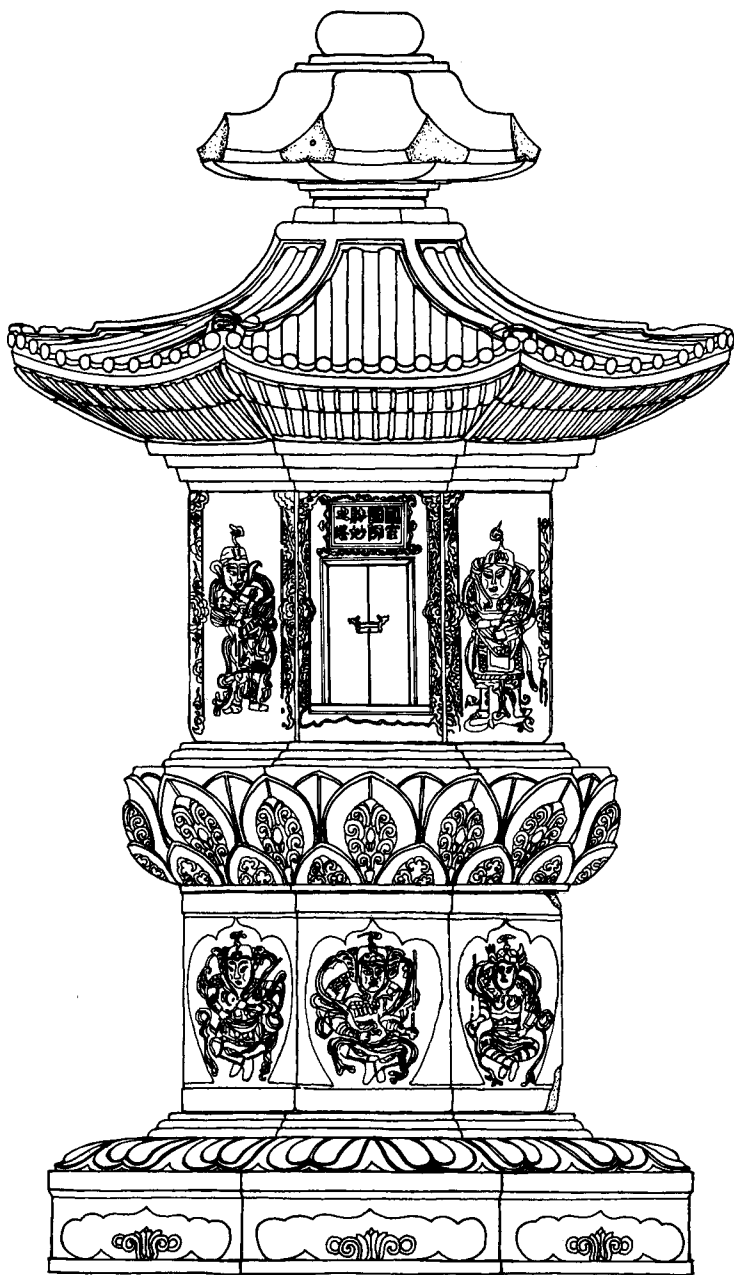
평면 석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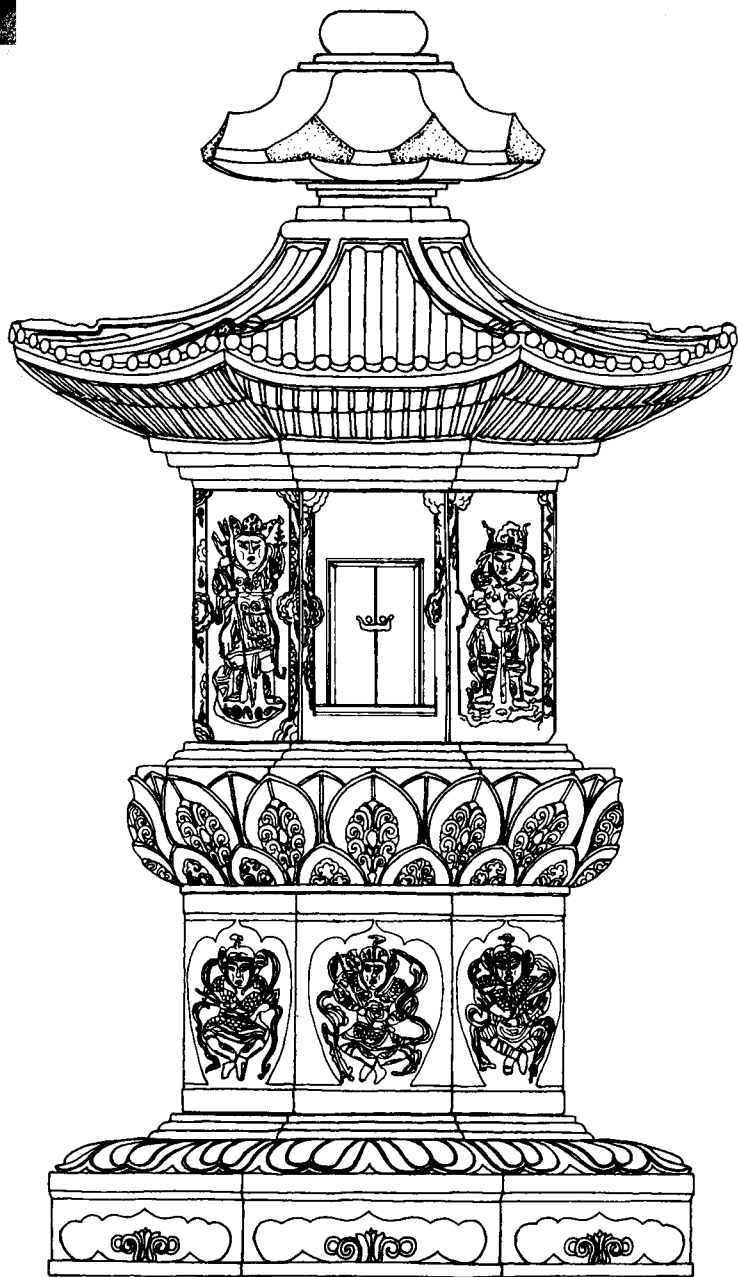
평면 석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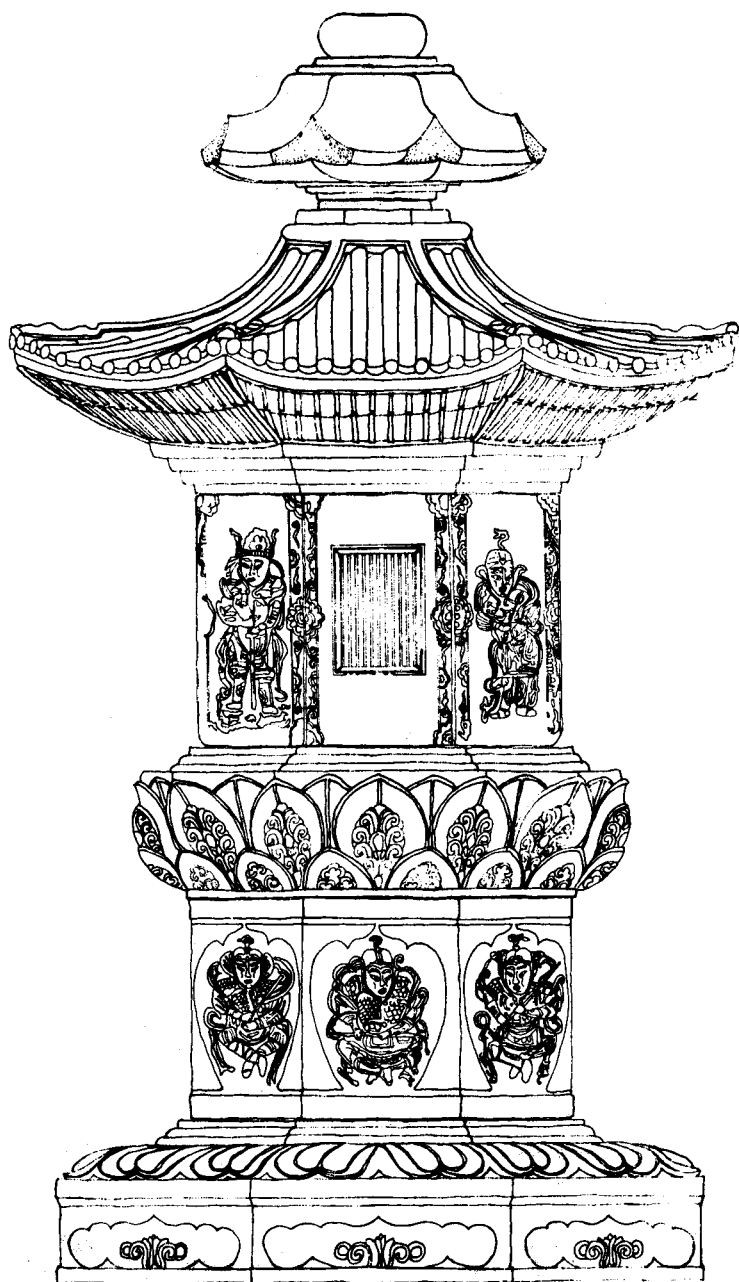
불상대좌(2)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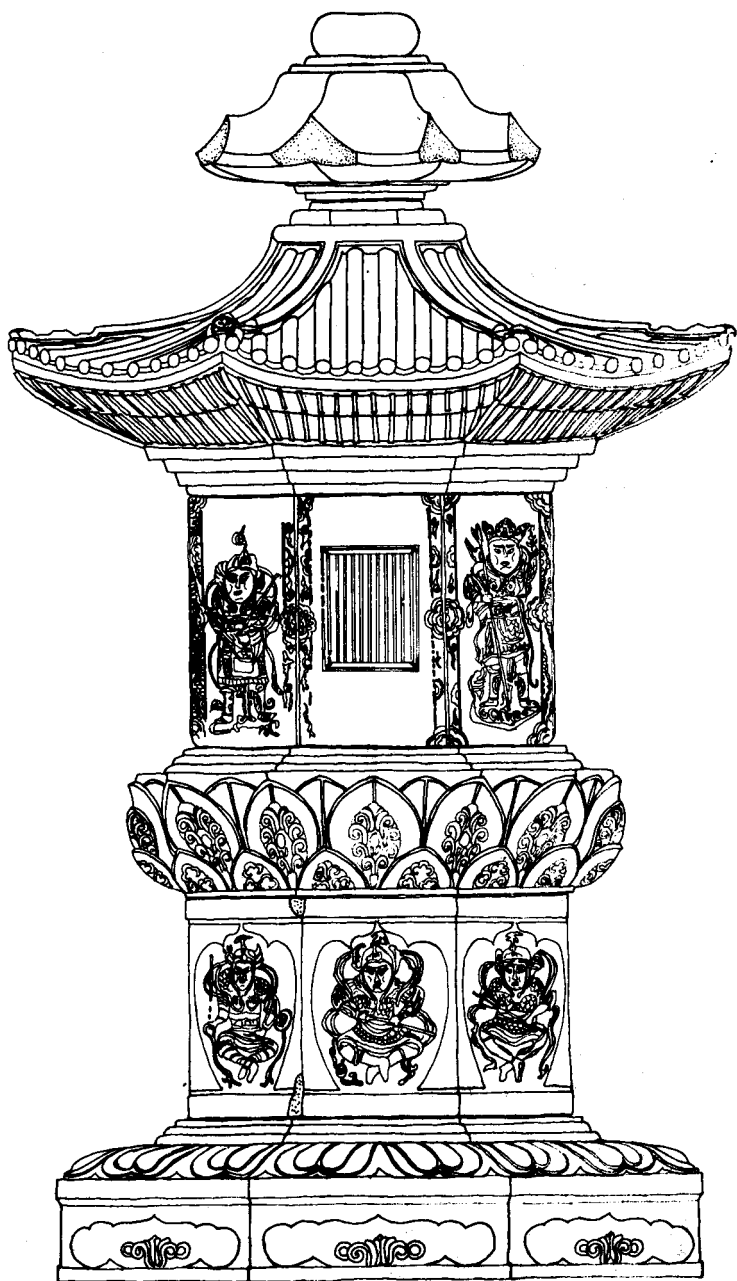
승묘탑 남측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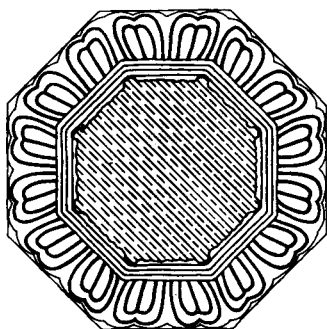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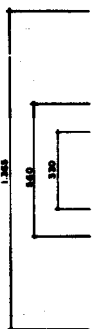
승묘탑 북측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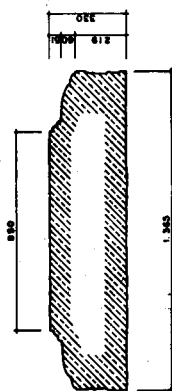
승묘탑 서측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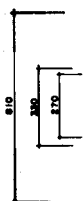
승묘탑 동측 입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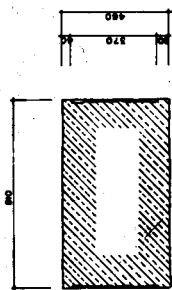
하대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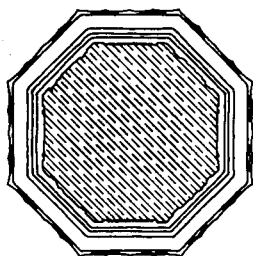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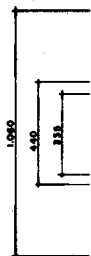
하대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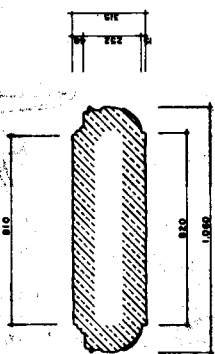
중대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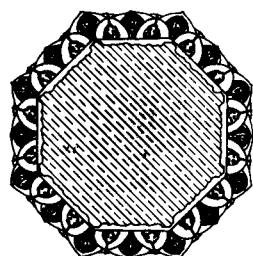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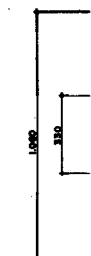
중대석 단면도



중대석 부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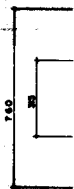


중대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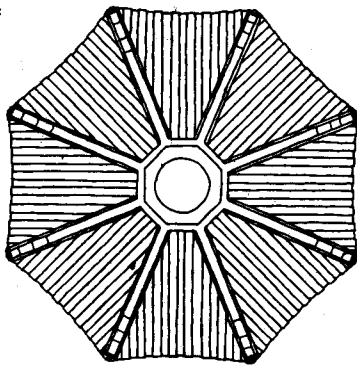


상대석 양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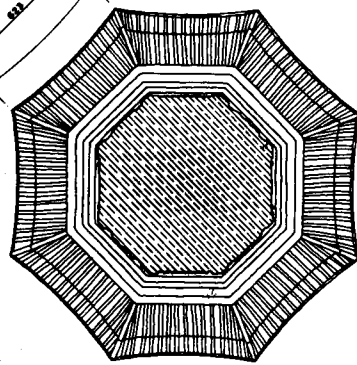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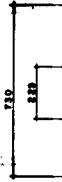
정신석 평면도



중앙석 뒷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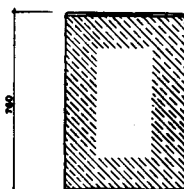
중앙석 앞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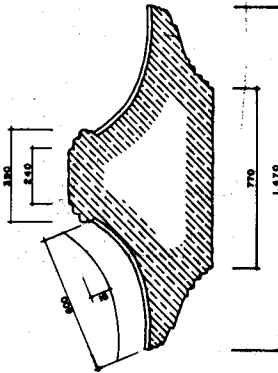
외개석 뒷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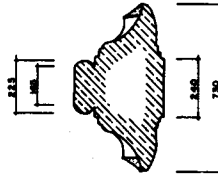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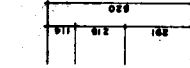
외개석 앞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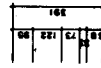
정신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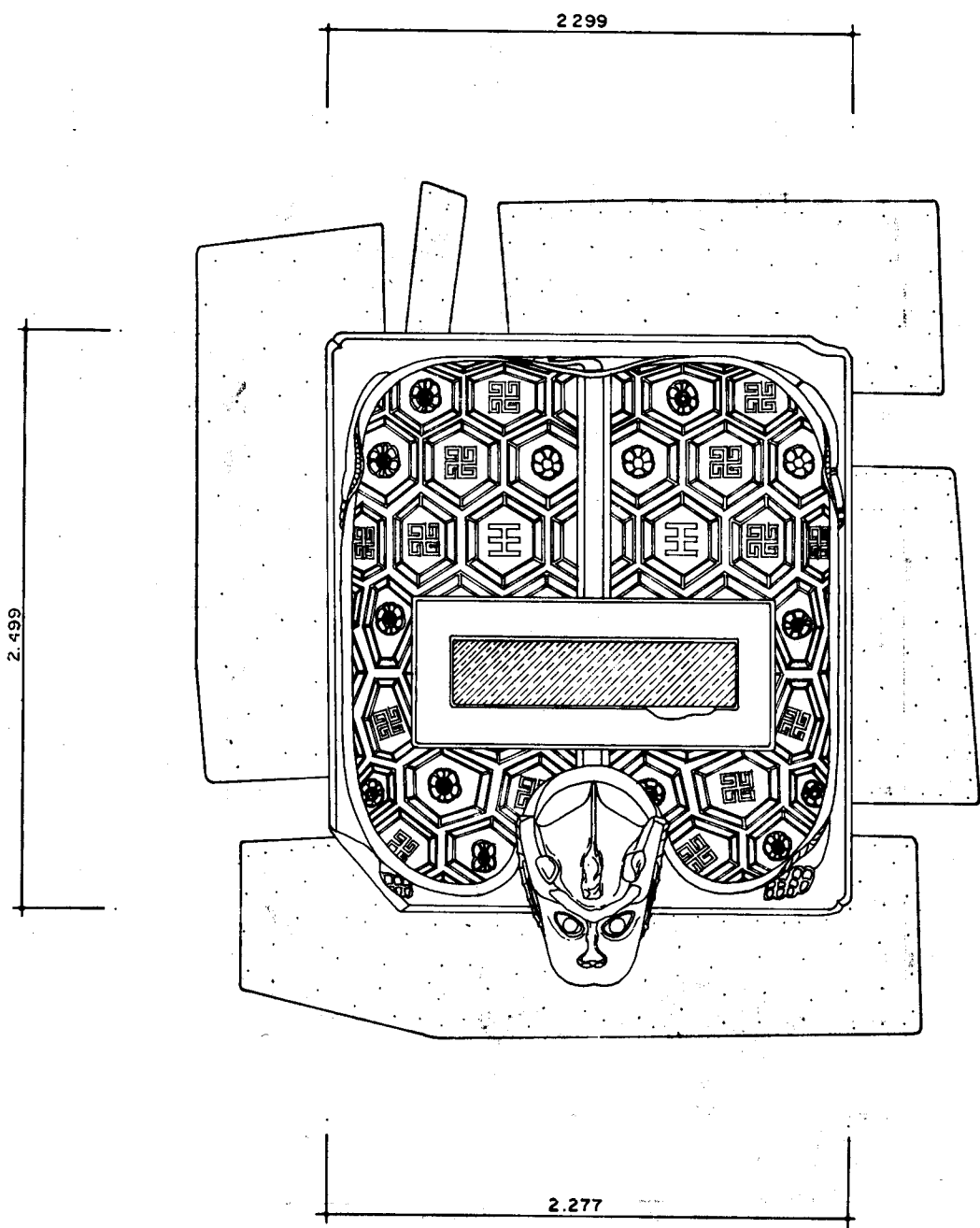


중앙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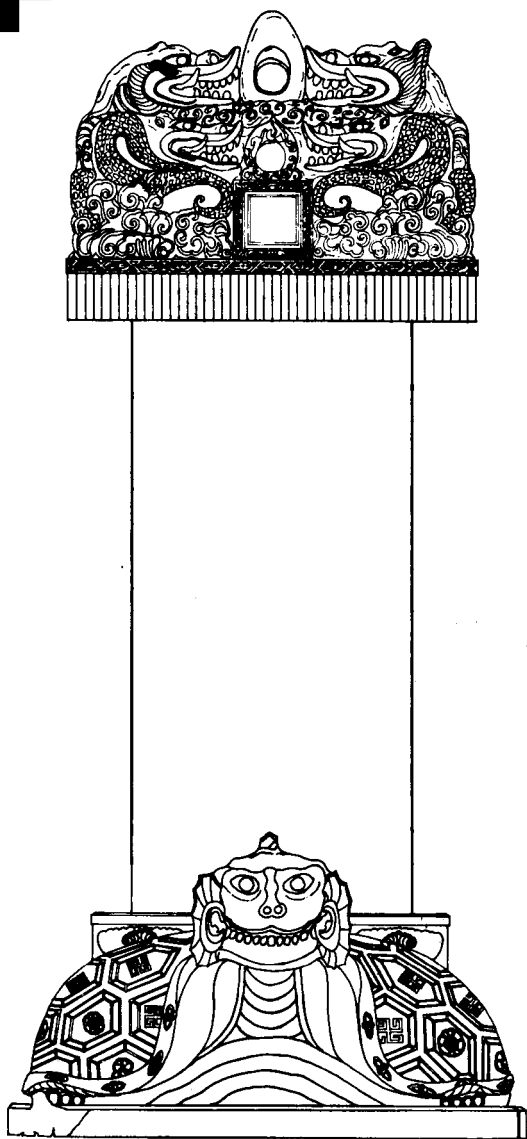


외개석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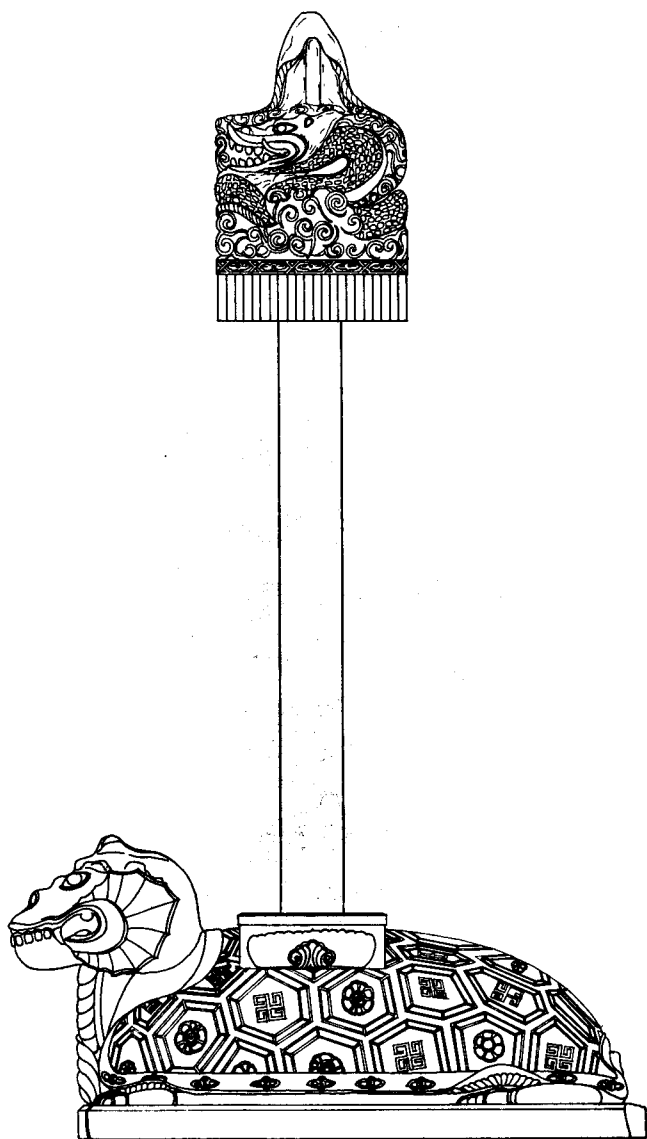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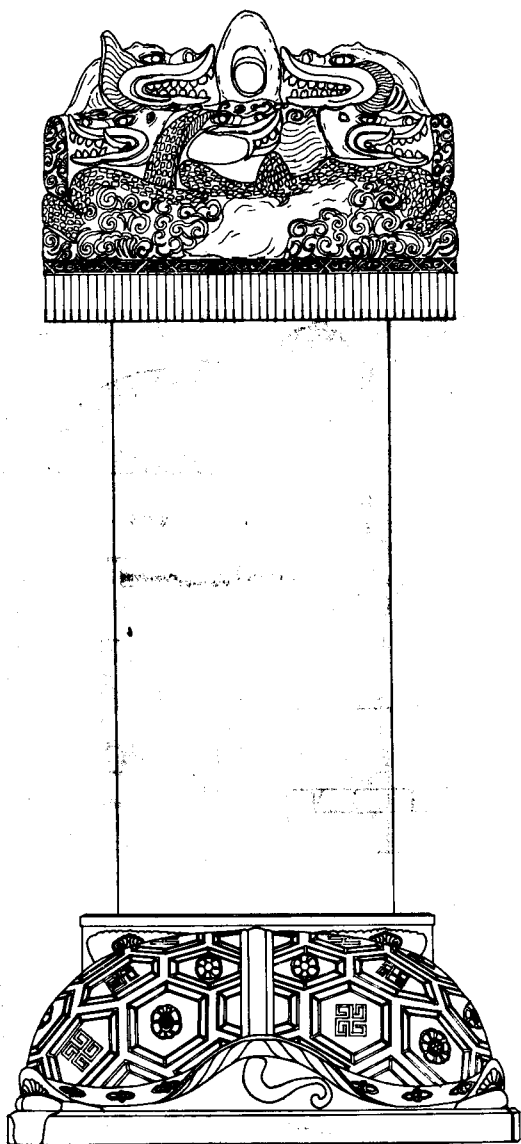
승묘탑비 평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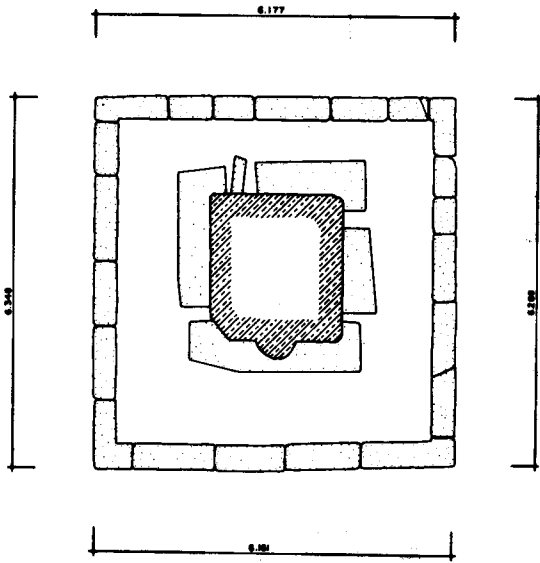
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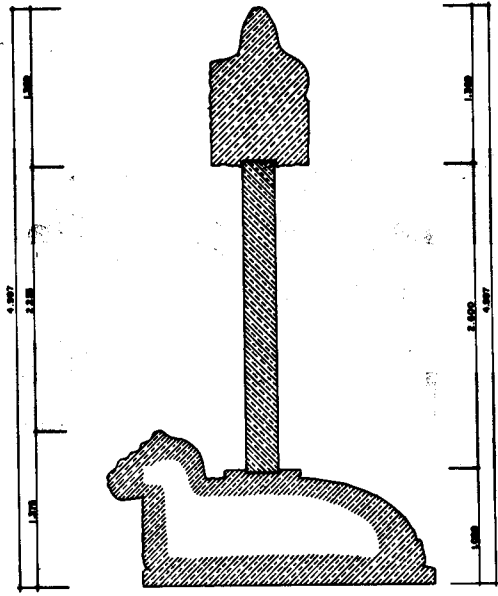
측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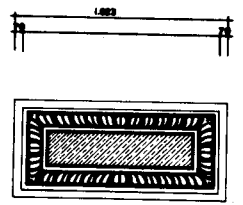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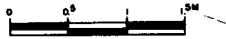
배 면 도



승묘탑비 기단 평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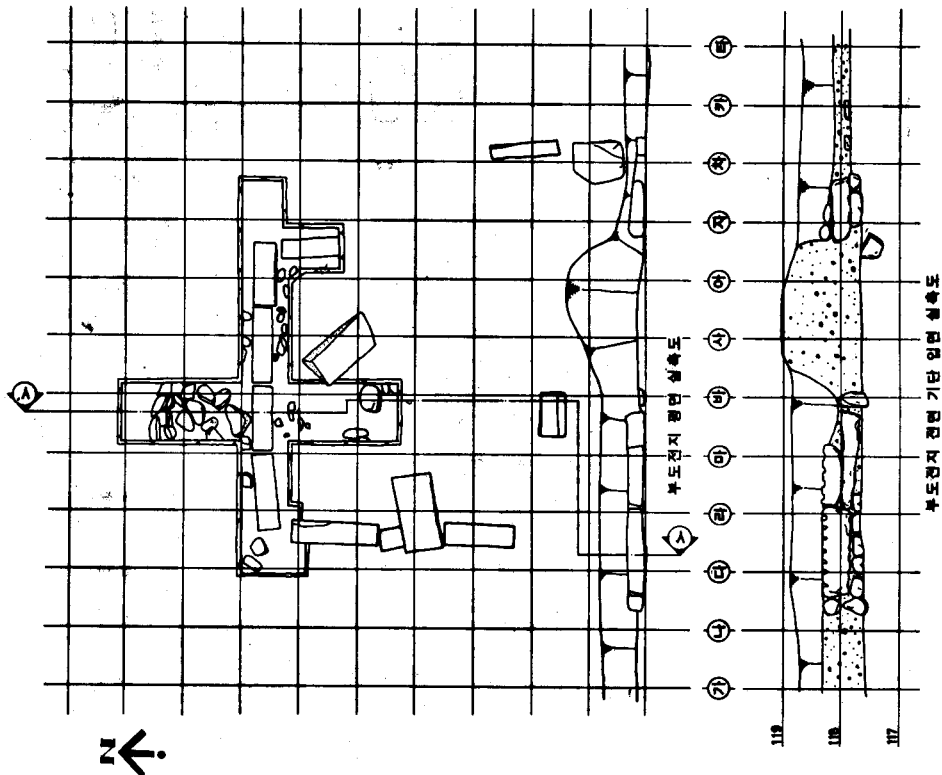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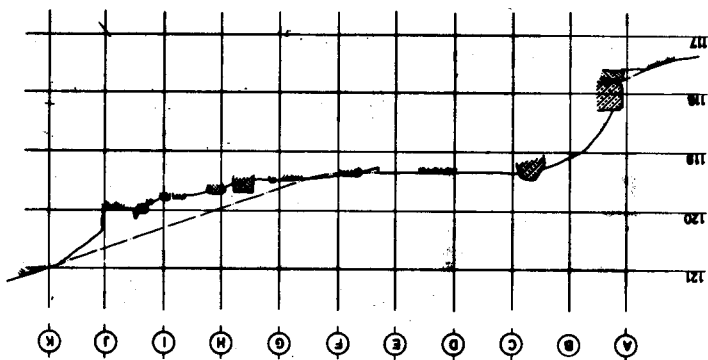
승묘탑비 단면 실측도



비 이수 양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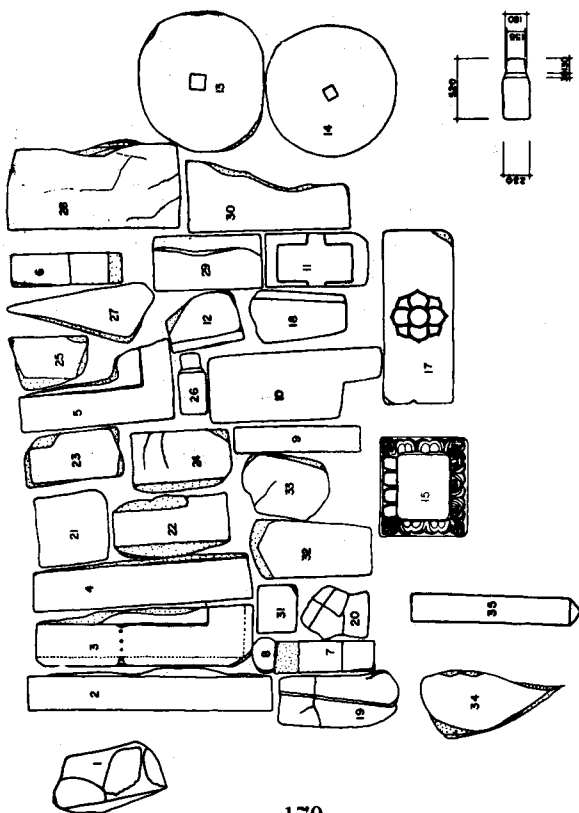


五等尺 尺目 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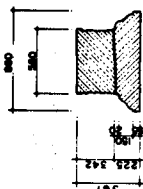




금강전면 석물군 평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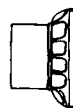
15 연화 대좌, 신석, 실측도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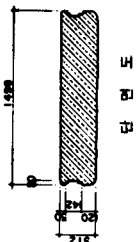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북측입면도

17 배례대 실측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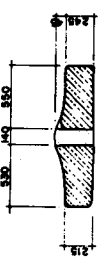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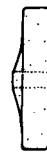


동측입면도

13 원형편석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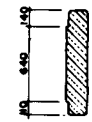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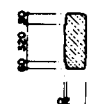


입면도

11 석물 실측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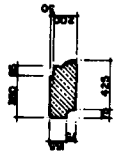
남측입면도



3 기단 감석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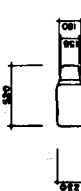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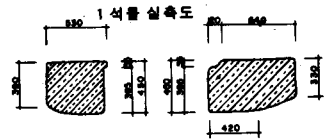
26 석물 평면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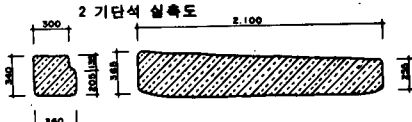
금강전면 석물군 실측도

모양과 크기의 다른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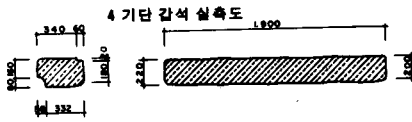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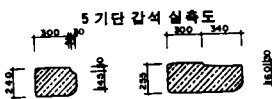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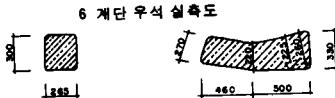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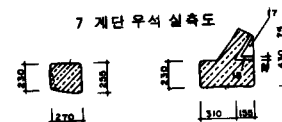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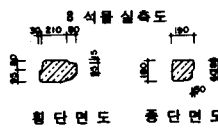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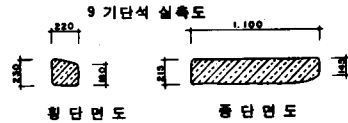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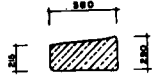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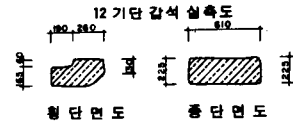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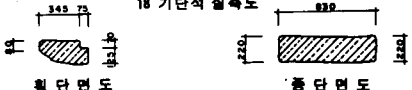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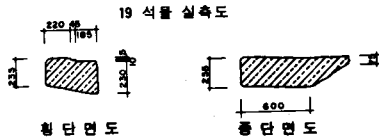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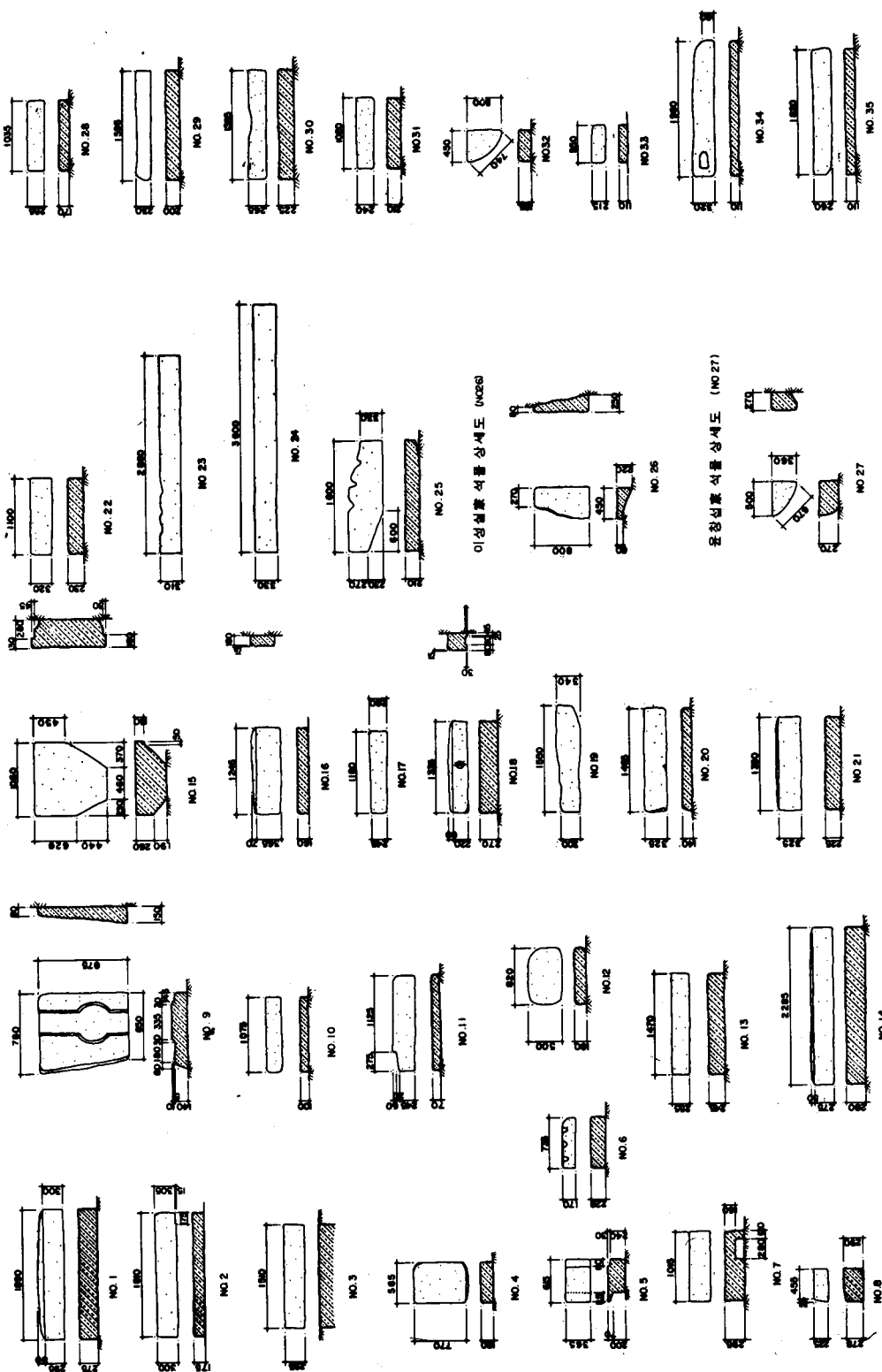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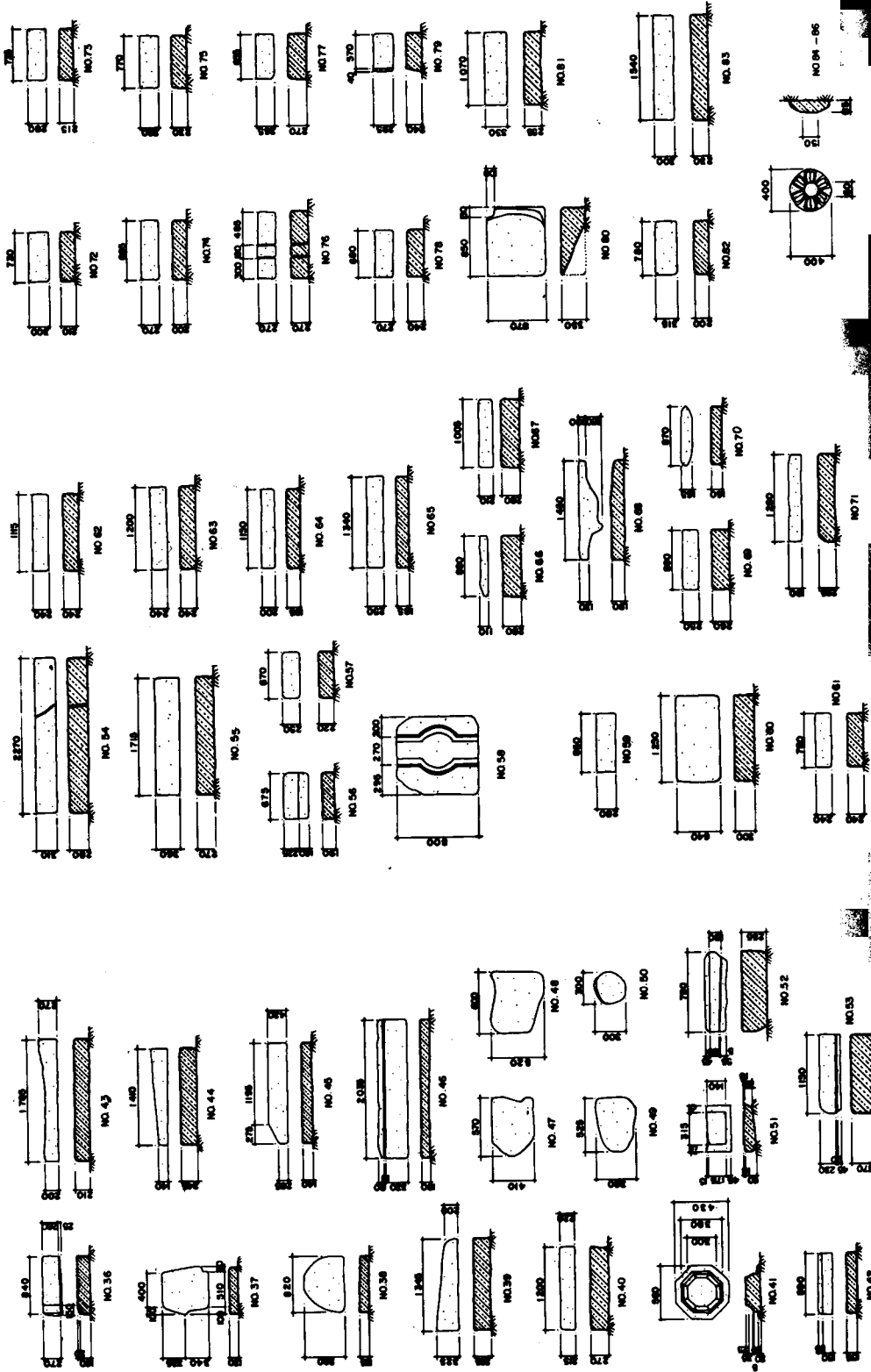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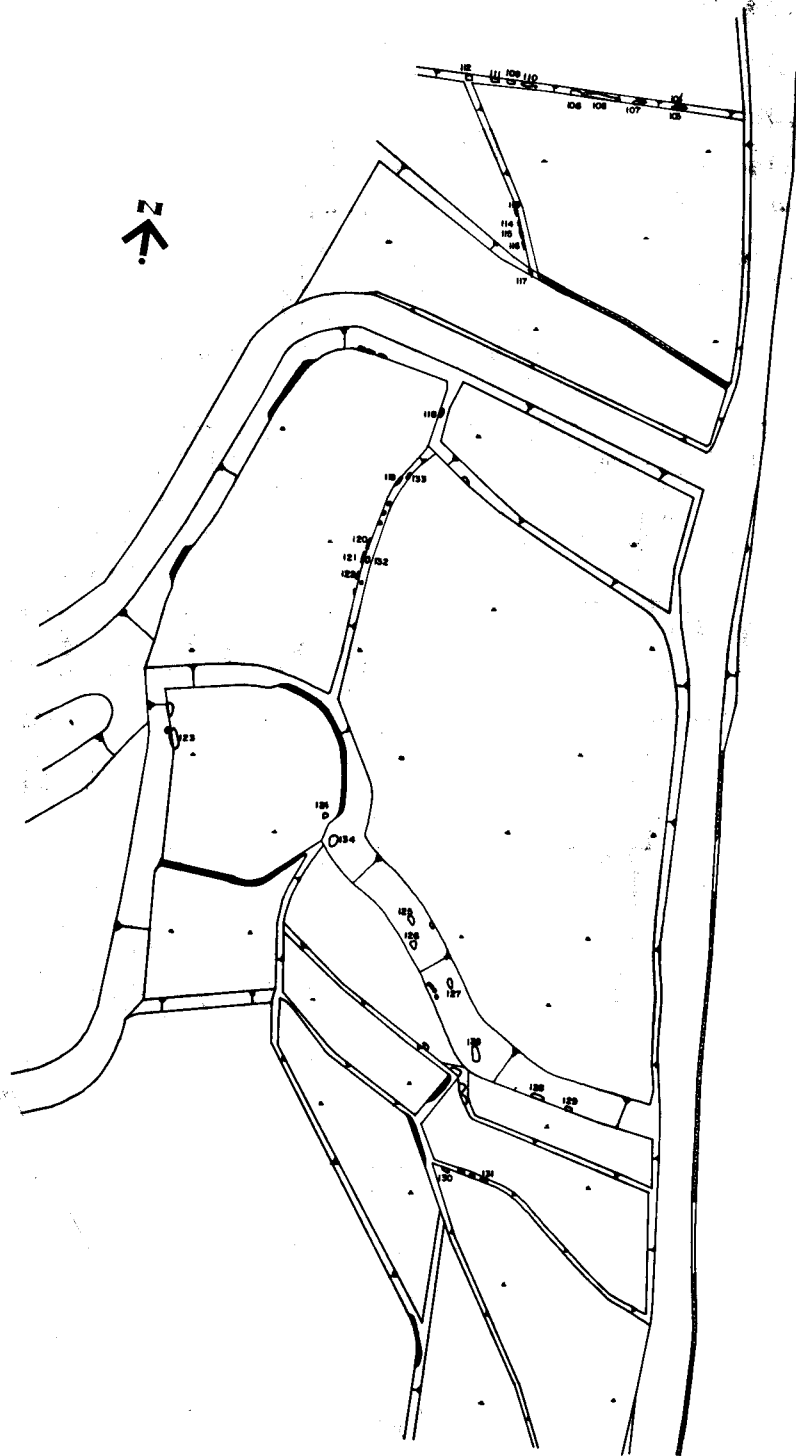


단면도

단면도







參 考 文 獻

- 朝鮮金石總覽：總督府刊
- 高麗史
- 世宗實錄地理志
- 新增 東國輿地勝覽：세종대왕 기념사업회 刊（國譯本）
- 輿地圖書（舊邑誌）：國史編纂委員會編。
- 大東地志：金正浩
- 文化遺蹟總覽：文化公報部 1975.
- 文化財大觀（國寶篇，寶物篇）：文化財管理局編
- 中原文化圈（原州，原城）遺蹟調查報告書：檀國大 博物館 1985.12
- 北原의 향기：原城郡 1981. 7.
- 漢江史：서울市刊 1986
- 感恩寺：國立博物館 1961. 5.
- 高仙寺址 發掘調查 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77.
- 彌勒里 石窟實測調查 報告書：中原郡 1979.
- 高達禪院址 地表調查報告書：驪州郡 1984.10
- 高麗法泉寺 智光國師塔碑殿址 調查概要：考古美術同人會 1966.
- 雁鴨池 「上・下」：文化財管理局 刊 1979.
- 皇龍寺址 發掘調查報告書 「上・下」：文化財管理局 1983.
- 高裕變：韓國塔姿의 研究 1975.12
- 高裕變：韓國美術史 論叢 1966.7.

- 黃壽永：韓國의 佛教美術，1974.11.
- 申榮勳：韓國古建築斷章（上卷），1975.6.
- 金東賢：韓國古建築斷章（下卷），1975.
- 金東賢：統一新羅時代의 木造建築研究（建築樣式）考古美術 162,163 호.
- 鄭永鎬：統一新羅石造浮屠研究，考古美術 158, 159 호.
- 李浩官：統一新羅時代의 龜趺와 螭首，考古美術 154, 155 號.
- 張忠植：統一新羅石塔浮彫像의 研究，考古美術 154, 155 號.
- 洪潤植：韓國의 佛教美術，대원정사 刊. 1986.8.
- 許興植：高麗佛教史研究，一潮閣刊 1986.10.
- 藤島亥治郎：「韓의 建築文化」李光魯譯 技文堂. 1986.6.

居頓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査 報告書

發 行 日：1986年 12月 日

發 行：原 城 郡

調査 編纂：새한建築文化研究所

印 刷：(株) 啓 文 社

非賣品 限定版